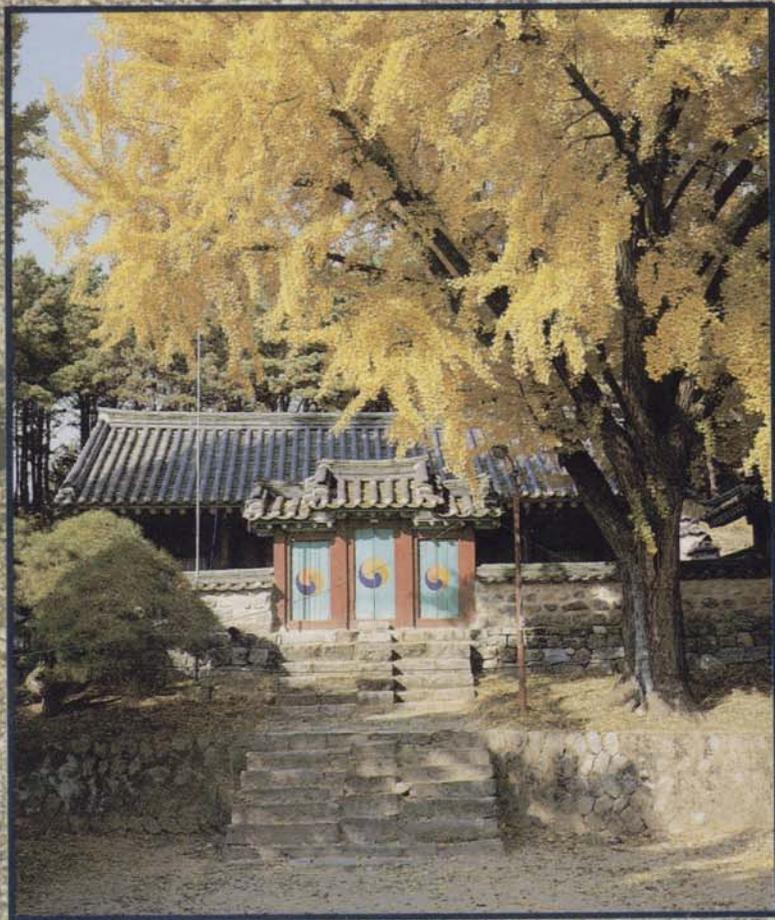


향토사료 제14집

橫城의 傳說과 說話



횡성문화원

橫城의
傳說과 說話

황성문화원



發 刊 辭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즈음 저희 문화원이 '98년 한 해 동안 郷土文化史料를 발굴하고 수집해서 정리한 郷土文化史料 第14集을 製作 發行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번호는 口傳으로 전하여 내려오는 황성의 傳說과 說話를 採錄하고 정리한 것이어서 우리고장 조상들의 생활양식과 바램이나 정서 그리고 상상력을 엿볼 수 있는 매우 가치있는 史料라 생각합니다.

문자로 남긴 記錄文學이 양반계층의 문학이라면 입에서 입으로 이른바 말로된 문학은 平民文學으로 생활경험과 의식, 가치관등 일상생활을 소재로 하고 있으나 記錄으로 보존치 않으면 死藏되기 쉬운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 문화원에서는 앞으로도 지역문화의 繼承發展을 위해서 향토사료의 發掘과 收集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覺悟입니다. 郷土文化史料 第14集의 발간과 더불어 우리고장의 향토문화가 한차원 높게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地域文化暢達을 위한 軍民 여러분의 아낌없는 關心과 愛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8. 12.

황성문화원장 심진황

橫城의 傳説과 說話

目 次

발간사 -----	황성문화원장 심진황	
전설 -----		10
설화 -----		166
효행·열녀 설화 -----		166
교훈 설화 -----		170
예지 설화 -----		173
인물 설화 -----		179
동·식물 설화 -----		181
지명 설화 -----		186
풍수 설화 -----		193
기타 설화 -----		198
[부록]민속신앙 -----		230

15 秋

傳説篇

차 례

- | | |
|-------------------|-----------------|
| 보리우물 전설 / 10 | 자차바위 / 58 |
| 밤나무숲 전설 / 12 | 말등바위 / 59 |
| 금붕어바위 전설 / 14 | 봉친바위 / 60 |
| 알미봉 전설 / 15 | 칠성바위 / 61 |
| 송하석보 도깨비 / 17 | 장군수 / 61 |
| 소세(허)바위(청룡리) / 19 | 용바위 전설 / 62 |
| 황룡고데이 전설 / 20 | 쇠절이 전설 / 62 |
| 통통바위 전설 / 22 | 숫을묘의 전설 / 63 |
| 향교에 얽힌 전설 / 23 | 목계리의 전설 / 64 |
| 용마총 전설 / 25 | 능골 전설 / 64 |
| 고판서와 도깨비전설 / 28 | 망백의 전설 / 65 |
| 까막나들이 전설 / 29 | 피발재의 유래 / 65 |
| 고내이베루 / 33 | 글쓴 바위 / 66 |
| 솔포정 / 38 | 대지울 전설 / 67 |
| 샬랭이 바위 / 39 | 신선암의 전설 / 70 |
| 말바위 / 41 | 소복미인과 백인옥 / 72 |
| 화몽정 / 45 | 우항의 전설 / 78 |
| 혈잘린산 / 47 | 등지베루 / 80 |
| 칠우고개 / 48 | 광암 / 81 |
| 학출묘의 전설 / 50 | 신선바위와 처녀바위 / 82 |
| 천석꾼이터 / 53 | 글바위 / 83 |
| 국사봉 제상바위 / 54 | 소세바위(법주리) / 84 |
| 궁천리 서낭당나무 / 55 | 광암바위 / 86 |
| 망백느티나무 / 57 | 현몽약수 / 87 |
| 청룡리 느티나무 / 57 | 봉우약물탕 / 91 |
| 복바위 / 58 | 춤추는 난조 / 92 |

말무덤에 얽힌 전설 / 100
삼척바위와 기녀의 한 / 102
삼형제바위 / 105
소사비 선정비 / 106
재짓말 / 107
봉화산의 유래 / 108
곰바위약수 / 108
거북바위 / 109
궁중리배나무 / 110
용소와 기우제 / 111
두원리 느티나무 / 112
구성골의 전설 / 113
기인 안삼교선생 / 114
동박골의 유래 / 116
정평구의 비천 / 118
대동문과 복성정 / 123
허명천장군과 용마무덤 / 125
장독바위 / 127
오노소(오늬소) / 130
해전암의 전설 / 131
학이나온 산 / 133
무당바위 / 135
버덩말 고인돌 / 135
소경골 / 136
호골바위 / 137
귀옹소의 전설 / 138

절골이라 부르게된 전설 / 140
용바위 전설 / 142
인삼과 효자에 얽힌 전설 / 143
장자터에 얽힌 전설 / 144
성바위 전설 / 145
아갈바위 전설 / 146
장수바위 / 147
땀바위(어둔리) / 147
칼바위 / 148
땀바위(창봉리) / 148
막골의 전설 / 148
점말의 유래 / 149
송장골의 전설 / 150
벽학산에 얽힌 전설 / 151
할미소에 얽힌 전설 / 152
선강정 / 152
충견비 / 153
원탑 / 154
창암의 전설 / 157
시계바위 / 159
선계마을에 얽힌 전설 / 160
나옹소 / 161
횡지암 / 161
변암 / 162
노고소 / 162

보리우물 전설

황성읍 모평리 마을 한가운데 논에는 보리우물이라는 샘이 하나 있는데 이 우물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옛날 이 우물은 물맛뿐만 아니라 만병을 고칠수 있는 효험이 있다하여 인근동네에서는 물론이고 소문을 듣고 멀리서까지 사람들이 다녀가고 했는데 쌍가마를 탄 높은 어른까지 이 우물을 다녀갔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던 어느해 백년 이내엔 찾아볼 수 없는 극심한 흉년이 찾아 들었다. 그렇지 아니하여도 보릿고개 넘기기가 세상 그 어느 험한 고개보다도 높고 험하다고 했는데 그해의 흉년에 비하면 평소의 보릿고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사람들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송진과 칩뿌리를 찾아 산이라고 생긴데는 발이 부르트도록 헤메었으며, 여기 저기서는 영양실조에 얼굴이 누렇게 뜨고 퉁퉁살이 부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털썩털썩 짚단 쓰러지듯 쓰러져 갔다.

그때에 이 마을에 어린 아기를 등에 업은 한 아주머니가 문전걸식을 하며 이 마을에 나타났다. 옛말에 「쌀독에서 인심난다」고 세상이 온통 흉년으로 그 지경이니 인심이고 뭐고가 없었다. 이웃사촌도 넉넉할 때 이야기지 서로가 자기 살궁리를 위해 눈이 새빨개진 판국에 거지와 다름없는 그 아주머니에게 밥 한 술 먹어 보라는 사

람은 없었다. 내리찍는 6월의 태양 아래에서 벌써 며칠째 곡기를 잃어버린 어린아이는 울 힘도 없다는 듯 축 늘어져 있었다. 굶기는 아주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사람이 사나흘 굶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이 아주머니는 일주일째 물만 먹고 버텨온지라 이제 눈에 보이는건 아무것도 없었다.

「아가야 좀 참아라. 이제 이 애미가 맛있는 고기국을 끓여 줄게!」「마늘, 파를 송송 썰어 개장국 기름이 좌르르 흐르는 곰탕을 실컷 먹여 줄테니까」 정신이 완전히 돌아버린 아주머니는 헛소리를 중얼거리며 보리우물가에 앉아 등에 업은 사랑하는 자식을 내려서는 서서히 개를 잡듯 목을 조여가기 시작했다.

울 힘조차 없는 어린아이는 순식간에 어미의 손에서 축 늘어져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떠나고 말았다.

자식을 죽인것도 모르는 이 아주머니는 정말로 개를 잡듯 자식을 나무에 매달아 놓고는 불을 막 놓으려고 했다.

그때 그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나무에 매단 아이를 풀어 놨지만 이미 그때 그 어린아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완전히 돌아버린 그 아주머니는 악을 쓰며 고기를 내놓으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 들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제 자식이 고기로 보일까?」

이 광경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마을 사람들 힘에 어찌지

도 못하는 그 아주머니는 연실 「내고기 내고기…」라고 외쳐대며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그후부터 이 우물은 이상하게도 그토록이나 신효하던 약효가 없어지고 평범한 우물로 바뀌었다고 한다.

말 못하는 우물이었지만 너무도 애절한 사연과 자식조차도 몰라 보는 인간의 또 다른 면에 실망을 하고 신효한 기운이 멀리 떠났다고 한다.

지금도 이 우물은 사철 마르는 법이 없으며 요즈음에는 이 우물에다 관정을 설치해 가물때 모퉁리 넓은 들을 시원하게 적셔 주고 있다.

밤나무 숲 전설

옛날 이곳 황성읍 모퉁리 앞뜰에는 밤나무 숲과 소나무 숲이 울창하게 들어차 있었다. 어찌나 숲이 무성했던지 대낮에도 이곳을 지나다니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또한 이 숲에는 언제부터였는지는 몰라도 많은 수의 황새와 왜가리들이 둥지를 짓고 번식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새들이 마을에 깃들이는 것은 마을 경사라 생각하여 온 정성을 다해 둥지를 튼 새들을 아끼고 보살폈다.

그들은 논밭 일을 하던 틈틈이 허리를 펴고 밤나무 숲에 흰색으로 무늬를 그리며 날아드는 황새와 왜가리를

바라보는 취미로 일의 고단함을 잊기도 하였다.

새들도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안다는듯 평화스럽게 들판을 노닐곤 하였다. 그러다가 이곳 마을에도 개혁이 일기 시작했다. 다름아닌 우리 국토를 멋대로 주물러 대던 일제에 의해 경지정리를 구실로 그 종던 숲들이 하루 아침에 잘리우고 그곳에서 등지를 틀고 평화로이 살던 황새와 왜가리들은 졸지에 보금 자리를 잃고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렸다.

경지정리로 논밭은 흰하게 되었지만 그 아름답던 숲이 있던곳은 나무 그루터기만 들쭉날쭉 불성사나운 모습을 하고 말았다. 마을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날아가 버린 새들처럼 웬지 허전하고 쓸쓸하기만 하였다. 그후부터 마을에는 웬지모르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나기 시작하여 그에 따라 마을 인심도 예전과 같지를 았았다.

이 마을에는 갑자기 열병(장티푸스)이 만연하여 그야말로 하루가 다르게 지계에 실려 불살러지는 시체가 수를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늘어갔다. 그 당시만 하여도 급성전염병에 대해 그들은 강건너 불구경 하듯 어떻게 손을 쓸수도 없었다.

그저 열병든 집에다가 금줄을 매고는 죽은 시체를 태우는게 고작이었다.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분명 마을에 뭔가 잘못 되었다 싶어 그들은 북술 영감을 불러 마을사람들 전체가 마을 회관에 모여 동네곳을 장장 한달반 동안이나 벌였다.

그후부터 비록 그루터기만 남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매우 신성시 여기는 습관을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금붕어 바위 전설

횡성읍 모평리 마을에는 금붕어 바위라는 10평 정도의 넓은 바위가 있고 이 바위를 경계로 아래 위로 기와 집 두채가 나란히 서 있었다. 그런데 희안하게도 이 두 집은 외모는 물론이려니와 가옥구조와 규모까지도 자로 재어서 지은듯 똑같으며 심지어는 마당가에 있는 토담으로 만든 변소까지 모양과 크기가 똑 같았다. 이와같이 쌍둥이처럼 두집이 똑같이 만들어진 까닭은 금붕어 바위와 관련된 전설이 전하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옛날 이 금붕어 바위 밑에는 옥같이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었으며 지나다가 바위에 귀를 대고 들어보면 사철 물소리가 선명히 들렸다고 한다. 그리고 언제부터였는지 몰라도 이 바위밑에는 신령한 힘을 가진 금붕어가 살고 있었다.

예로부터 금붕어는 매우 귀중히 여기는 영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이야기에는 금붕어는 본시 용왕의 자제로서 신비한 힘을 가지고 많은 이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바위 밑에 살던 금붕어는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금붕어처럼 금붕어의 일거일동에 따라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여러번 일어나곤 하였다. 이 금붕어가 머리를 윗쪽집 있는 곳으로 두고 물속에서 노닐면 윗집이 번창하고 많은 복을 받았으며 반대로 아랫쪽으로 향해서 노닐면 아랫집에 엄청난 복이 찾아 왔다.

두 집은 금붕어를 사이에 두고 아래 윗집, 두집은 서로 눈치를 살피가며 상대방 기둥이 바뀌어 뭐가 잘됐다 싶으면 재빨리 그집과 같은 기둥을 구해 모양을 바꾸었으며 상대방 변소 지붕을 서로 이어 경사가 생겼다면 금새 지붕을 새로 해 잇곤 하였다.

그 두집은 밖에서 보면 흡사 쌍둥이 형제를 세워 놓은 듯 같은 모양을 하고 나란히 서 있게 되었다. 특히 이 금붕어 바위 근처는 알 수 없는 불가사이한 힘이 있어, 혹 모르고 근처에서 모깃불이라도 피우는 날이면 즉시 화상을 입는등 괴이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한다. 지금도 이 바위 위에 올라가 쿵쿵 올려보면 바위속에 금붕어라도 살고 있는듯 쿵-쿵 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다.

알미봉 전설

횡성읍 모평리 뒷산에는 알미봉이라는 산봉우리가 있는데 이 산봉우리는 섬강 건너편 곡교리에 있는 산과 연

결이 돼 있었다고 한다.

○ 지금 현재도 곡교리 별판 한가운데는 모평리 뒷산 알미봉과 모양이 똑같은 산봉우리가 불끈 솟아 있는데 알미봉에 얽힌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하여 지고 있다.

○ 옛날 알미봉과 곡교리에 있는 산봉우리는 연결돼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뇌성병력이 치면서 모평리와 곡교리 산 가운데가 갈라지면서 강을 타고 정처없이 떠내려 갔다고 한다. 이 떨어진 산봉우리는 섬강을 따라 여주지방의 한강 상류까지 떠 내려가 멈춰 섰다.

○ 그후 어느해 이곳 모평리에 사는 익살스럽고 담이 큰 사람이 한양가는 길에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가 모평리 뒷산 알미봉과 모양이 똑같은 산봉우리가 한가운데 섬을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곳 마을에 들려 다짜고짜로 이 산봉우리는 모평리 소유의 땅이 떠 내려온 것이 분명하니 그동안 이 땅에 대해 사용한 것은 묻지 않을테니 이제부터라도 도지를 물어야 된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분명 저 섬이 어디서 떠 내려온 것은 확실한데 그렇다고 밀도 끝도 없이 지나는 길손의 말만 믿고 도지를 물어 줄수는 없는 처지라 모평리 사람을 앞세우고 이곳 횡성까지 오게 되었다.

○ 과연 횡성 땅에 도착하여 알미봉과 곡교리 별판에 솟은 산봉우리를 비교해 보니 자기마을 강북판에 떠내려온 섬이 이곳 산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는 그 즉시로 마을에 돌아가 도지를 건어 이 마을로 보냈다고 한다.

그후부터 매년 이곳 사람들은 도지를 계속 받아 왔는데 몇년 도지를 물어주던 그곳 사람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괜한 일을 하는것 같아 궁리를 짜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어느날 가을 도지를 받으러 온 모평리 사람을 붙들고 답판을 했다. 이야기인즉 우리는 저 섬이 이제 필요가 없고 도지 물어줄 능력도 없으니 당신네 동네로 저 섬을 빨리 옮겨 가라고 대들었다. 도지를 받으러 갔던 모평리 사람은 아연질색할 수 밖에 없었다. 도지는 고사하고 저 엄청난 산덩어리를 당장 떠 갖고 가라니 놀랄 수 밖에 없는 일이었다. 억지로 빌고하여 그는 뒤도 한번 안돌아보고 삼십육계 줄행랑을 났다. 그후부터 그곳마을 사람들의 입에서는 도지 이야기는 쑥 들어갔다고 한다.

송하석 보 도깨비 (마산리)

옛날 우리네 서민들에게 도깨비의 존재는 매우 재미있게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또 도깨비 존재는 이땅의 서민들 생활에 밀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어느 마을 어느 동네를 가도 도깨비 이야기가 없는 곳이 거의 없다.

황성읍 마산리 쇠절이에는 구씨성을 가진 중년 사내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날 저녁 감쪽같이 행방을 감추고 말았다고 한다. 집안 식구는 물론 온 마을 사람들이 햇불을 들고 없어진 구씨를 찾으러 동네를 이잡듯 뒤졌다. 그러나 어디에도 구씨 모습은 보이지를 않았다. 마지막으로 냇가로 가 보자고 마을 사람들은 햇불을 들고 전천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 보았다.

절벽위에 소나무가 들어 차 있어 그 이름을 송하석이라 하는 곳에 이르렀을때 낮익은 구씨의 목소리가 저 밑에서 들려왔다. 사람들은 반가워 소리나는 쪽을 향해 급히 달려 내려가니 그곳에는 웃지 못할 괴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구씨가 도리깨를 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씨름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억지로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고 가까이 다가갔다.

「이놈 죽인다. 이놈 쾌쌈한 놈?」

구씨는 도리깨 장치를 붙들고 혼자서 소리를 질러대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여럿이 합세하여 도리깨 장치를 구씨 손에서 떼어놓고 집으로 데리고 왔다. 한참후 정신이 든 구씨가 하는 얘기는 더 재미 있었다.

초저녁때 밖에서 웬 녀석이 부르길래 따라 나섰는데 덩치가 큰 거인이 자기를 붙들고 놔주질 않더라는 얘기가였다.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 덩치 큰 거인은 어디로 가고, 자기는 집에 있던 도리깨 장치를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곳에 전깃불이 들어오고 부터 도깨비불은 어디론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얘기이다.

소세 (혀) 바위 (청룡리)

황성읍 청룡리 날마제라는 곳에는 소 혀바닥을 닮은 바위가 하나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소세(소혀)바위라고 부르고 있다.

옛날 이 바위 뒷편에는 거부 장자가 살고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꽤나 사는 집에는 손님이 그칠 날이 없기 마련이다. 이 부자집에도 날이면 날마다 손님이 들끓었는데 이 손님들을 치닥거리하는 사람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사시사철 손에서는 물기가 마를 날이 없었고 아녀자들은 하루 종일 다리가 나무토막처럼 뻗뻗하기만 했다.

그리하여 이 집 안식구들은 자나깨나 손님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다.

어느날 이 부자집에 시주를 하러 스님 한사람이 찾아왔다. 안식구들은 시주를 내주면서 예의 그 손님 끊어지게 하는 비방이 없겠느냐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떠들어댔다.

이 말을 들은 시주승은 그 방법을 알려준다면서 이 집 앞에 있는 소 혀바닥 형상을 한 바위를 깨뜨리면 된다고

년짓이 일러 주었다.

우매한 이 집 식구들은 시주승의 말만 듣고 그 즉시로 정과 망치를 이용하여 집앞에 있는 바위를 잘라냈다. 그러자 괴이한 일이 일어났다. 「쨍」 소리를 내며 바위가 두 동강으로 갈라지자 시뻘건 피가 사방으로 튀어 올랐다.

사람들은 너무나 괴이한 일에 눈이 휘둥그래지며 낮 빛이 새파랗게 변하고 말았다.

그 일이 있던 후 과연 시주승의 말대로 그 다음날부터 손님의 발길이 뚝 끊어졌고 그렇게나 번창하던 그 부자 집은 하루가 다르게 망해 갔다. 결국 얼마를 못가서 그 부자집은 폐허가 되어 버렸으며 집의 자취는 흔적조차 찾아 볼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지금도 그 집터가 있던 곳에서는 다수의 기왓장이 출토되고 있으며 소세 바위는 헛바닥이 끊어진 채로 바위가 붉게 물들어져 있어 그 당시 재미있는 전설을 이야기 해주고 있는듯 하다.

황룡고데이 (구덩이) 전설

황성읍 마산리 말미라는 마을의 뒷산에는 황룡고데이 (구덩이)가 있는데 이곳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옛날 이곳에 살던 어느 부자집에서 상을 당하여 자손

된 도리로서 좋은 명당자리에다 산을 쓰는데 가장 큰 도리요,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하고 사방 수소문을 하여 유명하다는 지관을 다 데려다가 명당자리를 찾게 했다.

풍수지리에 능통하고 명당자리 잡는데는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지관 한 사람이 천하 명당 자리는 여기라며 뒷산을 일러 주었다.

드디어 문중 사람들과 산역하는 사람들이 지관이 일러 주었던 장소를 파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지관은 그 장소를 일러주면서 「산을 쓰되 땅을 파 내려가다 깊거나 얇거나 돌이 나오면 파는 것을 즉시 중단하고 그 자리에다 산을 쓰도록 하시오」라고 말을 했다.

사람들은 명당자리면 되었지 무슨 놈의 돌맹이 하나 나온다고 제대로 파지도 못하고 산을 쓰겠느냐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들을 했다.

한 서너자쯤 파 내려가자 그곳에는 그리 크지 않은 넓적한 돌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렇지만 그 정도의 깊이로는 도저히 산을 쓸 수 없음을 안 그들은 마침내 팽이로 돌을 내려치기 시작했다.

한번, 두번, 세번….

「쨍!」 소릴 내며 그 돌은 갈라져 나갔다.

그런데 사람들이 깨어진 돌을 들어 내자 그곳에는 금빛이 찬란한 개구리 한마리가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다.

개구리 몸에서 나오는 금빛 광채가 어찌나 빛나고 강렬했던지 그곳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눈이 부셔 잠시

동안 눈을 뜰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 후 그렇게나 번창하였던 그 부자집은 웬일인지 하루가 다르게 재산이 줄어들고 이유도 없이 자손이 귀해졌다고 한다.

또한 그 집안은 한대에 한사람씩 애꾸이거나 귀가 먼 사람이 나왔다고 한다.

통통바위 전설 (생운리)

통통바위에는 고판서 이야기 말고도 어느 홀애비와 딸과의 애절한 사연이 전설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옛날 이곳 쇠절이에는 딸만 하나 가진 홀아버지가 한 사람 살고 있었다고 한다.

오랜 세월을 부인없이 혼자 살아온 이 홀아버지는 자라나는 딸을 벗삼아 고독한 생활의 시름을 달래고 있었다.

꽃을 가꾸는 마음으로 그는 딸을 보살피며 키웠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어찌다 불쑥불쑥 일찍 세상을 뜰 부인이 생각나곤 했다. 그리 넉넉하지 않은 가정 살림에다가 또한 오랫동안 정을 붙이고 살아온 하나 밖에 없는 딸 자식을 선뜻 남에게 주기 어려워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마침내 혼기를 넘긴 노처녀가 돼 버렸다. 그러나 그 딸은 그런 것은 조금도 개의치 않고 홀로 사시는 아버지를 모시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아버지는 망령이 들려고 그랬던지 딸에게 참을 수 없는 욕정이 끓어 올랐다. 아버지는 몇번을 참으려고 하였지만 그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는 미친듯이 딸을 향해 이제껏 세상을 살피며 꼭꼭 참아왔던 성욕을 폭발이라도 하려는 듯 맹렬히 접근해왔다. 딸은 가슴이 아팠다.

그러나 그것은 짐승이나 할 짓이라는 것을 안 딸은 독하게 마음 먹고 아버지에게 매달렸다. 「아버지 그러면 제 부탁을 하나 들어 주세요. 저를 범하시기 전에 광에 있는 소지르매(소등에 짐을 실을 수 있게 만든 농기구)를 짊어지고 저 울타리 밑에 가서 「음메～」 소릴 세번만 지르세요. 그러면 아버지 하라는데로 하겠어요.」

완전히 성욕에 눈이 먼 아버지는 딸이 시키는대로 소지르매를 짊어지고 울타리 밑으로 가서 소 울음소리를 세번 질러댔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딸은 그 길로 툭툭바위로 달려가 몸을 던졌다고 한다.

향교에 얽힌 전설

횡성읍 읍상리에 있는 향교를 지을 때의 일이었다.
모든 설계가 끝나고 터까지 완전히 다 다져놓은 후 도

목수는 집을 지을 재목을 구하러 다니던중 인근에는 마땅한 재목이 없자 평창의 오대산까지 가게 되었다. 과연 그곳에는 아름들이 나무들이 즐비한지라 나무를 잘라 놓았다. 그러나 그렇게 큰 재목을 날라오는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

오늘날 같이 운반 수단이 발달하지 못했던 그 당시로서는 우마차를 이용하는 길 뿐이었다. 도목수는 황성에 돌아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목재 운반에 며칠을 골몰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아침의 일이었다. 도목수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떠보니 향교를 지을 터에 자기가 오대산에 들어가 베어놓은 재목들이 모두 날라져 있었다.

너무나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엿저녁까지도 마당에는 작대기 하나 없었는데 밤사이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도목수는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해 보려는 듯 눈을 비비며 허벅지를 꼬집어 보았다. 그러나 꿈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날 아침 황성에 있는 모든 소들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소들은 한결같이 목덜미와 등에서 비지땀을 흘리며 식식거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날밤 도목수의 애쓰는 모습을 본 하늘에서 그의 장한 뜻에 감동하여 황성의 모든 소들의 힘을 빌어 오대산에 있는 나무들을 하룻밤 사이에 모두 날라 주었다는 것이다.

용마총 전설 (마산리)

고려시대 이곳 황성에는 황장사라 불리우던 장사가 한사람 살고 있었다. 그는 힘이 얼마나 세었던지 황소 한마리쯤은 맨주먹으로 때려 잡는 일기당천의 위세를 겸비하고 있었는데 용마 한필과 함께 무술 연마에 혼신을 다하고 있었다.

때가 와서 나라에서 부르면 즉시 달려가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우겠다는 큰 뜻을 마음 속에 품고 그는 밤낮 없이 용마와 더불어 전투훈련에 열중했다.

활 쏘기, 칼 쓰기를 달리는 말 위에서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는 계속 연습에 온 힘을 기울였다. 피나는 훈련이 연일 계속되었다. 원래 타고난 힘과 무예의 재능을 가진 그는 하루가 다르게 무술 솜씨가 높은 경지로 향상되었다.

말 위에서 그가 활시위를 당기면 평지에서 과녁을 향해 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목표물을 명중 시켰으며, 그가 말 위에서 날이 선 칼을 휘두를 때마다 칼은 무서운 소리를 내지르며 목표물을 무우 자르듯 두동강 내버렸다.

그는 이제 뜻한바 만큼 무술이 향상된 것을 알고는 용마에 대해 집중적인 훈련을 시작하였다. 좋은 말이란 뭐니뭐니 하여도 빠르기가 생명이다. 이 말은 이름에 남부끄럽지 않게 바람처럼 빠른 속도로 황장사를 태우고 들

판을 내달리고 산 위를 뛰어 올랐다.

홀로 사는 누이에게 아침밥을 짓게 하고는 멀리 서남동 고개까지 갔다오게 하여 만약 아침밥이 되기전에 도착해야지 그렇지 않을 때는 아침 먹이를 주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 용마는 한번도 아침을 굶지 않았다.

아침밥이 끓기도 전에 용마는 「히잉」소리를 내며 집에 도착하였던 것이다.

드디어 황장사는 용마에게 마지막 시험을 하기로 했다. 용마를 탄 후 화살을 쏘아서 그 화살이 목표물에 닿기전에 말이 먼저 도착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말의 목을 베기로 했다. 정말로 비장한 시험이 아닐 수 없었다. 용마에 있어서는 이 한번의 시험으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있었다.

황장사는 남산에 올라 심호흡을 한 후 건너편 마산리를 향해 힘껏 활시위를 당겼다. 「윙」소리를 내며 화살이 무서운 속도로 날아갔다. 그와 동시에 말도 있는 힘을 다해 화살이 날아가는 방향을 향해 힘껏 달렸다. 화살과 용마의 대결, 죽느냐 사느냐의 용마의 사활이 걸린 시험이 숨가쁘게 진행되었다.

순식간에 용마는 들판을 가로질러 목표지인 마산리 고개 마루턱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화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었다. 이에 황장사는 필경 화살이 먼저 떨어졌을 것으로 생각하고 날이 시퍼런 칼을 뽑아 사랑

하던 말의 목을 내리쳤다.

시뻘건 피가 파란 하늘 위로 분수처럼 뿜어 올랐다. 용마는 비명도 제대로 못지르고 그 자리에 쓰러져 숨을 거두었다.

그때였다. 바람을 가르는 화살소리가 들리더니 방금 전 남산위에서 자기가 쏘았던 화살이 날아와 땅에 꽂히는 것이었다. 「아~ 용마가 이긴 시합이었구나」 그는 나뉘는 말머리를 부둥켜 안고 목이 터져라 울부짚었으나 한번 죽은 용마는 살아 돌아 올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는 그후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이 되어 용마의 시체를 끌어 안고 가슴이 뜯어지는 듯한 통곡으로 나날을 보냈다. 얼마 후 정신이 든 황장사는 용마의 무덤을 속죄의 뜻과 평소 용마를 사랑하고 아끼던 정성으로 훌륭한 말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자신의 우둔함으로 애마를 죽인 자신은 장군이 될 그릇이 못된다고 스스로 자책하며 탄식하던 그는 활과 칼을 꺾어 버리고 온갖 정성을 기울여 말 무덤을 가꾸며 무덤 옆에서 살다가 어느날 상제 모습의 흰두루마기를 걸친채 어디론가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한다. 지금도 말미는 황성읍에서 2킬로미터 떨어진 마산리 마을에 남아 있다.

그래서 마을 이름도 말무덤에서 유래한 「말미」라 부르고 있고 행정부락명도 말「마」의 뉘「산」자를 써 마산리라 부르고 있다.

고판서와 도깨비전설 (생운리)

횡성읍 마산리 마을 앞을 굽이쳐 흐르는 전천에는 통통바위라는 바위가 있는데 이곳은 물이 빙빙 돌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상당히 물이 깊어 옛사람들 이야기로는 명주실 한꾸러미가 다 풀려도 모자랐다고 한다.

이곳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옛날 이곳에는 고씨성을 가진 젊은이가 매일마다 이곳을 지나 청룡리 서당으로 글을 배우러 다녔다고 한다. 워낙 머리가 총명하고 재능이 뛰어난 이 소년은 서당 훈장 어른이 하나를 가르치면 서너가지를 알 정도였다.

어느날 이 소년은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바위에 들려 놀다가 잠깐 바위위에서 잠이 들고 말았다. 얼마만 큼 시간이 지났을때 이 소년은 비몽사몽간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숫 조용히 해 고판서께서 주무신다.」, 「잠을 깨면 큰 일 난다.」

눈을 번쩍 뜬 소년은 주위를 살펴 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물소리만이 전처럼 그렇게 들려올 뿐이었다.

이 소년이 바로 횡성의 인물로 꼽히는 고행산이라는 분이였다. 고행산은 과거에 급제하여 형조, 호조, 병조 판서를 거쳐 우의정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이런 일이 있던 후 이 동네 사는 한 소년이 이 바위에

서 잠을 청하자 「예끼 이방 이놈! 어서 물러가지 못할 까」하는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이다. 결국 그 소년은 커서 이방밖에 못 지냈다고 하는 전설이 있다.

까막나들이 전설

옛날 이 곳 영영포리 앞 개울가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소가 있었는데 얼마나 깊었던지 주먹만한 명주실 꾸러미가 다 풀려도 바닥까지 닿지를 았았다한다. 이 깊은 소 주위는 몇백년은 족히 된 아름드리 버드나무가 뻗뻗히 들어차 있어 여름철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다가 나무 밑에서 쉬었다 가곤하였다.

영영포리 마을에는 옛날 담이 크고 힘이 장사인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다. 물론 이름도 성도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전설같은 힘과 용기에 많은 사람들은 혀를 내 둘렀다고 한다.

어른이 채 되기전에 열서너살 나이에 가을 타작 마당 벧가마 정도는 「꽁」 소리 한번 내지르면 어느새 등에 번쩍 올라가 집 안으로 날라지곤 하였다. 인근에서 황소타기 씨름대회가 벌어졌다 하면 아무리 힘센 자라도 십여분을 못 견디고 모래판에 주저 앉혔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담이 어찌나 큰지 어릴적 한밤중 공동묘지에 가 말뚝을 박고 오는 것은 보통이었다. 어느날 그는 이웃 마을

에서 밤늦도록 놀다가 밤이 으스스해져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친구들과 막걸리 추렴으로 몇사발 얻어 마신 술기운에 시원한 갯바람이 솔솔 불어오니 기분이 하늘을 나를듯했다.

그는 왕방울 같은 굵은 목소리로 소몰이 소리를 구성지게 내 뿜으며 이 까막나들이 소를 지나치게 되었다.

칙칙한 어둠 사이로 반딧불이 꺾벼거리고 버드나무 숲에서는 후투티 한 마리가 어둠밤을 걷어 올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그가 버드나무 숲을 막 지나 치려는데 키가 구척이나 뒹직한 검은 물체가 툭 튀어나와 그를 가로 막았다. 아마 그 상황에서 웬만큼 담 약한 사람들은 그대로 기절을 했으리라. 그는 그러나 조금도 놀라지 않고 걸음을 멈춰 괴상한 녀석을 바라보았다.

「이봐 네가 이곳 인근에선 힘 꽤나 쓴다는 녀석이야?」

「허허 그놈 주둥이 한번 고약하다. 헛바닥이 반토막이야. 네놈은 다짜고짜 반말 짓거리냐」

「난 이곳 까막나들이에 살고 계시는 도깨비니라, 내 네가 힘꽤나 쓴다는 소문은 벌써부터 듣고 네놈과 한번 겨루어 볼려고 오래전부터 버르고 온 터였다.」

「그놈 도깨비치곤 배짱 한번 마음에 드는구나, 그래서 시험이라면 다 좋다. 술먹기 내기라면 말술 아니면 이야기도 꺼내지 말고 힘 겨루기라면 황소 정도 메꿨을 수

있는 정도라면 나한테 덤벼 보렴」

「과연 소문대로 배짱 하나는 든든하구나. 좋다 씨름으로 승패를 겨루자」

「이 녀석 어리석은 도깨비야 네가 뭘 잘못 안 모양이로구나 아직 씨름에서 내 앞에서 이겨 본 자가 없는 걸 너는 모르는구나」 「좋다. 이 놈 너 오늘 혼 좀 나봐라」

드디어 도깨비와 그 장사는 서로의 허리를 잡고 씨름을 시작했다. 어릴적부터 씨름판이라면 이골 난 그라 속으로는 은근히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도깨비의 허리를 바짝 잡아챘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도깨비 녀석은 등치도 등치였지만 힘 또한 대단했다.

마치 거대한 바위를 땅위에 놓은 듯 그 녀석은 꼼짝을 안했다. 사실 놀라기는 도깨비도 마찬가지였다. 꿈 소릴 내며 두발에 힘을 주고 버텨선 그 장사는 글자 그대로 살아 있는 태산이었다. 이런 싸움을 두고 용호의 대결이라고 그랬었나 보다. 어느 누구도 조금도 양보없이 들이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상대방의 허리춤을 붙잡은 채 그렇게 버티고 서서 밤을 새고 있었다.

섯불리 안다리 걸기니, 밧다리 채기니, 호미걸이와 같은 수를 걸었다가는 순간의 헛점으로 당장 수를 쓴 자가 나가 떨어질 판이었다.

짧기만한 여름밤이 이쪽 사정은 나몰라라 하며 새벽을 향해 줄달음 쳤다. 이제 서서히 몸이 달기 시작하는

건 도깨비쪽이었다. 캄캄한 밤이나 도깨비는 힘을 쓰지
날만 밝았다하면 도깨비는 맥을 못추는 것이었다. 맥을
못추는 정도가 아니라 도깨비의 수명은 밤에만 존재하
기 때문에 똥끝이 땀다. 몇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둘
이는 그림처럼 한곳에서 상대방을 붙잡고 땀을 흘리고
있었다.

건너편 가래울 뒷산에 히끄므레 날이 밝아오며 선잠
깬 장닭이 목소리를 길게 뽑아 올리자 도깨비는 사색이
되어 장사에게 애걸을 했다.

「이봐 날 좀 봐 주게. 내일밤 다시 하기로 하구 오
늘은 그만두세」

「이녀석 안돼. 한번 남자가 칼을 뽑았음 승부를 내
야지」

「아이고 제발 나좀 살려주게 저 건너편 가래울 산에
면동이 터오면 난 끝장이란 말일세~ 응」

「안돼 기권은 없어. 죽든지 살든지 결판을 내야지」
도깨비의 약점을 알아 차린 장사는 바짝바짝 궁지로
몰고 갔다. 이윽고 도깨비는 장사 허리춤에서 손을 떼
고는 무릎을 꿇고 빌었다.

「내 이 보따리를 다 줘세. 평생 써도 남을 보물들일
세」 그는 못이기는체 하며 도깨비를 놔 주었다.

「좋아 정 그렇다면 한번 봐주지. 그렇지만 이것은
꼭 약속을 해야 보내준다.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거리
지 말고 추후에 인간들에게 시건방진 내기 따위를 걸

어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라」 「약속을 한다. 정말 정말이다.」

도깨비는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숲을 빠져 어둠속으로 어디론가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 도깨비가 주고간 검은 보따리를 열자 그곳에는 진기한 보물과 금은보화가 가득 들어 있었다. 도깨비와의 내기 싸움으로 얻은 상금치고는 너무나 엄청난 액수였다.

그후부터 사람들은 그 소 이름을 「까막나들이」라 부르게 됐는데 지금 소는 장마에 메꾸어져 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몇그루 버드나무만이 그 당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 주려는듯 갯바람에 흔들거리고 있다.

고내이베루

황성읍 북천리에서 내지리쪽 가는 길목의 고내이베루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황성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울창한 숲과 기암절벽으로 이어진 험한 곳이었다. 이 험준한 절벽 꼭대기에는 절이 하나 있었고 이 절에는 나이 많은 중과 고양이 한마리가 있었다.

그는 몇십년 묵은 영리한 이 고양이를 친자식보다 더 애지중지 하였다. 그도 그럴것이 아무도 없는 적적한 첩첩산중의 절간에서 주지는 고양이를 벗삼아 하루해를 보내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던 것이다.

지금은 고내이베루의 바위들을 깨고 그 밑으로 신작로를 내 왕래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고내이베루 쪽으로는 오솔길만 토끼길 처럼 나 있을 뿐이었다.

그리하여 밤길을 가는 사람들은 고내이베루 오솔길보다는 개울을 건너 빙 돌아서 내지리나 수백리 쪽으로 빠지고는 했다.

어느 달도 없는 밤의 일이었다. 수백리쪽으로 가는 나그네 한사람이 고내이베루 입구에 당도하여 땀을 잠시 들인 다음에 강을 건너기 위해 바지가랭이를 걸어 부치고 징검다리로 막 들어섰다.

그때 저쪽편에서 시퍼런 불 두개가 가지런히 이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나그네는 휘휘한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이왕 개울을 건너기로 작정한 터라 조심조심 징검다리를 밟으며 개울을 건너기 시작했다.

시퍼런 두줄기의 불빛도 역시 이쪽을 향해 계속 개울 북판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나그네는 웬지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며 등에서는 식은 땀이 자꾸 흘러 내렸다. 평소 그답지 않게 자꾸만 겁이 나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한발자욱 두발자욱 불빛은 점점 가까워졌다. 마침내 개울 북판에 이르렀을때 나그네는 뒤로 벌렁 나가 떨어질 만큼 놀랐다. 새파란 불빛을 내며 다가 오는건 다름 아닌 덩치가 개만한 고양이였다.

「고안놈 때문에 땀만 흘렸네 이놈아 썩 비키지 못

할까」

나그네는 상대가 고양이라는데 아까보다 겁은 덜 났지만 역시 긴장되고 떨리는 건 마찬가지였다. 나그네 말을 들었는지 못들었는지 고양이는 꼼짝도 안하고 그 자리에서 울음소리만 토해냈다.

어느 누군가가 양보를 해야만 한쪽편이 건너 갈 수가 있는 징검다리 위에서의 상황이 꽤 오랫동안 계속됐다. 그것은 어느 한편에서 물에 빠져야 한다는 절박한 것이었다. 나그네는 소리도 질러보고 물속의 돌맹이를 주워 물탕을 튀기며 쫓아 봤지만 고양이는 끄덕도 안했다. 숨막히는 팽팽한 시간이 지루하게 지나가고 있었다.

누가 먼저였는지 모르지만 거의 들은 동시에 징검다리를 건너기 위한 싸움을 벌였다. 아무리 힘센 장정이지만 캄캄한 밤중에 강 한복판의 징검다리 위라 그리 만만치가 않았다. 더구나 밤눈이 밝은 고양이에게 나그네는 손 몇번 못 써보고 당하고 말았다.

나그네는 온몸이 고양이에게 할퀴우고 물어 뜯겨 만신창이가 되어 강물에 빠지고 말았다. 고양이는 뒤도 한번 안돌아보고 고내이베루 산꼭대기 암자로 달음질쳐 올라갔다.

다음날 나그네는 수소문해서 알아 본 결과 그 고양이가 고내이베루 산꼭대기 암자에서 기르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 분하고 원통한 마음에 암자를 찾아갔다.

암자의 주지를 만난 나그네는 다짜고짜로 사람을 해

치려한 고양이를 살려둘 수 없으니 당장에 해치우라고 주지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나그네의 이야기를 듣고 난 주지의 마음은 매우 착잡했다. 이때껏 자식 삼아 온갖 사랑을 다 바쳐 길러 온 고양이를 자기 손으로 도저히 해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나그네의 말을 듣고도 고양이를 두둔하기도 어려운 노릇이었다.

주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묘안이 떠오르질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한동안 생각에 잠긴 주지의 머리속에 한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처음에는 나그네가 당장 고양이를 잡아 없애야겠다고 버텼으나 주지의 눈물어린 호소에 이끌려 주지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다.

주지는 뒤결에 서서 눈치만 살피던 고양이를 끌고 나와 몹시 나무랐다.

「이 녀석아! 감히 네가 사람을 해치려 들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너는 오늘부터 내 식구가 아니니 당장 내 눈 앞에서 썩 없어져라」

주지의 이야기를 알아 들었는지 고양이는 주지에게 매달려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비는듯 했다.

「안돼 이놈아. 용서할 수 없다. 당장 내 앞에서 없어져」

주지는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고통을 참으며 부지

깡이를 들어 고양이를 마구 두들겨 내쫓았다.

마침내 고양이는 끽끽 소리를 내지르며 벼랑을 넘어 횡하니 사라져 버렸다.

저 멀리 사라지는 고양이를 바라보는 주지의 마음 속은 공허하기만 했다.

그런 일이 있는 후 절은 하루 이틀 빛을 잃어가며 신도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몇해를 못가 절은 완전히 폐찰이 되고 말았다. 정말로 희한한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

주지는 거지 신세가 되어 이집 저집을 다니며 문전 걸식을 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주지는 행여나 집을 떠난 고양이를 만날까 수소문을 하면서 충청도 땅까지 흘러가게 되었다.

주지가 제천 의림지에 도착했을 때 주민들이 큰 개만한 고양이가 이 근처에서 나돌아 다닌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 이야기를 듣고 주지는 의림지 건너편 산까지 황급히 찾아갔다. 주지의 마음속에는 고양이를 다시 찾기만 하면 무언가 될것같은 자신감이 가슴 한켠으로 차올랐다.

주민들의 이야기대로 산마루턱 바위 옆에 꿈에 그리던 고양이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주지는 너무나 반가워 소리를 지르며 고양이에게 다가갔다.

「이녀석아, 내가 널 얼마나 찾은 줄아냐 응」 고양어도 주지를 알아보고 깜짝 놀라는 눈치였다. 그러나 고양이는 이내 힐끔 나그네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려 외면을

하고는 산마루턱을 쏜살같이 내달리기 시작하였다.

주지는 허겁지겁 고양이를 부르며 뒤쫓아 갔으나 도저히 걸음이 빠른 고양이를 뒤쫓아 갈 수가 없었다.

그후 주지는 충청도 일대를 마을마다 뒤풀이하며 고양이를 찾아 봤으나 그후 고양이를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러한 일이 있는 뒤부터 사람들은 이곳 벼랑을 고양이의 설화를 따서 고내이베루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암자는 찾아 볼길이 없고 잡초속에 절터 였던 것으로 보이는 주춧돌이 몇개 나 덩굴고 있을 뿐이다. 현재는 고양이 벼루 길이 확포장되어 있고 이곳 산 중턱에는 약수가 있어 황성 시내 주민들의 식수역할을 하고 있다.

솔포정

솔포정은 일명 동돌미라고도 부르며 황성읍 마옥리 주막거리에서 황성 방향으로 200미터 이르는 곳에 위치해 있는 낮은 언덕의 솔밭으로 지금도 서낭당이 남아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옛날 이곳 솔포정 밑에는 마옥리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거부가 살고 있었다. 집안이 번창하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마련으로 매일 손님 접대하는

데 진력이 난 이 집 식구들은 손님이 좀 덜들거나 없어
졌으면 하는게 큰 바램이었다.

어느날 피승 한사람이 이 집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요
기나 할 생각으로 이 집에 들른 피승은 이집 식구들이
푸념삼아 하는 얘기를 듣고는 그 자리에서 선뜻 「손님
줄어 드는게 소원이라면 내 소원을 들어 주겠다」며 그
집 하인들을 시켜 집뒤에 있는 솔포정을 반으로 끊으라
고 얘기를 했다.

피승의 말대로 하인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솔포정 허
리를 끊기 시작했다. 동산이 두동강으로 갈라지자 거짓
말처럼 이 집을 드나들던 손님이 싹 끊어졌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 지나며 그렇게 엄청나던 부잣집
재물이 축이 나더니 얼마 가지 못하고 완전히 망하게 되
었다.

삶쟁이 바위

삶쟁이 바위는 황성읍 청룡리 석전이란 동리에 있는
바위로 바위의 생김새가 삶쟁이를 닮아 마을 사람들은
삶쟁이바위라고 부르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
해지고 있다.

옛날 이곳에는 상당한 거부인 박씨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집의 형태가 황금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상

이어서 명당으로 손꼽히고 있었다. 황금닭이 황금 알을 낳듯 이 집은 하루가 다르게 재물이 늘었으며 근처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거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어느 집이든 자연히 번창하고 재물이 늘어나면 손이 많이 꼬이기 마련인데 이 집도 하루가 다르게 별의별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그중에는 이 집에 긴요한 일거리로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손님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자 제일 고통을 받는건 이 집 안식구들이었다. 남정네들이야 손님들과 이야기나 나누고 술대작하면 됐지만 여자들은 그게 아니었다. 그야말로 하루 종일 부엌에서 손님 시중에 종종 걸음을 쳤고, 사철 손에서 물기가 떠날 새가 없었다.

그러던 중 용하다는 스님이 이곳을 지나다 이 집 사람들의 고통을 듣고는 그 해결 방법으로 집 터 앞에 있던 삶쟁이바위를 깨 버리면 손이 끊어진다는 해결 방법을 일러 주었다.

그 얘길 들은 그 집에서는 집 앞에 그렇치 않아도 가로 거치는 바위인지라 그날로 석수장이를 불러 그 바위를 깨뜨렸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부터 거짓말 같이 손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얼마 안가 그집은 개미새끼 한마리 얼씬거리지 않았다. 그 집 식구들은 맨처음에는 손님 치닥거리에서 해방된 기분에 날아갈 듯 가뻗하였으나

그게 아니었다.

손님이 줄어드는데 비례하여 그집 재물도 서서히 줄어들고 생각지도 못한 나쁜 일들이 줄을 이었다. 몇해를 못 버티고 그 부자집은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는데 후일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금계포란형의 금닭이 꿈쩍 못하고 금알을 낳아 주었는데 그 이유인 즉 앞에 버티고 선 삶쟁이바위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 바위는 그집 보물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었다 한다.

그런데 그 삶쟁이를 없애 버렸으니 이때껏 꿈쩍 못 하던 금닭이 마음 놓고 달아날 수 밖에 없는 노릇이 아닌가?

지금은 그 부자집 터는 흔적도 없으며 간혹 밭에서 기왓장이 출토되고 있으며 삶쟁이바위는 윗 부분이 잘려 나간채 집터 앞에 쓸쓸히 서 있다.

말바위

황성읍 정암리 황피울이라는 동네에는 바위의 생김새가 마치 말처럼 생긴 큰 바위가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가리켜 말바위라 부르며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옛날에 이곳에 원씨성을 가진 큰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그 부자를 가리켜 원장자 어른이라고 높혀 불렀다.

그자가 얼마나 부자였는지는 지금까지 그 집터에 남아 있는 방고래 돌과 담을 쌓았었다는 돌의 규모만 보아도 짐작이 가고 남는다.

자연히 집안이 번성하고, 살림이 느니 그 집에는 일년 삼백 예순날 손이 끊일 날이 없었다. 옛날에 부자집하면 하루에도 상을 열두번 차려야 부자 소리를 듣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집은 열두번은 고사하고 집안의 여자들이 잠시도 방안에 앉아 있을 틈이 없이 별의별 손님들을 맞아 했다.

이집 여자들의 소원은 단 한가지 그저 죽을 먹어도 좋으니 하루 한나절이나마 배짱 편히 구들장에 누워 있는 게 공통적인 바람이었다. 더군다나 이 동네는 옛날에 서울에서 강릉으로 가는 국도가 통과하는 마을이라 자연히 별 볼일 없는 길손들도 이집 규모를 보고 찾아와 하룻밤 신세를 지자고 매일 저녁 해거름이면 찾아 들곤 했다.

특히 이 집 며느리의 불만은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명색이 부자집 며느리라면 곱게 단장하고 방안에 들어 앉아 적당히 세월이나 보내는게 보통이지만 이집만은 그렇지 못했다.

「사람의 집에는 사람이 흠비어야만 되느니」라며 시아버지 되는 원장자는 손님 접대에 게으른 모습을 보이면

그 부인이든 고하를 막론하고 여자들을 조금도 용서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 어스름이었다. 괴상한 차림을 한 초라한 행색의 웬 노인이 이집 문을 기웃거리며 하룻밤 신세지기를 청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그집 사랑방마다 많은 길손들이 짝 들어차 있어 남는 방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 노인은 겨우 사정사정을 하여 사랑방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그 집 여자들은 대포집 기본 안주를 깨다리 소반에 밥 한술 떠 담아 들이밀며 푸념을 했다.

손님들이 많이 꼬여 하루도 편할날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였다. 그 이야기를 방 한구석에서 듣던 그 노인이 밥상을 내주며 지나가는 소리로 그집 여자를 향해 한마디 했다.

「복에 겨운 애기들이군. 그래 아- 사람사는 집에 이렇게 사람이 꼬이니 이게 복이지 뭐람…」

「복 좋아하시네 그런 복 우린 신물이 나도록 겪었으니 영감이나 가져 가슈」

「못하는 말들이 없구만, 아녀자들이 못하는 말이 없어」

「아 글썄 우린 손님이라면 두손 다들고 두발까지 다 들었다고요. 제발 부탁이니 어떻게 해서라도 손님 안오게 할 방도가 있으면 당장이라도 하겠어요」

「정말이요?」

그 괴상한 노인은 몇번이나 다짐을 받은 다음 바람에서 돌을 깨는 정을 꺼내더니 밤중에 집 뒤에 있는 바위로 올라갔다.

얼마후 쨍쨍 산을 울리는 돌깨는 소리가 들리고 그 밤으로 노인네는 행방을 감추었다.

식구들이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니 원장자네 집 용마루에는 난데없는 시뻘건 피가 사방에 튀어 있었다.

사람들은 너무나 괴이하여 집 뒤에 있는 바위에 올라보니 바위에는 어른 주먹만한 구멍들이 열개나 나란히 뚫려 있었으며 구멍마다 빨건피가 흘러 내리고 있었다.

그후로 부터, 그날밤 외양간에 매어 두었던 부림소가 갑자기 살을 맞아 죽는가 하면 멀쩡히 밖에 나가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원인 모르게 쓰러졌다. 그러면서 하루가 다르게 이 집을 찾는 손님이 줄어 들더니 얼마 안가서 장자네 집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어졌다. 그러면서 그 많던 재산이 없어지더니 마침내 그 집에는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사라져갔다.

그 후 그집은 폐가가 되어 오랜 세월 비바람속에 모습을 잃어 갔으며 근년에는 집터에서 기왓장과 주춧돌, 방고래 돌만 굴러 다니고 큰집은 흔적도 없이 없어졌다.

지금도 그 집 터 뒤말 바위에는 어른 주먹 크기 정도의 구멍이 뚫려져 있으며, 그후에 이 마을 사람중 누군가가 끊어진 혈을 되살려 보려고 했음인지 구멍마다 시

멘트를 발라 메워 놓고 하는데 비바람에 몇해 견디지 못하고 지금은 다시 뚫려져 있다.

화몽정

횡성읍 입석리 앞 횡성천 주변을 화몽정이라 불렀던 데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조선 명종때 좌승지를 지낸 진오기는 지조가 대쪽 같았으며 학문을 일으키고 문화를 장려하는 등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던 분이다. 진오기가 벼슬을 그만 두고 이곳에 내려와 있을 때의 일이었다. 그는 낙향하여 며칠째 꿈을 꾸었다.

꿈에 계집을 보면 상서롭지 못하다고 하던데 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것도 언제나 같은 장소에서 꽃같은 미녀와 만나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시를 읊곤 하였다. 그녀는 말하기를 대감을 사모했던 화선이라고 말했지만 진오기는 그런 기생과 일찌기 사귀적도 만난적도 없었으니 실로 기이한 일이지만 반갑고 기쁜 생각도 들었다.

벼슬자리에서 쫓겨난 자기를 이렇게 밤마다 찾아와 꿈속에서나마 돌봐주는 화선은 어찌면 하늘이 맺어준 애인인지도 모른다.

진오기는 비록 꿈속에서나마 다음과 같은 말을 주고

받았다.

「그대는 어디 사시고」

「천기는 한양 화방골 화선이라 하옵니다.」

「그런데 나를 밤마다 찾아오는 까닭은 무엇인가?」

「천기는 대감을 항상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낙향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으로나마 위로해 드리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진오기는 화선이의 말을 들으니 「참으로 고마운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한양 화방골에 화선이라는 기생이 정말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보고 싶어서 베풀고 있었는데 꿈에서조차 며칠간 보이지 않아 이상히 생각하고 한양으로 떠났다.

화방골에 이르러 화선이라는 기생을 찾으니 그는 1년 전에 죽은 유명한 기생이란 것이었다.

「그럼 화선이의 혼이 나를 찾아 준 것이 아닌가? 이 무슨 괴변일까?」 하고 생각했다.

그는 허무하고 쓸쓸한 마음으로 다시 집에 돌아와 꿈에서나 만났으면 했는데 그후부터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인연을 생각하여 이름에서 화자와 꿈속에서 인연을 따 꿈 몽자를 넣어 화몽정이란 정자를 짓고 그곳에서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

지금 화몽정의 흔적을 찾을 길이 없고 현재 화몽정자 터로 이차선 도로가 새로 생겨 화몽정 터를 찾아 볼 수

없게 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혈 잘린 산

조선 인조 1년, 그러니까 서기 1724년 인조 반정때에 공신이었던 이괄(李适)은 반정공신의 한 사람이었으나 이때에 논공행상에서 2등공신으로 밖에 책록이 되지 못하자 이에 따른 불만이 컸었다.

그리하여 같은 처지의 한명련(韓明璉), 기옥헌(奇昱獻) 등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이들 반란군은 정부의 토벌군과 여러곳에서 일대 격전을 벌이고 이윽고 한양을 점령하였다.

이때 인조 임금은 공주(公州)로 피난을 하였으며, 이괄은 선조임금의 열번째 아들인 흥안군 제(興安君 璉)를 새임금으로 추대하는 등 반정의 성공 기미가 보였다.

그러나 장일(張晚)이 거느린 관군의 반격으로 반란군은 격파 당했으며 이괄과 한명련 등은 반정이 실패한 것을 안 부하들의 손에 살해 당했다.

이때에 황성읍 가담리에 살고 있던 박시중(朴時重)이란 사람은 이괄의 형을 사위로 삼고 있었다. 그러던차에 이괄이 역적으로 몰리게 되자, 그 당시 역적은 삼족을 멸하는 법에 따라서 박시중(朴時重)의 묘소는 폐묘를 하게 되었으며, 그가 묻힌 박씨 문중의 산은 혈을 잘리

게 되었다.

이 혈잘린 산은 황성읍 반곡리 사래울에 있는데 산이 완전히 두동강으로 잘리워져 있으며 혈잘린 산을 복원하기 위해 문중에서는 끊어진 산허리에 흙을 채운적이 있었다고 한다.

철우고개

이 고개는 황성읍 반곡리 무리개에서 원주로 넘어가는 접경에 있는 고개인데 지금은 나무가 많이 베어져 평범한 고개에 불과하지만, 옛날에 이곳은 나무가 짝 들어차 대낮에도 휘휘하던 고개였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이곳은 인적이 드물었고 이런 점을 노린 도적들이 늘 출몰하곤 했었다.

「원 세상에 날강도가 따로 없군 그래.」

「댁에서도 당하셨소」

「말도 마슈. 땡전 한푼 남기지 않고 몽땅 털렸소」

「정말 벌건 대낮에도 이 모양이니 이젠 원주 나들이는 끝장이요」

「글쎄 누가 아니랍니까? 이거 참 낭패로군 낭패야...」

말이 그렇지 그렇다고 도적들 때문에 여행을 그만 둘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물론 그때마다 관가에서도

신고를 받고 나름대로 포졸을 풀어 도적들을 잡아 들이려 했으나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도둑 한 놈을 열이 못지킨다고」

기껏 신고를 받고 혈레벌떡 현장을 달려가 보면, 이미 그때는 할짓을 다하고 도적들이 자취를 감춘 뒤였다.

관가에서는 별의별 작전과 수단을 강구해 봤지만 모두 허사였다.

그리하여 관가에서는 급기야 이 고개를 넘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넘는 안전수칙의 방을 써 붙이기에 이르렀다.

그 방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누구든지 이 고개를 넘을 때는 절대 혼자 넘지 말 것. 최소한 6~7명이 무리를 지어 행동할 것」

대략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이었다.

관가에서 조차 그렇게 나오니 믿을건 자신들 밖에 없다고 판단한 행인들은 궁여지책으로 6~7인이 모여서 이 고개를 넘고는 했다.

모이는 사람의 수효가 많을수록 그들은 편안한 기분으로 고개를 넘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 손에는 도적들과 대항하여 싸울 몽둥이를 준비했었으며 그라도 없으면 지게 작대기라도 손에 꼭 들고 여럿이 무리를 이루어 이 고개를 넘었다고 한다.

이후부터 이 고개는 사람들 입에 칠우고개라고 불리어지게 되었다.

학출묘의 전설

학이 날아갔다는 무덤은 횡성읍 영영포리 되재기 마을에 있는데 이 무덤에는 다음과 같은 애뜻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조선 숙종때 이 마을에는 인근에서 쟁쟁한 이름을 날리는 김진사가 살고 있었다. 그러나 김진사는 처복이 박했던지 아니면 다복(多福)했음인지 세 아내를 두게 되었다. 첫부인은 웬일인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으며, 둘째 부인에게 가서야 비로서 상기(相起)라는 귀한 외동아들을 얻었다.

상기는 큰 뜻을 품고 김진사와는 친척관계 되는 당시 조정에서 재상을 지내던 김상철(金相喆) 밑에 들어가 선전관(宣傳官)을 지내면서 불철주야 과거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셋째 부인 박씨(朴氏)는 본래 천성(天性)이 어질지 못하고 질투심이 대단히 강한 여자로서 자기가 낳은 세 아들을 제쳐놓고 둘째 부인의 소생인 상기가 과거에 급제하여 출세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과거에 급제하여 금의환양하는 상기의 모습만 떠오르면 박씨 부인은 끓어 오르는 질투심에 어쩔줄을 몰랐다. 「누구 죽는꼴 볼라구 제가 출세를 해 어디 두고 보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는 안될걸…」

박씨 부인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상기의 출세길 막기

에 늘 골몰하였다.

드디어 그렇게나 기다리던 과거 시험날이 내일로 박 두했다. 그간에 밤잠을 안자면서 시험 준비를 해온 터라 불본듯 장원급제는 자신이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이란 말인가 과거를 하루 앞둔 전날 오후 고향에서 급보가 상기 앞으로 날아 들었다.

「계모 박씨가 죽었다」는 급보였다. 상기는 마음이 괴로웠다.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었다. 그러나 효성이 지극했던 상기는 비록 친어머니는 아니었지만 계모도 분명 어머니 일진대 과거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고향에 가야 한다며 삼백여리나 되는 고향집을 향해 부리나케 달려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상기의 마음은 몹시도 괴로웠다. 자꾸만 과거시험이 눈 앞을 아른거렸다.

그러나 오직 효심(孝心)으로 뭉쳐진 그의 발걸음은 몹시 빨라만 졌다. 드디어 고향집에 다달았다. 저 멀리 영영개에 굽이도는 냇물과 늘어선 버드나무 숲이 보이고 고향집이 눈앞에 들어왔다.

그런데 비지땀을 흘리며 고향집에 다달은 상기에게 너무나 엄청난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죽었다는 계모는 눈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다. 상기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하였다.

상기는 그만 되새기 고개 마루턱에 쓰러져 숨을 거두

고 말했다. 뒤이어 소식을 듣고 달려온 김진사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길이 없으면서도 우선 아들의 시체를 집으로 옮기려 일으켜 보았으나 천근 만근 아들의 시체는 꼼짝을 안했다.

몇번이나 있는 힘을 다해 아들의 시체를 들어 올리려 했으나 헛수고 였다. 그제서야 전후사정을 들은 김진사는 죽은 혼이 너무나 원통해서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는 그길로 달려가 관가의 힘을 빌어서 그 자리를 파고 무덤을 만들었다.

덧없이 세월이 흘러갔다.

김진사의 후손들은 상기의 무덤이 아무래도 명당자리가 아닌 것 같으니 더 좋은 자리로 이장을 하자고 뜻을 모으고는 마침내 무덤을 파 헤치기 시작했다.

그때 옷차림은 누추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범상치 않은 용모를 한 노승이 이곳을 지나면서 그들을 보고 이야기 했다.

「허허 천하명당 자리를 왜 옮기려는지 모르겠구료. 이장을 하면 집안에 상서롭지 못한 일이 일어날텐데…」

「상서롭지 못한 일이라니 그 무슨 말씀이요」

집안 사람들은 노스님께 다그쳐 물었다. 「집안이 흉하지 못할거요」

그러나 집안에서 중대사로 뜻을 모아 하려던 일을 중단할 수는 없었다. 묘를 파고 관을 막 들어 내려고 하자 이게 어인 일인가!

그곳에서는 눈이 부시도록 희고 청아한 학 한마리가
흙을 털고 하늘로 올랐다.

「거보시오. 천하에 둘도 없는 명당자리를 왜 들쭉시는
거요.」

스님이 나무라는 소리를 들은 집안 사람들은 그제서
야 그 무덤이야말로 천하의 명당 자리라는 것을 뒤늦게
알아 차렸다.

「어쩌면 좋습니까? 좋은 방도가 없을까요?」

허탈한 심정이 되어 노스님께 매달렸다

「이미 정기는 사라졌으나 한 200년쯤 지나면 정기가
다시 전과 같이 돌아설 것이니 그전대로 묻으시오」

자손들은 안타깝고 억울해 하면서도 200년 후에는
정기(正氣)가 돌아선다는 스님의 말을 믿고 그 자리에
관을 묻을 수 밖에 없었다.

그후 이 마을 사람들은 그 무덤을 학(鶴)이 날아갔다
해서 학출묘(鶴出墓)라 불러온다고 전해진다.

천석꾼이 터

황성읍 교항리 마을에는 천석꾼이 터라는 집터가 있
는데 그 모양이 게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
집터 앞에는 큰 연못이 있었는데 물고기들이 많았다고
한다.

사람들은 계 앞에 물고기가 있으니 도망가지 못하여 자연 집이 번창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계의 등에 해당하는 집터 뒤에 집 10칸이 들어서면 그때에는 이 집을 뜨는 것이 좋다는 말이 내려오고 있었다.

즉, 계의 등이 닳고 벗겨지면 자연스럽게 계의 정기가 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이었다.

이 일대에 지금은 주택단지가 조성돼 전설의 연못도 찾을 길 없으며 연못가에 심였었다는 느티나무와 낚시를 했다는 낚시바위 만이 남아 있다.

국사봉 제상바위

횡성읍 옥동리(玉洞里)에 있는 산으로 국사봉이라 부르기 전에는 국토봉이라 불렀다.

국사봉은 언뜻 보기에는 평탄한 듯 하나 산 정상에 올라가 보면 원주는 물론 사방 1백여리가 한눈에 보인다.

이 봉우리는 옛날 중국 홍태사(洪太師)가 다녔다고 하며, 또 국사였던 도선(道先)이 여러차례 이 산에 와서 그 산세를 보고 감탄하여 '가히 명산(名山)이로다.'를 연발했다고 한다.

또한 도선국사는 이 산밑에서 천하명당이라 일컬어지는 「옥녀산발형국(玉女散髮形局)」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아직 그 주인은 나타나고 있지를 았다.

또 일설에 의하면 이 산은 사령들이 국사에 관한 물건을 가지고 상급관청을 왕래할 때 이 고개를 넘어 황성현에서 원주, 춘천, 한양으로 다닐때 그 연유로 이 이름이 붙여졌다고도 한다.

국사봉 정상에는 자연석으로 된 제상바위가 있는데 옛날 황성에 부임하는 원님들이 국태민안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제사를 지냈던 바위라 전해지는데 넓이는 1평 정도이다.

궁천리 서낭당 나무

황성읍 궁천리 마을 앞 논가에는 서낭당이 하나 있고 그 옆에 큰 노송이 한그루 있는데 그 수령은 200년 정도 되었으며 현재는 고사목으로 남아있다.

궁천리 사람들은 이 고사목나무가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서낭당도 이 나무가 연유가 되어 지어졌다. 지금부터 200여년전 이곳 궁천리 동네는 아름답리 소나무가 무성한 무인지대였다.

울창히 숲은 우거졌지만 앞에 강이 흐르고 있어 개간만 하면 얼마든지 옥토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함평이씨가 처음 이곳에 들어와 나무를 베고 나무 뿌리를 캐내고 땅을 개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처럼 농기구가 발달하지 못한 그 당시로서는 개간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갖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개간을 중단하고 말았다.

그후 안동 장씨가 들어와 보를 막고 개간을 하여 어느 정도 터를 잡게 되었다. 참으로 뼈를 깎는 눈물의 대역사였다.

뒤이어 안동 권씨가 들어와 두집안이 손을 잡고 개간에 박차를 가하여 마침내 성공을 하게 되었다.

그들은 때로 전신을 엄습해 오는 좌절과 번민에 휩싸일 때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소나무를 붙잡고 힘을 빌었고 소나무에 의지하여 고난을 이겨 나갔다.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마을 사람들은 서낭당 나무에 대해 소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마을의 온갖 길흉화복은 서낭당 나무에 대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었으며, 그들은 극진히 성황신을 믿고 따르는 길만이 오직 마을의 살길이라고 믿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정월에 날을 받아 성황제를 극진히 지냈다. 수십년전 마을에 살던 조일복이라는 사람이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서낭당 나무 삭정이를 잘라다 불을 땀적이 있었다.

그 즉시 멀쩡하던 안 식구가 살을 맞아 변을 당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 일이 있는 후부터 마을 사람들은 더욱 더 서낭당나

무에 대하여 숭앙심을 높였다.

수년전 수백교회 교인들이 성황당을 불태운 까닭에 성황당은 복원하였으나 서낭당나무는 불에 타 죽은 채 서 있다.

망백 느티나무

황성읍 정암 2리 망백마을에 있는 것으로 수령은 약 200년으로 추측된다.

옛날 이 마을에 집단 성씨를 이루고 살던 황성 조씨 집안에 통정벼슬을 하던 사람이 집앞 마당가에 심었다는 나무인데,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의 잎이 피는 모양을 보고 한해 농사를 점치기도 한다고 한다.

즉 느티나무 잎이 한꺼번에 피면 풍년이 들고, 잎이 하나씩 하나씩 피면 흉년이 든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청룡리 느티나무

황성읍 청룡리 마을 한복판인 마을회관 옆에 있는 느티나무로 이 나무의 수령은 420년으로 추정되며 높이 20m, 둘레가 8.2m에 이르고 있다.

이 느티나무가 차지하는 면적은 60평 정도이며 전해 오는 이야기로는, 나뭇잎이 봄에 한꺼번에 피면 마을에 풍년이 든다고 한다. 이 느티나무는 마을 놀이터와 함께 자리하고 있어서 사시사철 마을 사람들의 휴식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복바위

마을의 안녕과 복을 가져다 준다는 복바위는 횡성읍 궁천리 마을 논가에 있는데 바위의 크기는 둘레가 6~7m가량 되며 어딘지 모르게 둥글 둥글 복스럽게 생겼다.

마을 사람들은 복바위가 이곳 화라지의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에 새마을 사업으로 경지정리를 할때도 이 바위만은 피해서 사업을 하였다고 한다.

자차바위

횡성읍 생운리 주막거리 길옆에 있는 바위로, 이 부근은 한일합방 전 까지만 하여도 매우 번창하였다.

서울서 강릉가는 길이 이 마을을 통과하였으며 수 많은 나그네들이 이 주막거리에 들러 출출한 배를 대포 한

사발로 요기를 했으며 더러는 날이 저물면 주막집 사랑방에서 하룻밤씩 묵어 가기도 했었다.

지금은 볼품 없는 소로에 불과하지만 그 옛날 이곳에는 수많은 사연들을 간직한 나그네들이 지나친 곳이었다. 더군다나 이 자차바위는 서울서 강릉가는 길의 중간 지점으로 강릉에서 서울 가는 사람들과 서울에서 강릉 가는 사람들이 이 바위에 걸터 앉아 중요한 상담을 나누었고 서로의 기별을 묻기도 하였다.

자차바위는 길가는 나그네 40~50명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으로 나그네들은 이 바위에 걸터 앉아 땀을 들이기도 하고 개나리 붓짐에서 주먹밥을 꺼내 먹으며 쉬어갔다.

지금 이곳에는 간단한 음식과 술을 파는 주막집이 남아 있어, 그 옛날 서울~강릉 나그네들의 정답이 서려있음을 느끼게 한다.

말등바위

횡성읍 마산리 쇠절이에는 바위 생김새가 마치 말등을 닮은 바위가 있다.

바위 밑에는 옛날부터 천하에 둘도 없는 명당자리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소문을 들었던지 전라도에 사는 어떤 사람이 시체를 메고 몇날 몇일 어려운

걸음으로 쇠절이 말등바위까지 도착하여 보니 벌써 그
곳에는 다른 사람이 묘를 쓰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은 다시 시체를 메고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봉친바위

옛날 황성읍 가담리 수류암에는 밀양 박씨 문중에 박
수형이라는 풍류객이 살고 있었다.

과거에 급제하여 박진사가 되었지만 벼슬에는 뜻이
없어 평생을 진사로 보냈으며, 당대의 문장가, 풍류시인
으로 옛 선비의 도를 다한 사람이었다. 그는 효성 또한
극진하여 부모님을 잘 모셨으므로 그의 효성은 지역사
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그는 부모님께 생선을 대접해 드리기 위하여 수류암
앞에 있는 바위에 올라 자주 낚시질을 하였는데 다른 사
람은 제 아무리 좋은 미끼와 기술을 발휘해도 고기가 잡
히지 않았지만, 그가 이 바위에 앉아 낚시를 드리우면
낚시를 던지기가 무섭게 잉어, 쏘가리 등이 물려나왔다
고 한다.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는 그의 효성에 하늘도 감동하
여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여 부모님을 받들어 고기
를 잡는 바위라는 뜻에서 봉친바위라 부르게 되었다.

철성바위

횡성읍 옥동리 국사봉 정상에 있다.

자연계 사물에 영혼관념을 인정하여 섬기는 애니미즘의 형태로 남아 있는 대상물은 상당히 많다. 철성바위, 노거목, 서낭나무등 이밖에도 많은 자연물이 신앙의 대상이 되어왔다. 횡성읍 옥동리 국사봉 꼭대기에 자리잡고 있는 이 바위도 토속 신앙에 의하여 유래된듯하다.

칠원성군을 이 바위에 모셔 놓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애환과 소원을 기원하였을 것이다. 이 바위는 높이 5m, 폭 3m의 큰 바위로 전설에 의하면 어떤 장수가 뜻 한바 있어 이곳에서 수도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어느날 장수가 이제껏 쌓은 도를 실험해 보기 위하여 이 어마어마한 바위를 들어 철성바위 위에다 가로 걸쳐 놓았다고 한다.

바위는 화강암으로 되어 있으며 바위 중간에는 사람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이 뚫려 있다.

장군수

횡성읍 남산리 마을에는 약수 이름이 장군수라는 우물 하나가 있는데 여름에는 손발을 담그지 못할 정도로 차고 겨울에는 따뜻하다. 전하는 이야기로는 이 물을 마

시는 자는 힘이 강해져 장수가 된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을 지금도 마시고 있다. 또한 이 우물은 위장병에 특효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

용바위전설

횡성읍 북천리 마을 앞 섬강에는 냇물 가운데 커다란 바위가 두개 있는데 옛날 이 바위 밑에는 길이를 알 수 없는 큰 깊은 소가 있었으며 이 소(沼)에 커다란 용이 살다가 등천했다하여 사람들이 이 바위를 가리켜 용이 나왔다하여 용바위라고 부르고 있다.

지금도 바위 위에는 그때 용이 남긴 발자국이라는 흔적이 있으며 횡성에 가뭄이 들었다하면 이 바위 위에다 돼지 피 칠을 하고 이 고장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현재는 깊은 소도 없어지고 비지정관광지로서 여름 한철이면 서울, 경기, 인천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서를 하고 있다.

쇠절이 전설

횡성읍 마산리로서 자연부락명이 소절이라고 하는 부

락인데 현재 한국 쉘제약회사가 이 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옛날 이곳에 절이 있었던 곳이라하여 쇠절이 또는 금사촌(金寺村)이라고 부르고 있다.

옛날에 이 마을은 별볼일 없는 빈촌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어느날 이곳을 지나던 풍수지리에 도통한 지관이 마을 산세와 수세를 보고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

「이 동네에 숲이 우거지면 동네가 정기가 살아 동네가 흥할 것이요」 그런데 이 마을 앞으로 강릉을 가는 도로가 개통되고 도로변에는 가로수가 늘어 서고 해방직후 중학교 부지로 많은 나무를 심은 것이 현재 한국 쉘 제약회사가 위치하면서 학교 부지 당시 심은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어내자 그때부터 마을에 윤기가 들며 마을이 많이 융성해졌다.

솟을 묘의 전설

조곡리 안마을에는 고판서 모친의 솟을 묘가 있는데 고판서가 과거에 급제하여 큰 출세를 하여 세상이 떠들썩하게 삼현육각을 울리며 금의환향을 하는 소리가 들려오자 고판서 모친묘의 봉분이 갑자기 땅위로 다섯자 는 솟아 올랐다고 한다.

지금도 이 곳 솟을 묘는 상당한 높이까지 솟아 올라 있다.

묵계리의 전설

조선시대 11대 중종 임금때에 문과별시(文科別試)에 급제한 우봉 이(李)씨 당(塘)은 국정을 도와 오다가 조광조의 과격한 개혁정치에 반대하는 기묘사화 이후 이곳으로 낙향하여 반구정이란 정자를 짓고 이곳에서 유생들과 시를 읊으며 풍류를 즐겼다.

이때 반구정에 모여든 선비들이 붓글씨를 연습하다 먹물을 섬강계곡에 흘려 보냈다고 해서 먹(墨)물이 흐른 강(溪)이라하여 묵계리라고 부르게 되었다.

능골전설

갈풍리 입구에 있는 동네로 이 동네에는 원주 원씨들의 조상이 묻혀 있는 곳으로 옛날에 원씨 중에 임금의 외척이 있었는데 국상이 나자 능자리를 이 사람에게 알아보라고 하여 이곳 골짜기를 그 후보지로 보고 하였으나 그때에는 100골이 되지 않으면 능을 쓸수가 없었기에 능은 못썼지만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능골이라고 한다.

망백의 전설

횡성읍 정암리 부락에 망백 혹은 망박이라는 부락이 있는데 바로 덕고초등학교가 있는 부락이다.

이 마을에는 횡성 조씨들이 집단으로 모여 살고 있다.

조씨 집안들이 옛날에 과거를 보러 갈 때 선영에 고하고 가는 곳이라고 해서 망백이라 불렀다는 전설도 있으며 조씨들이 이곳에 은거할 때 흰 빛 즉 충절(忠節)을 잊지 않고 되새긴다는 뜻에서 망(望)자와 흰백(白)자를 썼다고 하기도 한다.

피발재의 유래

횡성읍 정암1리 황피울 뒷산에 있는 우천면 문암리와 경계를 이루는 고개 이름을 피발재라고 하는데 옛날 이 마을에는 강릉 김씨가 매우 번창하였는데 이를 안 좋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그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이 고개를 잘랐더니 시뻘건 피가 흘렀다하여 피발재라고 불리웠다는 유래가 있다.

글쓴 바위 (학곡리)

횡성을 지나 춘원국도를 따라 춘천쪽으로 4km정도 가
노라면 새말이 나타나고 그곳에서 쇠판리쪽으로 가는
길 모퉁이에는 글쓴 바위라는 높이 5m정도의 바위가
있다. 그런데 이 바위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옛날 이 곳을 풍수지리에 도통한 선비가 지나게 되었다.

이 선비가 쇠판리쪽에서 위쪽산을 쳐다보니 천하 명
당자리가 한 눈에 들어 왔다.

그 명당 자리는 팔봉의 위쪽, 장지고개 아랫쪽에 있으
며 또한 명당자리에는 주독에 특효약이라는 주멸초 세
그루가 자라고 있다고 중얼거리고는 이 이야기를 후세
에게 꼭 남겨야 했기에 신작로가에 있던 바위에 이 이야
기를 새겼다고 한다.

‘팔봉지 上, 장지령 下’ 의 글자가 예전에는 뚜렷했으
나 세월이 흘러 비바람에 많이 깎이어 지금은 형체를 찾
아볼 수 없을 정도이다.

팔봉의 윗쪽에 해당되고 장지고개 아랫쪽이 된다는
천하명당을 사람들은 찾아내기에 무척 애를 썼는데 아
직은 임자가 나타나지 않았음인지 그런 명당은 발견되
지 않고 있으며 그때 이 바위에 글 쓴 선비의 심정을 안
타까이 생각이라도 하려는 듯이 글 쓴 바위위에는 풀잎
이 무성한 주멸초만이 바위를 뒤덮고 있다.

대지을 전설

옛날 용둔리 이 마을에는 멀리 경상도에서 온 떠거머리 총각 한 사람이 흘러 들어 왔다. 물론 이름도 성도 몰랐으며 사람이 배운것은 없어도 매우 성실하고 근면했다. 누구에게나 붙임성이 있었으며 한번 약속한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고 마는 책임감 또한 매우 강했다. 그리하여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몸이었지만 사람하나 보고 마을에서는 거처를 마련해 주고 너도 나도 그에게 샅일을 시켰다. 그러다가 어느 집에 딸만 하나 두고 어렵게 농사를 짓고 있던 과수집이 있었는데 그집에서는 새경을 후하게 줄터이니 아예 와서 머슴으로 있으면 어떻겠느냐고 총각에게 제의해 왔다. 총각으로서도 하루 품 파는것 보다는 안전성이 있고 또 내손으로 손수 밥을 끓여 먹지 않는게 더 좋을 것 같아 선뜻 승락을 하고는 그 길로 그 집으로 들어갔다.

그날부터 총각은 내 일이려니 생각하고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피를 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다. 일손이 모자라서 동네에서 늘 꼴지로 농사일을 하던 그집은 총각이 들어온 뒤로는 순서가 바뀌어 모든 농사일을 제일 먼저 하였다. 그집 사람들도 그 총각을 머슴이라 생각하지 않고 같은 식구처럼 대해줬다.

인연이 될려고 그랬던지 그날 이후로 그집 딸의 마음은 비록 집안이고 출신이고는 알지 못하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그의 인간 됬됨이에 끌려 어느덧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말았다. 그렇게 은근히 둘이 서로를 사랑하는 사이가 되자 마을 사람들은 아예 둘을 짝을 지어 주는게 어떻겠느냐고 수근거렸다.

과수덕 입장에서든 용모나 사람됨이 어느 한군데나 무랄데가 없는지라 선선히 승락을 하고 날을 받아 혼례를 치르기로 하였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기뻐하여 내 집 일처럼 총각의 혼사 일을 돌보아 주었다. 잔치날은 너나 없이 마을의 경사라며 먹고, 마시고, 웃고 즐겼다. 밤은 어김없이 찾아오고 가슴 들뜨게 하는 첫날밤이 둘에게 찾아왔다. 아직까지 여자라고는 먼 밭치에서도 가까이 대해 본적이 없는 총각으로서는 가슴이 너무나 두근거리며 몸을 가눌 수가 없었다.

이윽고 떨리는 총각의 손에 의해 족두리가 벗겨지고 치마 저고리가 수줍은 색시의 몸에서 벗어져 내렸다.

신방을 엿보는 극성스런 아낙네들은 한 장면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듯 발돋움을 해 창문을 뚫고 들여다 보느라고 정신들이 없었다.

어떻게 일을 치렀는지 색시는 기억이 나질 않았다.

어느때쯤 됐나해서 정신을 차려보니 색시의 온몸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고 신랑은 그 옆에 반듯이 누워 있었다. 색시는 말이라도 건네려고 옆에 누운 신랑을 흔들어 깨웠다.

그런데 신랑의 몸이 좀 이상했다. 색시가 흔드는데로

나무토막 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색시는 기겁을 하고 불을 켜고 신랑을 자세히 보았다. 그때 이미 신랑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색시는 너무나 기가 막혔다. 그렇게도 착하고 성실했던 사람이 소리 한번 못지르고 세상을 떠나다니 색시는 어머니를 깨워서 대책을 의논했다.

너무나 엄청난 일을 당한 두 모녀는 정신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오고 야단법석이 벌어졌다. 의논 끝에 그리 좋은 일도 아닌데 날이 새기전에 아무곳이나 묻자고 합의를 본 후 사람들은 부랴부랴 밤중에 신랑을 뒷산에 묻었다.

첫날밤 사랑하는 남편을 그렇게 떠나보내고는 언젠가 신랑이 살아 있을 적에 일러 주었던 남편 고향 마을을 한번 찾아가 보리라 맹세를 한 색시는 그길로 즉시 경상도를 향해 출발했다.

길을 물어 물어 경상도 땅에 도착한 새색시는 남편집을 찾게 되었다. 남편의 집은 생각한대로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으며 집안이 말이 아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첫날밤 단 한번의 관계로 새색시는 임신이 됐다. 열달후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유복자가 태어났다. 그 아들도 날 때부터 머리가 총명하여 마을 사람들로 부터 신동이란 얘기를 들을 정도였다. 그 여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정성들여 키우고 교육시켰다. 타고난 재능과 어머니의 정성으로 그 아들은 마을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

고 과거에 급제하여 큰 출세를 하였다.

출세한 아들은 유명한 지관을 앞세워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에 있는 아버지의 묘를 찾으려고 하였다. 아무렇게나 묻고 표를 해 놓치 않은 묘를 쉽게 찾을 수가 없었다. 얼마나 애를 쓰며 찾다가 마침내 그 묘를 찾게 되었는데 그동안 관리를 안해 온터라 그 무덤은 묵묘나 다름 없었다.

출세한 아들은 좋은 자리에다 훌륭한 묘를 만들 계획으로 이장을 하려고 지관에게 좋은 자리를 봐 달라고 하였다.

「하~! 이런 명당이 다 있다니 대감 어른 이곳이야말로 천하 명당자리가 대감을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대감과 어머니는 이장 계획을 즉시 취소하고 있는 그대로 놔 두기로 하였다.

그 후부터 이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대지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신선암의 전설

하궁 1리 고들고개, 해발 500m의 고지대에 위치한 심산유곡에 넓은 바위가 울창한 숲속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바위에는 어린아이 발자국 같은 흔적

이 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옛날에는 발자국이 뚜렷하였으나 오랜 세월 풍우에 깎이어서 지금은 그 흔적만이 옛보인다. 전설에 의하면 연대는 미상이나 천상에 선녀가 옥황상제에게 허락을 받고 이곳에 목욕하러 내려와서 목욕을 하면서 사방의 경치를 살펴보니 하늘을 찌를듯한 기암절벽이며 울울창창한 노송에다 홍홍백백의 백화요초는 신선의 눈을 황홀하게 하였고 아름다운 새들의 노래 소리와 졸졸 흐르는 맑은 물소리는 선녀들의 정신을 쏙 빼앗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위 위에서 놀고 있었다. 하늘에 계신 옥황상제께서 선녀들이 올라올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으므로 지상에 내려가 무슨 사고라도 있는가 하고 빨리 올라 오라는 호출 신호로 천둥을 쳐 보냈다. 바위 위에서 지상 경치에 정신이 팔려 놀고 있던 선녀들이 그제야 제 정신이 들어 시간이 지났음을 알고 급히 올라 가느라고 바위를 힘주어 박차는 바람에 발자욱이 생겼다고 한다.

그후 가뭄이 계속되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더위를 견딜 수 없어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던 인근 농부들이 “에라, 이왕 죽을 바에는 선녀들이 놀던 바위에서 죽자” 하는 마음으로 그 바위 위에 올라가 밑을 내려다 보니 바위 밑에 예전에 없던 조그만 샘이 보여 “이왕 죽는 몸 목이나 추기고 죽자” 하면서 그 샘물을 퍼다가 바위 위에서 서로 먹으려고 싸우다 넘어지는 바람에 물이

바위에 옆질러졌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나? 물이 옆질러지자 마자 서산에서 검은 구름 한점이 하늘 가득히 퍼지더니 비가 주룩주룩 내려 가뭄에 말라 비틀어져 가던 초목이 싱싱하게 춤을 추었을때 농부의 입에서 “아! 산천초목우후신(山川草木雨後新)이다.” 라고 한 말이 지금까지 명시로 내려 온다고 하며 그 바위를 신선이 놀았다 하여 “신선바위”라고 명명되어 내려오고 있으며 그후 이곳 주민들은 옛 조상때부터 가뭄만 계속되면 이 바위에 물을 뿌려오고 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가뭄때 이 신선암에 물을 뿌리면 비가 오는 예가 많다고 한다.

소복미인과 백인옥

연대는 언제인지 확실히는 알 수 없으나 지금으로부터 약 수백년전 횡성땅에는 백인옥이라는 젊은 문장재사가 있었다.

그는 제주도 비상할 뿐만 아니라 얼굴과 마음까지도 이름 그대로 백옥과 같이 곱고 고결하여 인근 사람들의 많은 신망을 받았다고 한다.

백인옥이 20세 때의 일이다. 원래가 집안이 가난하여, 그의 재주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의 재주를

키워 줄만한 조건과 환경이 맞지 않아서 그는 생각다 못해서 서울의 어느 재상인 김판서의 집을 찾아갔다.

인옥은 그의 집에서 서생으로 있으면서 판서의 총애를 받으며 성장했다.

이럴 즈음에 판서의 이웃집에 황별감이라는 사람이 이사를 왔다.

그런데 황별감에게는 20세의 가인의 한 딸이 있었는데, 그녀가 처음 백인옥을 보았을 때는 별 관심없이 보아 넘겼으나 한번, 두번, 세번, ... 그녀가 인옥을 대하는 횃수가 늘어감에 따라 그녀의 마음은 이상한 감정으로 설레이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감에 그녀는 잠시라도 인옥을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때만 하더라도 내외가 굉장히 심한때라 처녀는 말조차 건네지 못하고 오직 답답한 심사를 풀길기 없어 은근히 속을 태우다가 백인옥을 담구멍으로 한번 보고는 눈물을 짓고 두번 보고는 길게 한숨을 짓는 처지였으니 그 가슴인들 얼마나 타고 땀으랴?

드디어 황처녀는 상사병에 걸렸다. 날이 갈수록 병은 악화되어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

그러하여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연유를 물으니 황처녀는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털어 놓았다.

모든 사연을 다 듣고난 아버지는 조금은 난처하였으나 그의 사랑하는 딸이었기에 즉시 백인옥에게 이 사정

을 말하여 들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성품이 고결한 백인옥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던 황처녀는 크게 실망하여 마침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 사실을 안 김판서는 크게 노하여 백인옥을 불러 앉혔다.

「네가 얼마나 도도한 사람이기에 남의 생명까지 빼앗느냐? 너같이 인정도 사정도 없는 사람은 장래가 없으니 당장 내집에서 나가거라」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인옥은 억울하게 김판서 집에서 쫓겨나 과객 신세가 되어 정처없이 떠돌아 다니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태연자약했지만 항상 그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그를 따라다니는 죽은 황처녀의 괴곡성 때문에 인옥의 전신은 여월대로 여위어 갔다.

나중에는 병까지 날 지경에까지 이르자 할 수 없이 백인옥은 「에라, 금강산은 천하영산으로 백귀도 침범하지 못한다니 그곳에나 한번 가 보자」고 결심하고 금강산에 가서 생활하자 정말 귀신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의 마음도 다시 편안해 졌다.

하지만 그에게는 가슴속 한 모퉁이에 남아 있는 회포가 있었다. 그것은 입신양명 하겠다고 고향을 떠난 자기 행동에 대한 부질없었던 꿈 바로 그것이였다.

어느 늦은 봄날이었다. 백인옥은 다른 승려와 꽃구경

을 나가 자기의 지난날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말한 다음 다른 승려에게 무슨 이유로 승려가 되었는지 물었다.

승려는 「나는 본래 서울에서 어떤 양반집 상노로 있었는데, 그집 주인의 딸이 하도 예뻐서 탐이 나기에 겁탈을 하려다가 그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발각될까 두려워서 그 여자를 앵두나무에다 목을 매어 죽인 다음 이곳까지 와서 중이 되었다」고 말 하였다.

이 말을 듣고 난 백인옥은 「너같은 놈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놈이다」고 말 하였다. 그러니 살 가치가 없다고 말하며 바위 위에서 천길이나 되는 절벽 아래로 차 떨어뜨려 죽여 버렸다.

그러자 갑자기 어디에선가 곡성이 진동하면서 공중에서 난데없는 처녀 머리가 하나 떨어지더니 흐느끼며 말하기를 「나는 본시 서울 양반집의 처녀로 불행히도 못된 상노놈에게 죽음을 당하고는 밤낮 원수를 갚기를 기회만 노리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당신을 만나 복수를 하게 되었으니 이 은혜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고 한 다음 그녀는 또 「죄없는 당신을 괴롭히던 황처녀의 목을 내가 대신 베었으니 이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또 얼마 안 있으면 과거가 있을터인데 어서 곧 채비를 차려 한양으로 떠나십시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 소복입은 여자를 경계하십시요.」하고 말하였다.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진 백인옥은 금강산을 떠났다.

한양을 향하여 떠난지 며칠만에 저녁 연기가 나고 있

는 작은 초가집을 발견했다. 백인옥이 그집 여인에게 하룻밤 기거할 것을 청하자 뜻밖에도 그 여인은 반갑게 맞아 주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친절했고 식사까지 대접해 주었다.

방은 단칸방이고 더구나 희미한 등잔 밑에 꿰어 앉아 바느질을 하는 이 여인의 아름답고 섬세한 모습이 마치 가을에 곱게 핀 부용과도 같고 봄바람에 해죽이 웃는 모란꽃과 같다고나 할까?

어찌되었든 이쯤이고 보니 제 아무리 천하강장의 남아라 하더라도 마음이 저절로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인옥의 그 고결하고도 지순하던 성품은 사라지고 이젠 평범한 인간이 되어 타오르는 욕정을 못이겨 여인에게 사정을 한다.

그러자 여인은 지필을 가지고 「若結緣於今夜 (만일 오늘밤 인연을 맺는다면)」라는 시구를 써 놓고 이 시구를 어울리게 맞춘다면 청을 들어 주겠다고 했다. 백인옥이 수차 채워도 여인은 틀린다고 했다. 그러고는 여인이 채워놓은 글귀는 「故郎哭於黃泉 (죽은 낭군이 황천에서 곡을 할 것이다)」하매, 인옥이 감동하여 여인의 말대로 해 주었다.

이튿날 아침 그 집을 떠나 한양에 도착하자 마자 옛날에 은혜를 입었던 김판서의 집을 찾았다.

그런데 그 궁궐같던 집은 폐가가 되어 있었고, 집안 사람들도 모두 병들어 죽어 남은 사람은 김판서와 그의

며느리, 늙은 하인 뿐이었다.

늙은 하인의 말에 의하면 백인옥을 내 쫓은 뒤 모든 재산도 탕진해 버리고 악병에 의해 가족이 함몰당하다 시피 했다고 한다.

김판서는 옛날 자신이 아끼던 백인옥을 보자 치밀어 오르는 감회에 목을 놓아 울었다.

그날밤 인옥은 그전 김판서의 아들과 공부하던 방에서 쉬게 되었다. 새로운 감회와 지난 과거가 다시 떠오르는 가운데 인옥이 잠자리에 들려 할때에 갑자기 방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 왔다.

그러곤 울면서 인옥에게 백년가약을 맺어 줄것을 애원하였다. 이를 듣자 인옥은 소복을 입었던 미인이 자기에게 행한 것들이 생각났다.

그래서 인옥도 며느리에게 그 식귀를 써 주고 채워보라고 했다. 그러나 끝내 며느리는 채우지 못하고 울기만 한다.

이때 김판서는 3월 봄바람을 쐬러 뜰에 나왔다가 이 소리를 듣고, 감복하여 방으로 들어와서 인옥에게 수양아들이 되어 며느리를 아내로 삼아 후사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며 그의 남은 재산을 모두 주겠다고 했다.

의리가 강한 백인옥은 김판서의 청을 받아들여 며느리와 백년가약을 맺었다.

후에 인옥은 장원급제하여 벼슬도 하고 집안도 부유하게 잘 살았다 한다.

우항의 전설

횡성읍 소재지에서 남동쪽으로 약 10km 국도를 따라 가노라면 우천면 소재지에 이르게 되고 면 소재지에서 다시 동쪽으로 약 300m 지점에 옛부터 내려오는 자그마한 성황당이 보이며 이 성황당 자리 밑에 꽤 큰 바위가 있어 우항리라는 이 고장의 이름이 지어지게 된 전설이다.

지금은 영동을 넘나드는 고속도로 주변 향리로서 새말 인터체인지가 있고 그외에 기간 산업도로가 영동을 잇게 되어 어느 고장 못지 않게 교통의 요충지가 되었으며 옛적에는 기껏 대관령을 넘나드는 상인이나 아니면 집안의 약이나 구하러 가는 길손만이 다녔을 뿐 하루 종일 인적 찾기에는 너무도 적적한 산 길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곳에 낙향한 이씨라고 하는 선비가 성황당 앞쪽 길건너에 외따로 살고 있었으며 가세는 부유한 편이라 산골 근동 마을에서는 남부럽지 않게 살다보니 오고 가는 길손이 하루를 유숙하고 가게 되어도 조금도 귀찮아 하지 않는 이집의 후한 인심에 마침내 전국 각지에 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대관령을 넘어야 할 길손들은 일부러 이길을 택하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가세가 흔들리도록 나그네를 접대하게 되었고 이렇게 되고 보니 이택의 며느님의 고단함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노쇠해가시는 시부모님의 공양에까지 타격을 받게 되어

나날이 근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는데 어느해 이른 봄 심산의 무명 스님이 이 집 문전에 당도하여 시주를 청하게 되었다.

며느리는 이 때를 놓칠세라 얼른 시주를 드리면서 그동안 가세가 기울어지게 된 동기를 길손 대접하는 것부터 시작된 그간의 어려운 사정을 다 말하면서 우리집에 들리는 길손들의 발손을 끊어지게 하는 방도는 없겠느냐고 도승에게 물었다. 이 말을 다 듣고난 도승은 눈을 지긋이 감으면서 “나무관세음보살!” 하고 주문을 외고 난 후 “바로 저 건너 성황당 밑 바위의 앞쪽을 깨 버리시오 그러면 길손이 끊어지리.”하고 홀연히 떠나갔다.

이 말을 듣고난 며느리는 밤중에 부리던 하인을 시켜 낮에 도승이 가르쳐 준 말대로 바위 뿔을 내리치니 이게 어인 일일까? 바로 그 자리에서 선혈이 낭자하게 흐르더란다. 그 후부터 이씨댁 문전에는 번잡하던 길손의 발길이 끊어졌으나 가세는 오히려 전보다 더 빈곤해지고 더우기 이댁 가솔들은 시름시름 병고까지 당하게 되고 마침내는 단손이 되어서 그 집을 흉가터로 후에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실은 이 집을 중심으로 한 산세가 흡사 황소의 목이 굽어져 있는 형상이라고 하며 성황당의 깨진 바위는 소 머리의 혀 부분이었기 때문에 하인이 바위를 칠때 선혈이 낭자한 것이며 지금도 그 근처 바위색은 붉게 물들어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그후 그 근처의 마을 사람들이 “쇠목”이

라 구전하여 오다가 후에 다시 “소(牛)”자 “우” “목(項)” “항” 을 써서 우항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말에 “집에 손(객)이 드나들어야 그 집안이 흥하게 된다.”는 말이 또한 새삼스럽게 수긍되기도 한다.

등지베루

우천면 용둔리와 영영포리 경계에 베루가 있는데 이 베루를 등지베루라고 한다.

등지베루라고 하게 되 것은 이 베루를 지나자면 험난하여 말등처럼 생긴 바위를 지날때는 등을지고 조심하게 지나야만 한다는데서 등지베루라고 하게 되었다 하며 이곳에는 말등바위, 말안장바위, 귀용소, 노고소가 있다.

등지베루는 영영포리, 옥동리, 갑천면 구방리와 용둔리의 3개면 4개리의 경계인 국사봉에 있으며 이 국사봉에서 산줄기가 이곳 등지베루까지 내려와 끊어지다가 다시 되살아난 산이라 하여 이 고개를 되재기재라고 부르고 있다. 이 산 뒤편에 험난한 베루가 있었다.

이곳을 지나자면 말등처럼 생긴 바위를 지나야 하며 이 바위 앞에는 노고소라는 소(沼)가 있고 뒤에는 험난한 절벽으로 되어 있어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은 말을 타고

그대로 지날수가 없어 말에서 내려야 하며 짐을 지고 가던 사람은 짐을 지고는 갈 수 없으므로 짐을 벗어 어깨에 메고 절벽을 등에 대고 조심조심해서 지나곤 했다고 한다.

이 베투를 보살이 지나다 빠져 죽었다 하여 노고소라 한다 하며, 이곳은 말을 몰고 오던 사람들이 그대로 지나가기에 위험하므로 쉬면서 말먹이를 주었다는데서 귀용소라고 부르고 있는 바위와 말안장바위가 있다. 이 귀용소바위를 70년대에 두곡리 사람이 돌이 필요하게 되자 이 귀용소 돌을 깨다가 다 깨지도 못하고 몸을 다치는 바람에 그만두었으나 얼마안가서 죽었다고 한다.

이것을 본 이곳 사람들은 이름있는 바위를 함부로 손대면 해를 본다고 하고 있다.

또한 이베투가 지금은 국도로 되어 있으며 이 등지베투루 절벽에는 옛적에 글씨를 새겨 놓은 것이 있었는데 도로속에 묻혀 현재는 보이지 않는다.

광암

황성군 우천면 오원리 전재 기슭에 위치한 광암은 높은 산이 둘러쌓여 성을 이루고 한 가운데에 10평정도의 암반이 펼쳐져 있다. 바위는 신비롭게도 소나무가 여기저기 서 있으며 그 한 가운데 샘물이 솟아나오고 있다.

이 샘물은 일명 약수로도 불리우며 이곳을 찾는 소풍객들이 즐겨 마신다.

음력 7월 7일이 되면 이곳을 찾는 여러 사람들이 이 반석 위에서 약수로 밥을 지어 칠성 기도를 올리고 복을 빌기도 한다.

이곳에서 10m가량 떨어진 곳에 생남 바위라는 바위가 있는데 부인들은 기도가 끝나면 생남 바위를 향해 돌을 던져 바위를 마치면 잉태하여 생남한다는 전설로 많은 기도객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신선바위와 처녀바위

우천면 하궁리 고돌(곧은) 고개 밑에 있는 산골짜기에 사람의 발자욱 형상이 3개 있는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신선바위라고 하며 이 바위 옆에 벼랑위에 큰 바위가 또 하나 있는데 이 바위를 처녀바위라고 한다.

신선바위라고 이름이 붙게된 것은 옛날에 하늘에서 이곳 경치좋은 바위에 세 신선이 내려와 즐겁게 놀다가 갈때 남긴 발자욱이라 하여 신선바위라고 하게 되었다 하며 그 옆에 있는 벼랑 위에 큰 바위를 처녀바위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 처녀들이 이 바위 위에 모여 놀다가 실수로 떨어져 죽었다고 하여 처녀바위라 한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바위 위에는 분묘 모양이 하나 있는데 이

분묘가 처녀바위에서 떨어져 죽은 처녀의 무덤이라고 전하여지고 있다.

글바위

이 바위는 횡성군 우천면 문암리에 있는 바위로 횡성에서 강릉으로 통하는 포장도로를 따라 약 8km지점에 이르면 예로부터 동촌이라 불리워진 조그마한 분지가 이루어져 있는데 고요하고 평화로운 이 마을엔 산세를 따라 옹기종기 10여호씩의 가옥들이 자리잡고 오손도손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마을의 중심부를 뚫은 경강 도로변에 위치한 글바위란 직경이 20m, 높이 8~9m의 바위가 우뚝 솟아 있으며 바위 틈새로 노목이 우거져서 절정을 이루는데 종래에는 이 바위가 노적의 형상이라 하여 노적바위라 일컬어 왔었다. 그런데 150여년전부터 노적 바위 부근에 많은 학자들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송 충계, 김 동호, 임 충계(이상은 호임) 등의 뛰어난 학자들을 주축으로 이 바위 위에서 시화를 자주 갖었다고 한다.

이것이 널리 전파되어 인근 고을의 학자들도 왕래가 잦게 되었고 바위 위에서는 글 읊는 소리가 그칠 날이 없었다. 이로 인하여 순박한 농민들은 입에서 입으로 글바위라 호칭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100여년 후인 왜정 말기에 이르러 행정구역 개편으로 당시의 “하수남리”라 불리워진 마을이 글바위란 뜻을 살려 “문암리(文岩里)”라 개칭되었고 해방후에는 이 바위 옆에 우천 중학교가 설립되어 현재 800여 재학생이 학업에 열중하게 되었다.

이 바위에 오르면 아름답게 굽이치는 섬강 상류의 맑은 내와 유순한 산세에 뒤덮힌 숲의 그림폭 같은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며 시원하고 맑은 정기는 보는 이의 가슴을 확 트이게 해준다.

봄이면 꽃, 여름이면 숲, 가을이면 단풍으로 단장하는 글바위는 지금 주민의 쉼터이며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의 피로를 풀어주고 밝은 마음을 길러 줄 것이다.

소세바위 (법주리)

우천면 법주리 모시골 입구에 있으며 모시골을 들어가자면 나즈막한 산이 하나 있는데 이 산의 산세가 와우(달팽이)형극이라 하여 이 앞에 부자집이 한 집 있었다고 한다.

쌀독에서 인심난다는 옛 이야기와 같이 이집 주인은 인심이 좋아 일가 친척간에 화목하고 친구간에 우애가 좋아 손님의 발길이 매일같이 끊일날이 없이 지내니 고

생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집 자부는 찾아드는 손님 시중이 고생이라 생각하고 손님이 좀 찾아오지 말았으면 편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느날 대사가 찾아와 시주하라며 염불을 하니 이 집 며느리는 여자의 좁은 소견에 대사에게 부탁하면 손님이 안 찾아들게 해 줄 수 있을것이라 생각하고 얼른 나가 시주를 후하게 하면서 대사에게 말하기를 소청이 있는데 들어 달라고 말하자 대사가 연유를 물으니, 「우리 집에는 손님이 매일같이 많이 찾아와 손님 시중에 매우 고생을 하고 있으니 손님 좀 안오게 하여 달라」고 애원한 즉,

「이제 이집의 기운은 며느리로 인하여 다 되겠구나」
하고 대사는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말하기를
「소원이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하면서 좌우 주위를 살펴 보더니,

「저 앞에 보이는 저 바위를 갈라 붓도랑에 내서 물이 흐르게 하고 저 바위 옆에 있는 소세 모양 바위의 끝을 잘라 놓으면 손님이 안들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며느리는 대사에게 당장하여 달라고 하니 대사는 와우(달팽이) 형국의 바위를 위에서 부터 아래로 반을 잘라 놓고 이제 이 갈라 놓은 사이로 3년내에 물이 흐를 것이라고 하고는 소세(혀) 바위의 혀끝을 잘라놓고 가면서, 「이제 손님이 차츰 적어지다가 3년안에 완전히 끊어질 것입니다」하고는 떠나갔다고 한다.

그 후 대사가 말한대로 갈라 놓은 바위 사이로 물이 흐르고 이 부자집의 가세는 점점 기울어져 패가하여 딴 곳으로 떠나고 말았다고 한다.

그때부터 바위를 갈라놓은 사이를 통하여 농경지에 물을 대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바위 사이를 통하여 1980년까지 물을 대다가 저수지 수로를 이 바위 앞으로 돌리게 되어 현재는 바위 앞으로 물이 흐르고 있으며 지 금도 흔적이 남아 있다.

소세바위의 혀끝을 잘랐다고 하는 소의 윗입술에 해당하는 바위마저 6.25동란 당시 중공군이 이 바위를 굴러 떨어뜨려 바위는 흠속에 묻혀 있다고 이 부락에서 나이가 많은 노인들은 말하고 있다.

이 바위 앞에는 소가 여물을 먹는 소귀움바위라고 불리는 바위도 현재 있다.

광암바위

용둔초등학교 교문에서 서남방으로 약 40 m, 가로 2.8m, 세로 2.5m, 두께 45cm, 둘레 9m크기의 바위가 있다.

이 바위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나 옛부터 “광암바위” 또는 “광암”이라 부르고 있으며, 이 바위로 인하여 이 지역을 “광암” 또는 “광암리”라 부르고 있다.

광암이라 알려지게 된 이 바위에 담긴 전설은 다음과 같다.

이 바위 옆에 큰 고목나무가 있었는데 어느 누군가 이 고목의 참나무를 베었더니 큰 구렁이가 나와 이 바위를 휘감고 어디론지 사라졌으며 그후 이지역에서 잘 살던 이모씨가 갑자기 재산을 날리게 되어 망하여 타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며 또한 누군가가 이 바위를 쪼개려 연 모를 댔더니 바위에서 피가 나왔다는 전설이 있다.

이 바위는 이지역 도로 확장시 약 1m가량 현 지점에 도자로 옮겨졌으며 당시 용둔초등학교 학교장이 이 바위에 담긴 전설을 길이 보존코져 교문앞 진입로 옆을 공원화하여 옮겨 놓고 바위에 대한 전설을 게시하고 이 지역의 소지명이 되다시피한 바위를 보존코져 하였으나 이 바위를 옮겨 놓으면 동리가 망한다는 이유로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가 그후 주민들이 다시 폐교된 용둔초등학교 앞으로 옮겨놓았다.

현몽약수 (하궁1리)

약물탕하면 전국 각지에 유명, 무명의 약물탕이 수없이 많으며 그 효력으로는 대개 위장병, 피부병 등에 효력이 있다고 한다.

이 약수는 심산 계곡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3m

의 폭포로서 낙차 지점에 큰 바위가 있어 그 바위 밑에 새로운 샘물로 솟아나며 사람들은 폭포의 물을 맞고 먹기도 한다.

이 약수의 유래를 보면 연대는 미상이나 그 옛날 충청도 어느 산골 청풍 곽씨 집안에 8대 독자가 있었다. 8세 때 13세난 처녀와 결혼을 하여 그 부모는 그후부터 아들 낳기를 고대하였으나 태기는 고사하고 아들과 며느리가 다 같이 날이 갈수록 몸이 약해지며 얼굴에 노란 꽃이 피어 나기만 했다.

8대 독자 외아들이 가족 푸대에다 뼈를 담은 것처럼 말라 가자 명의를 찾아 진맥을 하였더니 속병(위장병)이라고 하자 시부모는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다고 구박이 심하였다.

그러나 어린 두 내외의 금실은 찌꼬리나 원앙새 보다 더 좋았다.

사랑스런 아내가 어머니로부터 구박을 받는 것을 안타까와 하던 신랑이 어느날 꿈을 꾸었는데 호호백발 신선이 나타나 이르는 말이 “아내를 살리고 네가 살며대를 이어 조상에 보답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은 아내를 데리고 밤중에 집을 떠나 셋별을 바라보고 강원도 땅으로 가되 낮에는 자고 밤에만 셋별을 따라 활의 형국을 한 산을 찾아가면 병도 낫고 아들도 낳게 되느니라” 하고 사라지는 것이었다.

아들은 부모님 곁을 몰래 떠나는 것이 불효인줄은 알

고 있으나 병을 고치고 아들을 얻어 훗날 효도를 극진히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밤중에 아내를 앞세우고 길을 떠나 몇날 몇달을 산나물과 나무열매로 연명을 하면서 밤에만 걸어 지금의 약수터에 도착하였을 때는 발은 부르트고 온몸에 상처투성이로 더 이상 촌보를 옮길 수 없을 정도로 기진맥진하여 두 젊은 내외는 부둥켜 안은채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다.

얼마동안인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때 비몽사몽간에 전에 나타났던 신령이 다시 나타나 지팡이로 툭툭 치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곳이 바로 너희들이 살고 아들을 얻을 곳이니라. 빨리 일어나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라” 꼭 생시와 같이 하는 말에 깨어나 사방을 살펴보니 기암은 층층하고 노송은 울울창창 기화 요초는 만발한 가운데 새소리는 지지배배 요지경속에 들어간 것 같은지라 정신을 가다듬고 기운을 차려 두 내외가 큰 바위 밑에 엎드려 기도를 올리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조화인가!

얼마후에 천지가 진동하는듯 벼락치는 소리가 나더니 높은 계곡에서 물이 내려 쭉는데 그 장관은 꼭 명주필을 내리운듯한 폭포가 되고 기도 드리던 바위 밑에서 샘물이 솟아 나는지라 두 내외는 목이 마른 김에 풀잎을 뜯어 샘물을 마시니 정신이 상쾌하여지고 피곤이 싹 가셔지는 것이었다.

그날부터 나무와 풀로 움막을 지어 이슬을 막으며 나

무열매와 산채로 식량을 삼고 산천 경계를 벗삼아 낮에는 자고 새벽이 돌아날때 하탕에 목욕하고 중탕에 세수하며 상탕에 정안수로 기도를 올리기 시작하니 보름달 같이 살이 포동포동 찌고 기운이 샘솟듯 하였다.

이와 같이 정성을 다한지 백일이 되던날 태기가 있어 열달만에 몸을 푸니 늙은 기상에 대장부가 완전한 백옥같은 옥동자가 음성도 우렁찬 울음을 터뜨리며 세상에 태어났다.

9대 첫 분만에 아들을 얻은 두 내외는 금이야 옥이야 금지옥엽 같이 귀여워 할때 아이는 서산에 구름일듯 오뉴월에 오이 굶듯 칠 팔월에 호박 크듯 무럭무럭 자라 첫돌을 맞이할때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뵈이니 죽었다고 생각한 자식이 호걸남아의 기상이 뚜렷한 손자까지 안고 왔으니 부모님이 하늘을 찌를듯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어찌 다 형용할 수 있으리오.

이런 일이 있는 후 발없는 소문은 천리에 퍼져 속병이 있는 사람,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 폭포에 목욕을 하고 약수를 먹으며 백일기도를 올리고 병을 낫고 자식을 얻었다고 하여 지금도 이곳을 찾아오는 여인들을 볼 수가 있다.

이 약수가 신선의 현몽으로 생겼다 하여 언제 부터인지 “현몽 약수”라고 부르고 있다.

봉우 약물탕

우천면 하궁리 봉화재 밑에 있는 약수라고 하는데 봉우 약물탕이라고 한다.

이 약수는 바위 틈에서 나오고 있는데 바위 틈의 굴이 직경 30cm정도 되는 크기에 굴의 깊이가 3m로 이 바위 틈에서 약수가 나오고 있는 석간수(石間水)로써 이 물을 바로 받아 마시자면 길이 3m되는 장대에다 표주박을 달아서 이 굴속에 넣어 받아야 하므로 신기하다 하여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약물탕에 가고자 하면 목욕재개하고 일주일간 몸을 정결하게 한후에 가야지 부정한 것을 보거나 정성이 부족한 사람이 이 약물탕에 가자면 약물탕에 가기 전에 뱀의 길을 건너는 것으로 약물탕에 가지 말라는 예고를 한다고 한다.

그런데도 그대로 가게 되면 갑자기 난데없는 구름이 모이고 뇌성병력을 하며 소나기가 쏟아지므로 약물을 먹지 못하고 그대로 내려와야 한다.

이 약물은 정성을 다하여 마시면 신병이 낫는가 하면 또 아이가 없는 사람이 이곳에서 백일기도를 하면 득남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 이곳을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한다.

또한 이곳 사람들이 말하기를 현재의 영동고속도로 예정지 답사 당시 이약물탕이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를

예정하였는데 밤에 잠자리에 대사가 나타나 이 약물탕이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를 내게 되면 하궁리 일대가 산사태 등으로 수해를 입게 될 것이니 고속도로를 이곳으로 내지 말고 약물탕이 있는 산 뒤로 내는 것이 좋겠다고 예고를 하여 당초 답사하던 곳을 옮겨서 고속도로를 냈다고 한다.

이 약물탕은 신령의 조화로 지금도 영험하다고 한다.

춤추는 난조

옛날 횡성 안흥에는 이찬종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다. 본시 천성이 어질고 착한데다 심성이 끈고 부지런했으며 효성 또한 지극하였다.

워낙 가난한 살림을 물려 받아 어렵게 살았지만 그는 마을 앞에 있는 폐허의 땅을 부지런히 일구고 가꾸어 그가 일군 들판에는 오곡이 황금물결을 이루고 있었다. 그는 피땀흘린 댓가와 자연의 섭리에 무한한 감사를 느끼며 더욱더 열심히 일해 가세는 점점 윤택해지고 화목한 가정에서는 웃음꽃이 항상 피어났다.

그러나 어느날 밤이었다.

그는 매우 신기한 꿈을 꾸었다.

키가 9척이나 되며 백발수염을 드날리며 신선이 구름에서 내려와 한바탕 너털웃음을 웃고는 그를 불렀다.

“여봐라 찬종아~”

그 청년은 생전 처음보는 노인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릴 듣고는 깜짝 놀랐다.

“예...”

“내 너의 착한 효심에 감동하여 네 앞길을 열어주려 왔느니라. 부디 내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도록 하여라 알겠느냐”

“예 신선님 감사합니다.”

그 청년은 공손히 절을 하며 머리를 조아렸다.

잠시후 정신을 차려 신선을 바라보니 신선의 얼굴에선 휘황찬란한 광채가 하늘 끝까지 뻗쳐 눈이 부셔 도저히 쳐다 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

“신선님, 신선님 부디 저의 앞길에 등불이 되어 주소서~”

젊은 청년은 진심으로 그렇게 신선에게 말하였다.

“그럼 내 말을 잘 듣거라. 오늘부터 사흘 뒤 동쪽으로 100리를 가면 날이 저물게 될것이다. 그곳에서 너를 기다리는 사람이 나타날테니 그 사람의 지시를 잘 받도록 하여라 알겠느냐”

그 소리가 끝나자 마자 신선은 ‘핑’ 소리와 함께 연기처럼 사라지고 그 청년도 꿈을 깨고 말았다. 그 청년은 꿈이 하도 신기해서 그의 지시대로 한번 따르기로 작정하고 사흘 뒤 길떠날 준비를 한 후 신선이 얘기해 준대로 동쪽을 향해 정처없이 길을 떠났다.

가도가도 첩첩산중에 인적없는 험한산을 몇번이나 넘고 넘어 울창한 숲속을 정신없이 걷다보니 어느덧 너덧 너덧 해는 서산으로 지고 칙흑같은 캄캄한 밤이 다가왔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 살펴봐도 인가라고는 찾아볼수 없는 산골이라 청년은 걸음을 빨리하여 밤을 지새울데를 찾아 봤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산짐승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청년은 두려움과 공포속에 더 이상 견지 못하고 커다란 나무를 붙잡고 벌벌 떨고 있는데 난데없이 숲속에서 창아한 새울음 소리가 밤공기를 가르며 들려왔다.

‘아! 저건 난조(鸚鳥)로구나!’

난조는 금빛 찬란한 빛을 발하면서 청년의 심금을 울리며 구성지게 울어대고 있었다.

청년은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도 모두 잊어 버리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난조를 따라 그도 같이 어깨춤을 쳤다.

난조는 젊은이를 인도하려는듯 앞서서 춤을 추며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 청년은 완전히 넋을 빼앗기고, 난조가 이끄는대로 숲속으로 들어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갑자기 숲속 저쪽에서 희미한 등불이 비치는 인가가 보였다. 그 청년은 오막살이에 가까이 다가가 주인을 불렀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몇번을 거듭 부르자 방문이 살며시 열리며 방에서는 금방 하늘에서 내려 온듯한 선녀 만치나 아름다운 여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누구십니까? 이 밤중에…”

아니! 지금에야 오시는군요.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어서 들어오세요.”

선녀도 저리 아름다울 수 있으랴….

그 청년은 정년 꿈 같게만 느껴졌다.

“꼭 오늘 밤에 오실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자세한 사연은 나중에 말씀 올리겠사오니 누추하지만 어서 방으로 드세요.”

청년은 귀신에 홀린듯 그 아리따운 아가씨가 이끄는 대로 방을 들어섰다.

방에는 산해진미가 상다리가 부서져라 차려져 있었다.

그 여인은 청년의 손을 이끌고 아랫목에 앉힌 다음 섬섬옥수를 들어 향기 그윽한 술을 한잔 따랐다.

“찬은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이 술은 저와 백년가약을 맺는 술입니다. 힘과 슬기가 용솨음치는 신선주예요.”

청년은 신선주를 마시자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고 온몸에서 힘이 솨았다.

“저는 선비님의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배운 것도 아는 것도 없사오나 앞날을 보는 안목은 좀 있습니다. 부디 이 미천한 여인의 말을 꼭 따라 주시면 무한한 영광

으로 알겠습니다. 오늘밤은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은 저와 함께 가셔서 선비님을 기다리시는 분을 만나도록 하세요. 네~”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시면 후에 꼭 대성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비단이불을 까는 것이었다.

정말 꿈만 같은 하룻밤이 지나갔다. 다음날 그 청년은 여인이 인도하는대로 숲속을 따라 들어 갔다. 숲속에선 온갖 아름다운 새가 다 모인듯 고운 소리로 노랫 불렀고, 숲속은 가히 무릉도원이었다.

그때 어디선가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더니 사흘전 바로 꿈속에서 만난 신선이 나타났다.

그 청년은 땅바닥에 엎죽 엎드렸다.

“신선님의 고명하신 가르침을 받으려 미친한 것 이렇게 찾아 왔습니다.”

“허허 내가 올 줄 알았다. 그래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딜 수 있겠느냐?”

“예~ 분골쇄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냐 잘 알았다.”

그러면서 신선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계곡 아래로 휘 던졌다.

계곡 밑은 천야만야한 절벽이었다. 아래를 내려다 본 청년은 오싹 현기증이 났다.

“신을 찾아 오너라”

그 청년은 죽을 힘을 다해 절벽을 타고 내려가 신발을

찾아 올라왔다.

그러자 이번에는 난데없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잡으라 하였다. 젊은이가 그 지팡이를 잡자 지팡이는 땅속 깊이 박힌 쇠기둥이나 된듯 꼼짝달싹을 안했다.

한나절이 다가도록 지팡이를 잡고 힘을 썼지만 그 지팡이는 요지부동이었다.

“됐다 됐어 그 용기 그 인내라면…”

“이제부터 내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도록 하여라.”

“예”

그날부터 청년의 뼈를 깎는 각고의 훈련이 시작됐다. 물론 아름다운 아가씨는 그가 신을 찾아 왔을 때 이미 종적을 감추었었다.

그는 이를 악물며 고통을 참고 검술, 궁술, 도술, 병서 공부에 정진했다.

3년이란 세월이 흘러가고 이제 젊은이에게 세상 어느 누구도 대적치 못할 문무를 겸한 도인이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르칠게 없다. 세상에 나가 의와 참을 위하여 칼을 빼거라.

절대로 의와 참이 아닌 곳에 인격과 양심을 팔지 않도록 명심하거라. 또한 세상에 나아가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하도록 하여라. 어서 가거라 어서…”

“예 은사님 한사코 은사님의 고귀한 가르침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정들었던 산을 내려왔다.

얼마만치 걸었을까 드디어 인가가 하나 둘 보이고 마을이 나타났다. 참으로 오랫동안 보는 풍경이 아닐 수 없었다.

그 청년이 감회에 젖어 막 동네로 들어 섰을때, 동네 어디쯤에선지 처절한 여인네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직감으로 웬지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고 울음소리를 쫓아 발걸음을 옮겼다.

시냇가에서 가냘프고 아리따운 아가씨가 슬피 울며 빨래를 하고 있었다.

“여보시오 아가씨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리 슬피 우는지 그 까닭이나 알아보시다.”

그러나 그 여인은 들은척도 않고 계속 울기만 했다. 거듭 청년이 간청하니 울먹이며 그 여인은 말을 이었다.

“저는 이 마을 김진사댁 고명딸입니다. 얼마전 부터 이 마을엔 무서운 산적이 나타나 약탈을 일삼으며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산적들은 워낙 수요가 많고 두 목이 무예의 고수라 관군들도 몇번이나 토벌하려다 대패하곤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밤 저를 그 무서운 산적이 강제로 빼앗아 아내를 삼는다고 했습니다. 만약 거절하면 저희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든다고 했으니 어쩔수가 없어서 이렇게 울고만 있습니다.”

“아가씨 안심하십시오. 내 기어이 흉악무도한 산적을 쳐 부수고 아가씨를 구해 드리리다.”

“혼자서 그 많은 산적을...”

말씀은 고맙지만 안되실 말씀이세요.”

“걱정 마세요. 자 그럼 내 다녀 오리다.”

청년은 축지법으로 한걸음에 산적에 소굴에 다다랐다.

제아무리 날고 기는 무예의 고수라 하나 신선으로 부터 훈련받은 도인의 경지에 든 그 청년에 상대가 될리 만무했다.

한 시간도 안돼 흉악무도한 도적들은 청년의 정의의 칼 앞에 모두 굴복하고 말았다. 이 소식은 바람처럼 마을에서 마을로 퍼졌고, 그 청년이 마을에 다다랐을때 김진사 고명딸이라던 아가씨는 버선발로 쫓아 나와 그 청년의 품에 안겼다.

‘아니! 이게 누군가 3년동안 꿈에서도 못 잊을 그 산에서 만났던 여인이 아닌가’

“대성하셨군요. 저예요. 저를 똑바로 보세요. 후~ 후.”

모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내일처럼 기뻐했고 곧이어 마을사람들은 두 젊은 남녀의 백년해로를 위한 성대한 잔치를 벌였다. 정말 청년에게 있어서는 꿈속 같기만한 나날들이 아닐 수 없었다.

소문은 온 나라에 퍼져 마침내 그 청년은 임금에게까지 불리어 나가 대장군이 되었다.

이 찬중 장군은 정의의 칼을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악한 무리들을 모두 물리치고 요순시대 보다 더

한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큰 몫을 했다.

그후부터 이런 사연이 있는 후부터 사람들은 이 마을을 난조가 춤을 추며 청년을 인도했다하여 무난(舞鸞)이라 불렀으며, 이 마을이 안흥면 상안리에 있는 무난동(舞鸞洞)이다.

말 무덤에 얽힌 전설

안흥4리 즉 주천강 왼편 끝에 약 30여집이 사는 마을이 있는데 이곳을 사람들은 「말무덤」이라고 부르고 있다. 전설에 따르면 옛날 신라시대에 이 마을에 이춘생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다.

춘생은 젊어서 자녀를 두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독실한 불심으로 가까운 절에서 1백일이나 기도를 드렸으나 아들을 얻을 자신은 없었다.

「다 늦게 우리에게 무슨 자식이 생겨 나겠소?」하면서 춘생의 아내는 깊은 생각에 잠기곤 하였다.

마침 이집에는 어려서부터 딸처럼 길러온 복실이라는 여자가 있었다. 남편의 기원이 이루어지려면 복실을 소실로 삼게 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남편이 백일기도에서 돌아오자 부인은 복실을 남편의 방으로 들여 보냈다.

이런 일이 있은후 복실의 몸에는 태기가 있어 집안 사람들은 그저 아들 낳기만을 고대하고 있었다. 달이 차서

소원대로 떡두꺼비같은 아들을 보아 이춘생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누가 알았으랴? 3~7일을 지난 아기를 분명히 아랫목에 누여 놓았는데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와 보면 아기가 천정에 올라 붙어서 깔깔 웃고 있어 마치 집안 식구들을 놀려주기나 하는듯이 하고 있었다. 이런 소문은 이웃으로 널리 퍼져 나갔다.

「이춘생의 집에는 장사가 났다더라」, 「아니 그 아기는 장사가 아니라 귀신이다」, 「장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인물이다」 등등의 이야기가 떠돌았다.

백일이 지난 어느날 낮선 중이 찾아와 애기를 보더니 「쫓쫓」혀를 차고 있었다.

「왜 그러십니까?」

「이태에 큰 인물이 났으나 그 아기 때문에 잘못하면 멸족을 당할지도 모릅니다。」라는 말에 이춘생은 겁이 나서 중에게 다그쳐 물었다.

「무슨 뜻이요. 왜 우리 아기가 역적이라도 된다는 것이요?」

중은 눈을 지긋이 감고 한동안 생각하다가 눈을 뜨더니 「사실은 그런것이 아니라 장차 용상에 앉을 인물이 나타났는데 잘못하면 역적의 누명을 쓰기 쉽지요」

라고 대답하고 갔다.

이런일이 있은후 이춘생은 겁이 나서 아기 때문에 멸족을 면치 못한다면 미리 예방을 해야 했다.

미친한 소생의 아들이 어찌 임금의 자리를 넘볼 수 있을까? 천부당 만부당한 노릇이다.

그래서 아기를 죽이기로 하고 팔 3말을 담은 자루를 돌도 지나지 않은 갓난아기의 얼굴에 눌러 놓았다. 그리고 방문을 밖으로 잠그고 한참 있다가 들어가 보니 아기는 힘없이 죽어 있었다. 이에 춘생은 기막힌 심정으로 아기의 시체를 용소(龍沼) 건너편 양지 바른 산 기슭에 묻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던 바로 그 시각에 옛부터 용이 있다는 소(沼)에서 용마(龍馬) 한 마리가 나와 매일 산을 달리곤 하였다.

그러나 춘생의 아기가 죽던날 용마(龍馬)가 슬피 하늘을 향해 울부짖더니 아기의 무덤 곁에서 죽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 용마가 아기가 장차 타고 다닐 말이었음을 알고 측은히 생각하여 아기무덤과 나란히 묻어 주었는데 그후부터 이 마을을 「말무덤」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삼척바위와 기녀의 한

안흥면 안흥1리 9반에 자리한 이 바위는 안흥면에서 국도로 강릉 방향으로 약 1km쯤 가다가 보면 약 15미터쯤 높이의 산 절벽이 서 있는데 안흥에 있으면서도 삼척

바위라고 불리워지기까지의 전설은 다음과 같다.

이 절벽 밑에는 조선 말엽까지도 깊은 소(沼)가 있고 삼척바위 돌머리에는 서울 강릉을 통하는 길이 있었다고 전한다.

「안돼요 절 버리고 가려면 차라리 죽여 주세요」한 여인의 울부짖음은 신파조의 대사같이 들리지만 당사자로서의 피맺힌 절규였다.

그 여인은 삼척 관기 홍련이었고, 관복자락을 붙잡혀 난색을 짓고 있는 사나이는 수령 최모로 그는 콧수염과 턱수염이 알맞게 조화를 이룬 40대의 원님으로 위풍이 당당한 미남이었다.

최수령과 홍련의 사이는 둘이 좋아하는 사이이며 차마 떨어지기 싫은 정분이 있었다.

하지만 최수령은 막중한 어명에 움직여야 하는 몸이요, 관기 홍련은 자유가 용납되지 않는 몸이니 알곳은 운명이었다.

최수령은 이러한 제도와 환경을 무시하고 한사코 따라가겠다는 홍련의 등을 쓸어주며 여러모로 달래보았으나 소용 없는 일이었다.

「싫어요, 싫어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모시고 함께 가겠어요」

어린 철부지 기생의 첫정은 퇴속적인 말로써 어떻게 달랠길이 없었다. 수령은 심한 말로 나무래기로 결심했다.

「나는 너와 같은 천한 계집에게는 마음이 없으니 당장 물러가라, 다시는 나를 찾지 말라」라고 모진 소리를 질러 흥련을 떼어 놓고 한양길에 올랐다.

삼척에서 안흥에 이르러 이곳에서 하루를 숙박하게 되었는데 숙소로 달려온 한 계집이 있었으니 물론 흥련이었다.

끈질긴 기생의 추적에 역정이 몹시 난 최수령은 다시 불호령을 터뜨렸다.

「요망스런 계집 같으니라고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관헌에게 명령하여 엄히 벌을 주겠다.」

그전에 그렇게도 다정하고 자상하던 수령의 노한 표정에 놀란 흥련은 기가 막히고 간장이 내려 앉았다.

노염과 원망이 뒤범벅이 된 감정으로 원님의 앞을 물러 나온 그녀는 푸른 물결이 굽이쳐 흐르는 소(沼)위의 바위로 올라가 치마를 둘러쓰고 신발을 벗어 놓고 아래로 떨어져 꽃다운 젊음을 끝낸 것이다.

한양으로 영전하는 최수령은 너무나도 슬펐다. 흥련이 너무나도 가여웠던 것이다.

대의를 지키려고 혼연의 힘을 다해 호통을 쳤으나 사람의 목숨을 끊는 무정한 결과를 빚을 줄은 꿈에도 몰랐었다.

일부염원(一婦念怨)이면 오월강상(五月降霜)이란 옛말이 떠 올랐다.

흥련의 혼령을 달래줄 생각이 떠 올랐다. 수령은 그

녀의 혼이나마 정성껏 위로해 주고 싶었다.

그후 홍련이 신을 벗어 놓고 투신했던 이곳 바위에 조그마한 비석을 세워 주었다.

이러한 일이 있은후 이 바위를 삼척바위라 부르게 되었고 동시에 한 기생의 순애보를 길이 기리고 잊지 않게 비석을 세웠으나 그 비석은 자취를 감추어 찾을 길이 없고 바위는 아직도 남아 있어 이고장 주민들과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전설을 전해주고 있다.

삼형제 바위

횡성군 안흥면 가천리 앞산 삼형제 바위라는 높은봉 3개가 우뚝 서 있고 밑으로는 큰 강이 주천강으로 흐르고 옆으로는 안흥서 강림행 찾길이 나 있으며 버스에서 도보로 행인들이 삼형제 바위를 쳐다보는 경치는 금강산을 보는 일부분에 아름다움이라 하겠다.

이 삼형제 바위를 옛날에는 산양봉이라고 불러왔다 하는데 산양이 바위에 발을 붙이며 살아왔다 하여 산양봉이라고 불러왔고 지금은 큰 바위로 된 산이 3개가 솟아 있어 다정한 3형제와 같다 해서 3형제 바위라고 부르고 있다 한다.

소사비 선정비

이 비석은 비명과 같이 강릉현의 현감 정수계(鄭守桂)씨의 송덕비로써 이 비로 말미암아 이 마을 이름이 소사비리(所思碑里)로 불리우게 되었는바 이 비(碑)에 대한 유래는 다음과 같다.

정수계 현감이 강릉으로 부임해 가던 중 중간지점인 이곳 소사리를 거치게 되어서 이 마을 주막에서 쉬는데 마을 사람들은 힘이 없고 눈이 퀘~○하니 들어갔으며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다.

사연을 물은즉 몇년째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보리밥은 커녕 죽도 끓여 먹을 양식이 없으나 나라에서는 계속해서 세금을 받아 간다는 것이다. 지나가는 손님에게도 돈을 받고도 대접할 쌀이나 보리도 마땅치 않아 귀리로 밥을 지어 주었다.

이에 정현감이 깨달아 강릉에 도착하는 즉시 나라에 상소문을 올렸다. 그리하여 그 해 가을에는 이 고장에 조세가 면하게 되었다. 영문을 모르던 이 마을 사람들이 뒤늦게 서울과 관청등에 알아보니 1년전에 이곳에서 하룻밤 묵어간 정현감이 상소하여 이루어진 결실이라는 것을 알고 그 은덕을 기리고자 이 마을 입구에 비를 세우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 마을 이름도 소사비리(所思碑里)로 불리우다가 소사리(所思里)로 불리게 되었다.

일부 문헌에는 소은리(所恩里)라 적고 있는데 이는

사(思)자를 은(恩)자로 오식(誤識) 한데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둔다.

비문내용
崇禎后己丑
德愛民善政碑
縣監鄭守桂清

재짓말

소사2리 1반 마을을 재짓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옛날에는 기와집말이라는 어원에서 유래됐다. 마을 모양이 배처럼(舟型) 생겼다.

이 마을에는 옛날 안동 권씨(安東 權氏)가 이사를 와서 큰 기와집을 짓고 살았으며 친지의 왕래가 잦아 손님이 사랑채에 딱딱 차서 접대를 하였다.

그러던중 이 집에 새 며느리가 시집을 와서 몇년 살면서 손님 뒷치닥거리를 하느라고 골치를 앓던중 이집에 이름모를 중이 방갓을 쓰고 시주를 오자 이 며느리가 시주는 많이 할터이니 손님 치닥거리를 면할 방법을 가르쳐 줄것을 부탁하자 이 중이 집 뒷산 흙을 9삽 파다가 앞 개울 복판인 배의 허리를 메우면 된다고 하니 며느리가 그렇게 하였고 마침내 이 집은 서서히 망하고 이곳에는 흔들바위가 생겼다.

봉화산의 유래

안흥면 소사리(태오리)에 위치한 것으로 이조 창건 이후 봉화직을 배치하였다 하여 봉화산이라 불렀다.

이산 정상에서 바라보면 멀리 서쪽으로 양평 용문산이 보인다.

이조시대 전화 전신시설이 없을 때 국가에서 유사시 봉화로 신호를 하였다. 이 산은 황성, 홍천, 평창을 경계로 한 태기산의 봉화직과 용문산의 중간 연락지점으로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

이 산의 봉화대가 소실 된 것은 황성군 둔내면 영랑리에 이조 왕족으로 은거하던 이인거(李人居)가 용력이 뛰어나고 무예에 능한 약관 20에 역심을 품고 모병 14병을 기병하여 서울로 향하여 이산을 수직(守直)하던 봉직을 살해하고 원주 한다리에서 관군과 수시간 교전 끝에 패망하였다. 그 후 산정의 봉화대는 퇴락하고 지금은 옛터만이 남아 있어 전설의 산으로 알려지고 있다.

곰바위 약수의 전설

안흥 1리 남쪽에 위치한 남병산 중턱에 옛날부터 전해 오는 말에 의하면 이 곰바위 약수터는 늙은 곰 한쌍이 약수터에 내려와 물을 먹고 기운을 차리려다 솟음이

물을 먹고 그곳에서 즉사 암곰은 혼자 살아 무엇하랴하여 곰바위 밑 봉어소에 빠져 죽었다는 전설이 있어 안흥 1리 주민들은 이것을 신기하게 여겨 현 약수 있는 곳에다 성황당을 짓고 산신령을 모셨다한다. 그 후 일본인 순사부장이 기생과 함께 와서 물을 마시다 부정을 타서 물의 양이 적어졌다. 이때 분개한 일본 순사부장은 곡괭이로 약수를 쭈셨더니 물이 자연 없어졌다는 전설이 있다.

현재 안흥1리 등산회원들이 1985년 5월에 이 곳을 답사 샘구멍을 찾아 약수터를 보완 다시 약수를 마실 수 있게 되었다.

이 약수는 팔다리 쭈시는데, 무좀, 속쓰림과 소화불량에 효험이 있다고 한다.

거북바위의 전설

둔내면 화동1리(속칭 고시골) 마을에 들어가려면 거북처럼 생긴 바위(높이 30m, 길이1m, 너비60cm)가 마을 입구에 서 있다. 지금은 이 바위에 목부분은 잘리어 있다. 이 목이 잘리워 지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옛날 이 바위로부터 15m가량 떨어진 곳에는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굉장한 부

자였다한다. 유독 이 마을에서 지붕을 기와로 얹고 농토와 친구도 많아서 매일 손님이 끊일 날이 없었다. 그러던 중 이 집의 새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하루에도 몇 명씩 손님이 찾아 들어 술과 밥상을 차리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하루는 이집에 머리를 뺨뺨 깎은 탁발승이 시주를 하러 와서 염불을 외고 있었다. 이에 쌀을 퍼들고 뛰어나가 스님에게 부탁하기를 매일 손님이 들어 피곤을 이길 수가 없으니 해결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다.

스님이 한참 이집 새며느리를 쳐다 보더니 해결해 주겠다고 대답하고 집을 나갔다. 이 스님은 명주실을 가지고 와서 이 집 옆의 거북바위의 목에 실을 여러번 감고 흠을 파서 묻고 가버렸다.

이런 일이 있는 후 이 집은 2년도 못가고 망해서 손님의 발길이 끊기었고 이 집 며느리도 패가 망신했는데 그 후 거북바위의 목이 끊어졌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표면을 보면 목이 끊긴 이 거북바위의 목을 안으로 파 보면 끝이 안 보이는 바위로서 목이 붙어 있다.

궁중리 배나무

둔내면 궁중리 마을 산중턱을 조금 더 올라가면 둘레가 3m, 수령이 500년이상 되어 보이는 배나무가 서

있어 500여년전에도 이 산골짜기에 사람이 거주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아주 먼 옛날 (연대미상) 오두막집이 한채 있었는데 어느날 저녁때 할머니가 물래질을 하고 있었는데 호랑이가 나타나 그 할머니를 물고 그 집 뒤 큰바위에 가서 할머니를 잡아먹고 머리만 땅에 묻었다고 한다.

그후 그곳에 배나무가 한그루 나고 점점 자라 현재의 큰배나무가 되었고 그 옆에 큰바위가 있는데 동리 사람들은 호랑이가 자주 나타나 큰 바위에 올라 앉아 놀다가 가곤 하였다하여 호랑바위라고도 한다.

용소와 기우제

현천1리에 있는 못으로서 마을 앞을 흐르는 강줄기에 속한다. 이 물은 영월의 주천강의 원류(源流)로 마을 앞을 구비쳐 흐르면서 큰 웅덩이가 패어져 있는데, 옛날에는 명주실 한꾸러미가 모두 들어갈 만큼 깊은 곳이 있었다고 한다.

이 마을은 몹시 가뭄에 시달린 적이 있었는데 한창 가물 때에 마을 주민들이 이 못 주위에 있는 큰 바위에서 개를 잡아 바위에 피를 뿌리고 기우제(祈雨祭)를 지내면, 이곳의 용(龍)이 「하필이면 내가 싫어하는 개의 피

가 내 못 바위에 묻었는가」하고 기분풀이라도 하는듯 비를 내려 바위에 묻은 피를 씻어 내렸다는 기우제의 풍습이 있다.

두원리 느티나무

둔내면 두원리(屯內面 斗元里)에 있는 느티나무로 수령이 420년 정도이며 나무의 높이가 24m, 둘레가 6.12m이고 나뭇잎이 사방으로 16m에 드리워져 있으며 이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옛날 충청도(忠淸道)에 사는 어느 부부가 가정은 다복하나 자식이 없어 애를 태우다 어디선가 소문을 듣고 이 느티나무를 찾아와 느티나무에서 「100일기도」를 드리게 되었다. 지극한 정성이 영험을 얻었던지 백일(百日)되던날 밤에 꿈속에서 신령이 나타나 「자식을 원하느냐?」고 묻기에 「그렇다」고 대답하니 「네 정성이 지극해 자식을 하나 줄터이니 잘 키워라」하고 사라졌다.

부부가 놀라서 꿈에서 깨어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날부터 태기가 있어 과연 열달이 차니 옥동자를 낳았다. 부모의 지극한 사랑속에 잘 자라던 아기가 만 3년이 되는 날 갑자기 죽고 말았다.

며칠 후 실의에 차 있는 부부에게 꿈에 다시 신령이 나타나 「아들이 보고 싶으면 그 느티나무 밑으로 가보

라」고 말하고 사라졌다.

다음날 부부는 다시 두원리 느티나무 아래로 찾아가 보니 느티나무는 마치 아들의 모습과 똑같은 형태로 죽어 있었다.

그래서 부부가 이 마을 주민들에게 「이 나무가 언제 죽었느냐?」고 물어보니 「3년전 어느날 죽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부부의 아들이 태어났던 날 죽었다는 것이며 며칠전 바로 부부아들이 죽은 날부터 새 잎이 돋아나고 소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도 그 부부의 아들 모습을 하고~.

이들 부부에게 신령이 잠시 위로키 위하여 느티나무의 생명을 사람으로 변신시켜 빌려 주었다 하던가….

아무튼 지금도 이 나무는 마치 그때의 형상을 그대로 하고 있어 이 전설을 말해 주고 있다.

구성골의 전설

둔내면 우용리의 구성골은 전설에 의하면 이인거의 난시에 그가 훈련기간을 세군데 가래골에서 치뤘어야 했는데 감천의 가래골을 거치지 않고 난을 일으켜 힘이 이르지 못해 실패하였다.

난의 실패로 그가 죽은 수개월 뒤에 이곳 구성골에서 용마가 태어났으나 주인이 다른지라 3일간 주인을 찾으

며 울부짖다가 연못에 빠져 죽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기인 안삽교 선생(삽교리)

백과사전과 같은 두뇌의 소유자였던 선생은 또한 축지법(縮地法)을 쓰는 사람으로 횡성에서 서울을 하루에 갔다 오기가 다반사였다.

어느날 아침 그의 부인이 점심 걱정을 하니 「오늘은 한양에 가서 먹게 될 터이니 걱정 말라」고 한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은즉 「서울을 당일치기하는 판에 어느 틈에 집에 와서 점심을 먹겠느냐?」고 하더니 쏜살같이 사립문을 나서는 것이다.

그러나 부인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저녁때가 되어 찬바람을 몰고 돌아온 안삽교는 이마에 땀이 축축이 나 있었다. 「정말 서울에 다녀 오신거요?」하니 「암」하는데 그의 손에는 부인에게 줄 신발 선물이 들려있다가 내미는 것이었다.

그의 축지법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는 걷는 것이 아니라 솟제 날아가는 것이었다.

언제나 상체를 꼳꼳이 세우고 두 다리의 놀림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어느 해 합천 해인사에서 큰 불이 났는데 이 때 그는 봉복사에 놀러와 주승과 이런 저런 얘

기를 하고 있었다. 「저런 불이 났군 큰불이 났어」하는 것이었다. 주승은 안삽교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라. 「어디서 불이 났다 말어요,」「이 근처와 다른 곳이에요」「합천 해인사 본당이 타 들어가고 있어요」

말이 끝나자마자 봉복사 뒤안으로 가더니 물 한 동이를 퍼서 남쪽을 향해 뿌리면서 무언가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는게 아닌가? 한참 후에 자리에 돌아온 그는 「이젠 진화가 되었다」고 했다.

이처럼 비관천지법(悲觀天地法)과 천리안(千里眼)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했다. 효성이 지극한 인간이기도 했던 그는 아버지가 눈동자에 항상 핏줄이 서서 고생을 하는데 누가 말하기를 뱀해에 난 분이라 호랑이 눈썹을 구해다가 태워서 바르면 즉효가 있을 것이라고 넌지시 알려 주었다.

물론 자기를 골려주기 위한 엉뚱한 소리 인줄 알면서도 그럴듯한 처방이라고 해서 당장 산으로 가 호랑이 눈썹을 뽑아 오는 그런 기인이었다.

만년에는 지방 농사개발과 산업부흥에 힘을 썼으므로 죽은 후에 부락민이 송덕비(頌德碑)를 세웠다고 하나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의 인생관은 선비라면 당행지도가 있어야 되며 어떤 곤궁한 처지라도 자득지책(自得之策)을 가지고 천지간에 부조리 없는 정도를 추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가 저술한 만록(漫錄)이 18편이 있다. 그의 만록을

통해 학문분야를 살펴보기로 하면 첫째 그의 학문은 인간성을 긍정하는 내용이고, 둘째로 인간의 치부를 저술했으며, 셋째로는 인간의 갈등을 묘사하고 있다.

한편 그의 북벌론은 민족의 자주의식과 주체의식을 강조하였으며 중국 주자학의 명분론을 부인하는 작품 활동을 펴기도 했다.

동박골의 유래

머나먼 옛날 어느 마을에 모자가 살고 있었다. 밭을 많이 가지고 있어 농사철이 되면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 땅에 흠뻑 땀을 쏟아야 했다. 어머니는 하나뿐인 아들을 소망으로 삼았다.

그 외아들이 어머니의 전부였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아들을 출세 시키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고 저녁으로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다.

이 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였으나 원래 배운 것이 없어 수많은 고초를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고통이야 이루 말할 수 있으랴? 하루 종일 밭과 태양과 씨름을 해야하고 밤에는 책과 씨름을 해야하는 그 아들의 생활은 너무나도 비참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기대하는 정성과 사랑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러던 어느날 시험 공

고가 붙어져 출세라는 꿈을 안고 어머니께 보답하기 위해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밭만 남겨 놓고 전부 팔아 노자 비용으로 준비했다.

처음 출생한 곳도 시골이요 자라난 곳도 시골이라 도시로 나가는 그 아들의 마음은 부풀었고 또한 무거운 짐이 걸려 있었다. 출세라는 이름 아래 도시로 나가는 아들은 도시의 거리속에 자아를 잃곤 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고대하던 그 출세라는 짐을 갖기 위해 시험을 치러야만 했고 밀려오는 인생의 유혹들을 참아야 했다.

드디어 시험날은 다가왔다. 그러나 그 수많은 경쟁자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 형설의 공은 무너지고 말았다. 실망이야 오죽했겠는가? 아들은 이 모양으로 집으로 향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워 여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

하지만 도시는 그의 굳은 결심의 마음을 버려두지는 않았다. 유혹의 쇠사슬에 메이게 했다.

한편 떠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어머니는 이제나 저제나 언제 돌아올 것인가를 손꼽아 고대하면서 기다림이 너무 지쳐 목을 빼고 보아도 발끝을 들어서 보아도 시원치 않아 집옆 커다란 뽕나무에 올라가 아들이 보이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다.

어느덧 세월은 가고 산골짜기의 냇물이 바다에 흐를 즈음 어머니의 주름살은 늘어만 갔다. 어느날 아들이 오

기만 기다리던 어머니가 평소처럼 뽕나무에 올라가셨다가 그만 떨어지셨다. 그 자리에서 어머니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세상을 비관하고 자기의 인생길을 찾지 못하던 아들이 같은 고향 사람을 만나 이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 옛날 어머니와 자연에서 뛰 놀던 옛 생각이 되살아나 자기의 위치가 비참함을 깨닫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자기의 죄가 너무 커 사죄하는 마음으로 어머니가 조금 남기고 가신 밭에 뽕나무를 전부 심었다.

그래서 뽕나무 상, 밭 전해서 “상전동”이라 불러 왔는데 지금은 뽕밭골이 변해 “동박골”로 전해 온다고 한다.

정평구의 비천

조선 13대 명종 시대에 강원도 횡성지방에 정평구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두뇌가 명석하고 인물이 출중하였다.

그가 사는 동네에는 밤마다 높은 산에서 호랑이가 내려와 사람과 가축을 물어가곤 했었는데 그의 총명한 지혜로써 그 호랑이를 잡아 동네 사람들의 걱정을 덜어 주기도 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불행이 닥쳐왔다.

아버지의 3년상을 지낸 후에 사랑하는 처와 자식, 그

리고 지금껏 자라온 횡성을 등지고 서울로 과거시험을 치르러 갔다.

그는 무과시험만을 치러 하다가 「어디 되나 안되나 문과에도 들어가 보자」하고 문과시험을 보려고 몇일 준비를 하여서 과거날 시험을 치렀더니 보기 좋게 낙방이 되었다.

그래서 다시 무과를 보아서 겨우 급제는 되었으나 선달이라는 초시 한가지 밖에 못 얻어 할일 없이 고향인 횡성으로 내려갈 때인데 그때 마침 전라도 우수사 이익기(全羅道 右水使 李億祺)가 전라도로 부임해 갈때에 「장원급제감 억울하게 한명 놓쳤다.」 「무과에도 아까운 장수 하나 잃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이 수사가 조사해 본 결과 정평구가 그 소문의 주인공임을 알고 그를 군관으로 천거해서 전라도 우수영으로 데리고 갔는데 이때는 제14대 선조시대로 정부형편이 소위 사색당파라는 붕당이 생겨 나라일 보다는 자기네 정권장악을 우선으로 여기고 정평구 같은 천재인 재사가 천하의 명문(名文)이라 할만한 글을 써 올렸고 뛰어난 무예를 지니고 있었으나 선달이란 초시 한자리밖에 못 얻고 떨어져 버렸던 것이다.

선조 25년에 청천벽력같은 왜란이 벌어졌으나 이때에 선조왕은 하도 뜻밖의 일이라 기가 막혀서 멍하니 공중을 쳐다보니 어찌할바를 모르는 중에 연달아 들어오는 패전비보에 걱정하고 있었다.

그때 전라도 우수사 이억기는 자기가 사랑하던 부하 정평구를 그의 재주와 무예를 보아 그를 잘되게 하기 위하여 육지로 보내고 진주 병사에게 청해서 정평구를 경상도 진주병영에 별군관으로 가 있게 하였다.

그런데 그곳 역시 아무런 시설도 계획도 없이 병사란 사람들은 날마다 술과 노름과 기생에 취하여 정사에는 소홀히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왜병이 밀려들어 부산 동래를 순식간에 쳐부수고 무인지경을 달리는 폭풍과도 같이 들어 밀며 계속 승전고를 울리고, 왜병들은 내기까지 하며 쳐 올라왔다.

정평구는 이때 그 소식을 들었고, 진주성 안팎은 발끈 뒤집혀서 뒤끓는 동안 왜병들은 벌써 남강을 건너게 되고 백성들이 채 피난 나갈 사이도 없이 성안으로 몰려들어 성문을 단단히 잠그고, 남아있던 화살을 모아 무기로 싸웠으나 왜적들의 조총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였다.

이 처럼 진주성은 수라장이 되어 버렸고 백성들은 꼼짝도 못하고 방속이나 헛간에서 찢찢매는 지경에 이르렀을 판인데 정평구 별군관이 별자리를 보고 여러가지로 생각한 끝에 「유능제강(柔能制剛)」이란 글귀를 몇번이고 되뇌이다가 갑자기 영을 내려 짚을 모아 들여서 단을 만들어 성 위에 쪽 세워놓고 그 뒤에서 활을 쏘라 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안되어 성문만 단단히 지키게 하고 방속에 들어 앉아서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던 정평구는

이렛 동안을 먹지 않고, 자지도 않고 연구한 결과가 신출귀몰한 「비차(飛車)」이었다.

정평구는 날으는 수레, 즉 이 비차를 타고 우리 백성들에게 가장 급한 식량이 왜군의 전선을 넘어 날라 들었다. 이렇게 되자 이제는 식량보다는 왜적을 물리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궁리끝에 「지포(地砲)」 즉 종이딱총이란 것을 만들어 사용키로 했다.

그는 비차에다가 지포와 돌을 실어 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성밖으로 날아다니며 왜군에게 지포를 던지며 돌을 던져 보았는데 지포 터지는 소리가 산악이 무너지는 듯 했고 돌덩이가 공중에서 떨어지는 통에 왜병들은 이것이 아마도 청천벽력인가 하고 혼비백산이 되어서 진주성을 떠나 남강 건너로 물러 갔었다.

그런데 정평구 별군관은 이렇게 한번 시험을 해본 즉 신통하게 왜적을 놀라게는 하였으나 비차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획 쏘살같이 갈만한 정도로 날아갈 뿐이었다.

그래서 정평구는 당장 급한 양곡 운반이라든지 이곳 형편을 서울에 알리는 파발을 띄웠으나 왜적을 물리칠 계책이 없어서 정평구는 천신만고로 식음을 전폐하고 연구해 낸 비차가 왜적들을 일시 놀라게는 하였으나 왜적의 진중을 내려다 보며 공중에서 돌면서 지포를 던지고 돌을 던져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또 머리를 짜낸 것이 지포와 돌을 싣고 공중을 선회하며 싸울 수 있는 비차이다.

마침내 지포와 돌의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놀라 달아난 왜군들은 정평구가 사용한 지포와 돌이 소리만 컸지 사람은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다시 진주성으로 쳐들어 왔다.

정평구는 분함을 참지 못해서 이를 악물고 비차에 지포와 돌을 싣고 공중에 올라가 성주위를 돌며 지포와 돌을 던졌으나 왜적들은 꿈쩍도 않고 총만 쏘는데 총알이 비같이 쏟아져 연기가 하늘을 가리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고전분투한 정평구는 조금도 상함이 없이 14일동안 싸우다가 15일째 되는 날은 지포가 다 떨어져 돌만 가지고 대항하다가 그의 운명이 그만이었는지 우리 나라의 운명이 이렇게 훌륭한 명장을 오래 쓰지 못할 운세였는지 왜적들의 총알에 그는 머리와 가슴을 맞고 39세의 젊은 나이로 장렬한 전사를 하고 말았다.

백성들은 정평구의 이러한 죽음에 땅을 치며 통곡하였고, 하늘도 서러웠던지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흐려지며 소낙비를 한바탕 뿌렸다.

또 진주성 문루 위에 달려 있던 종이 저절로 울렸으며 정평구가 거쳐하던 방의 대들보가 희한한 소리를 내며 부러졌다.

왜적들은 갑자기 성안이 곡성으로 요란하고 며칠동안 공중의 거물이 뜨지 않는 것을 보고 정평구가 죽었음을 알고 군사를 몰아 진주성을 둘러싸고 싸운 끝에 진주성

을 함락시켰다.

그후에 왜적들이 진주성을 떠나서 서울쪽을 향해 올라가다가 광주에 들렀을 때 성미가 급한 왜적들은 진주성에서의 혼이 난 것이 떠올라 광주성에 또 어떤 무서운 것이 출현할까 두려워서 동정만 보다가 정만복의 계교에 넘어가서 광주성이 무사하게 된 것이다.

대문동과 복성정의 유래

갑천면 중금리에는 자연부락명으로 대문동이라는 촌락이 있는데 동쪽과 북쪽으로는 나즈막한 동산과 웅장한 산이 둘러 섰고, 서쪽 남쪽으로는 마을 중 최고의 기름진 옥토의 전답은 산간이 평야를 이루고 있으며 평화스러운 농가 백여호가 모여서 자못 부촌을 자랑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곳 대문동은 지금으로부터 4백 40여년전 전국에서 손꼽히는 부자로서 그 부력을 천하에 떨치던 진양(陳央)이란 사람의 가대(家堡)였다.

대문동이라 부르는 곳은 조선 초엽의 거부 진양의 집 큰 대문이 있던 곳으로 지금도 대문동이라 주민들이 부르고 있다.

진양의 집중 본채는 대문으로부터 무려 7백미터나 떨어진 곳에 웅장하고 화려한 고루거각의 집이었고, 대문

과 본채 양편에는 노비 하인들이 사는 주택이 연결되어
울을 이루었고, 정원에는 화단과 연못이 축조되어 있어
봄에서 부터 가을까지 꽃과 녹음 속에서 연일 주연과 유
흥이 그칠 사이가 없었다고 한다.

진양은 성품이 온순했으며 재력이 있다하여 가난한
사람이나 타인을 억압하거나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남을
해치지도 않았다고 한다.

대문동으로부터 약 3km정도 떨어진 경치 좋은 곳에는
복성정이 있는데 이 곳이 진양의 별장이었다.

진양이 이 복성정에 머물며 유학(遊學)을 즐길때면
음식물을 본가로부터 운반하였다 하는데 노비 3백여명
이 노상에 한줄로 늘어서서 계주식으로 손에서 손으로
음식물을 운반하여 식사를 했다 하니 그 위세를 가히 짐
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 때 어느 정객이 진양의 재물을 탐하여 진양 진왕으
로 별명지어 세상에 퍼뜨렸다.

예나, 지금이나 소문처럼 빠른 것이 있겠는가, 국왕
(國王)에게 밀고하여 일국(一國)에 두왕이 없거늘 진양
이 평민으로서 왕의 행세를 하며 백성을 괴롭힌다고 아
뢰니 왕(王)이 대노하여 극형에 처하고 말았다.

그후 재물은 일순간에 없어지고 가문이 몰락되어 화
려하고 웅장했던 건물마저 퇴락 붕괴되어 한때의 호화
찬란했던 호강도 한낱 꿈에 지나지 않았다.

진양의 하인들이 떠나면서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를 건립하였는데 관리 소홀로 땅속에 매몰되었던 것이 부락민의 손에 의하여 복성정 부근에서 발굴되었으나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홍수에 유실되고 말았다.

옛날 진앙이 낚시를 즐겼다는 독지병도 부동마을 좌편 강가에 자리하고 있으나 지금은 수심이 매몰되고 하상이 높아져서 낚시할 사람도 없다.

더구나 현재 횡성댐 공사로 이 일대가 수몰되게 되어 옛모습의 흔적 조차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허명천장군과 용마무덤 (갑천)

허명천 장군은 홍천군 좌운 허씨 문중에 사람으로 힘만 장사가 아니라 학문에 능통하여 문무를 갖춘 장군이였다.

허명천장군이 강릉지방에서 관현으로 직무하다가 득병하여 사망하게 되자 자손들이 강릉에 가서 장군의 시신을 고향으로 모셔다가 장례를 치루게 되었다.

물론 좌운에 있는 선산에 지관을 들여 묘소를 잡고 산역을 모두 마쳐 놓고 다음날 동네 장정들이 모여 상여를 메게 되었다. 그런데 괴이한 일이 생겼다.

상여를 멘 젊은 장정들이 상여를 메고 일어서기는 했는데 발을 떼어 놓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십여명의 젊은 장정이 발을 떼면 상여 머리가 산역

을 마추어 놓은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힘이 쏠리고 그곳으로 상여가 장정들을 인도하는 꼴이 된 것이다.

상제들이 수 없이 절을 하며 산역한 묘소로 상여가 가도록 해도 모두 허사였다.

할 수 없이 상주와 장정 그리고 문중 사람들이 의논을 했다.

괴이한 일이니 상여를 메고 상여에 힘이 쏠리는 방향으로 따라가는데까지 가 보자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그 결과 허명천장군의 시신이 인도하는데로 좌운을 떠나 고개를 넘고 산을 넘어서 추동리까지 왔는데 상여가 추동리 앞산을 넘으려고 앞산에 올라서니 상여에 쏠리던 힘이 없어지고 천근같은 무거움을 느끼자 그 자리에 상여를 내려 놓고 한참 쉰 뒤에 장정들이 다시 상여를 들었으나 들리지 않아 그곳이 장군의 묘자리로 알고 그 앞산에다 장사를 지냈는데 이때 장군의 용마가 묘소를 찾아와서 죽었다.

이 부락 사람들은 장군의 묘소를 찾아와서 죽은 용마의 충성을 높이 여겨 허장군의 묘소앞에 장사를 지내고 이 무덤을 용마무덤이라 이름하였다.

그후 웃마을 전촌에는 힘센 역사인 전(筌)장군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허명천장군의 묘자리가 명당 자리임을 탐하여 그 자리를 빼앗고자 묘소 옆 우물에다가 고양이를 잡아 술항아리에 넣어서 고양이를 묻어 놓아 썩도록 했다.

몇달이 지나서 좌운 허씨 문중 사람들이 장군의 시신을 이장하고자 왔다.

마을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 물어 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어느날 밤 자손들이 잠을 자는데 장군이 나타나서 현몽하기를 내 머리 밑에서 썩은 냄새가 나서 견딜수가 없으니 나를 이장하되 시신이 인도를 할 것인즉 인도에 따라 이장하라고 현몽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중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장하러 왔다고 했다.

이후로 지금은 추동 앞산에는 묘소자리만 있을 뿐 아무런 유적이 없고 허명천 장군 묘소는 흥천 선산에 있고 사당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추동 앞산에는 용마 무덤만이 외롭게 남아 있을 뿐이다.

장독바위

갑천면 부동리에 전해오는 전설로 구전(口傳)에 의하면 연대와 성명을 알 수 없는 큰 부자가 부동(釜洞)장독바위가 있는 자리에서 살았다.

부자집 뒷산에는 효험이 좋은 약수가 있어서 각종 질병 환자들이 병을 치료하고자 봄부터 시작하여 음력 7월 8월까지 찾아 오는데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 당시만 해도 갑천 부동에는 거주하는 사람이 몇 호 밖에 되지 않았고 가난하여 침식을 할 수 없으니 자연 집이 크고 부자이니까 이 집으로만 사람들이 모여 들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부자집의 주부들과 하인들은 손님 접대하는 일로 하루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바쁘고 고달팠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봄부터 음력 7,8월까지 바쁨과 고달픔이 연일 계속되는 실정이니 주부들이 화가 나고 지쳐버렸다.

여름철 어느날 이 부자집 대문 앞에 탁발 스님이 찾아 와서 시주를 청했다.

큰 며느리가 나가서 스님을 맞이했다. 스님은 부처님께 공양할 시주를 청하러 왔다고 이야기 했다. 큰 며느리는 시주는 얼마든지 할 것이니 소원을 풀어 달라고 청했다.

스님은 큰 며느리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큰 며느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집 뒷편 산에 약수가 있는데 이 약수가 모든 질병에 효험이 좋다는 소문이 퍼져 봄부터 각 지방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음력 7,8월까지 손님에 문혀 편히 쉴 날이 없어 살수가 없으니 사람들이 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

스님은 큰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난처한 안색을 하며 방법은 있으나 가르쳐 드리기가 매우 난처한 것

이라고 했다.

그러나 큰 며느리는 스님에게 졸랐다. 많은 시주를 받은 스님은 큰 며느리에게 후회하지 않겠느냐고 다짐하여 물으니 큰 며느리는 후회하지 않겠다고 했다.

스님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가르쳐 주고는 가버렸다. 그 방법은 개를 잡아 피를 약수에 뿌리고 개 가죽을 약수 바위 위에 덮어 놓고 쌀 3되 3홉을 놓고 절을 하라고 했다.

이 부자집의 큰 며느리와 일하는 여인들도 모두 기뻐했다. 그러나 기회가 오지를 않았다.

사람이 오지 말아야 개를 잡고 피를 뿌리고 가죽을 약수 바위에 덮어 씌우고 절을 할 것인데 연일 사람이 많이 찾아왔다.

하루 이틀 날이 지나서 초가을이 되어 조석으로 날씨가 쌀쌀하게 되자 사람의 왕래가 뜸해졌다.

큰 며느리는 날을 받아 하인들에게 개를 잡으라고 시켰다. 큰 며느리는 개피를 약수에 뿌리고 개 가죽을 약수가 나오는 바위에 덮어 씌우고 쌀 3되 3홉을 담아 놓고 절을 하는데 첫번 절하고 두번 절하고 세번째 절을 하는데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요란하고 검은 구름이 용트림을 하고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면서 대줄기 같은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개울물이 늘며 때 아닌 음력 11월에 장마가 시작됐다. 산골짜마다 황토물이 쏟아져 내려와 강으로

모이니 부동강은 차서 독이 넘쳤다.

마침내 장마물은 이 부자 집을 흔적도 없이 쓸어가고 말았다. 곧 사람만 남기고 집과 모든 재산을 남김없이 쓸어간 것이다.

장마가 멈추고 물이 준 뒤에 부자집 큰 며느리는 자기 집이 있던 곳을 바라보니 고래등 같은 큰 집이 있던 자리는 강물이 흐르는 물길이 되어 물이 흐르고 그 물 가운데 우뚝 남아 있는 것은 장독대로 사용하던 장독바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많던 논과 밭은 다시는 농토로 가꿀 수 없는 강변 돌밭으로 변하고 강바닥이었던 곳은 농토로 개간할 수 있는 땅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 후 이 가족은 어디론가 떠나고 지금 남아 있는 장독 바위는 부동에서 삼거리를 건너가는 부동교에서 아래쪽으로 약 50m 떨어진 물속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 바위 위의 넓이는 2평 정도된다.

그러나 지금은 황성댐으로 인하여 수몰되면 흔적도 찾아 볼 수 없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오노소 (오늪소)

청일면 유동리 앞 개울에 깊은 소(沼)가 있는데 소 아래쪽에 농용수 보를 막아 본래의 소 형체는 없으나 수심

이 2m정도로

옛날 이 부근 벼들골 마을에 10대의 오누이가 양친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오누이간 서로 우애 좋고 효성이 지극하여 이 가정을 모두 부러워했다.

이 소 위쪽은 높은 벼랑이 있고 그 위에는 해마다 진달래꽃이 유난히도 곱게 피어 만발 하였다.

그런데 그 오누이 어머니가 진달래꽃을 몹시 좋아하므로 두 오누이는 험한 벼랑의 꽃을 위험을 무릅쓰고 꺾으려다 실족하여 여동생이 물에 빠지자 오빠가 구하려고 물에 뛰어 들어 모두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들의 죽음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효심을 기리기 위하여 오누이 소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편 다른 전설에 의하면 오누이가 소(牛)를 몰고 소(沼)를 지나는데 물속에서 이무기(큰 구렁이)가 나와 소를 몰고 물속으로 들어가 오누이는 끝까지 고삐를 놓지 않고 같이 물속으로 들어 갔다고도 한다.

해전암의 전설 (신대리)

해전암(海電庵)은 봉복사 바로 위에 있던 암자인데 서곡대사가 살면서 좌선하던 곳이다. 신라 진덕여왕 때에 네채의 암자를 건축하여 법화경(法華經)을 이루었을

때 난적으로 인하여 봉복사 본사를 소실한 후 다시 절을 재건하고자 목재를 마련하여 지금 탑이 있는 자리에 절을 건축하고자 쌓아 놓았다.

그런데 하루밤을 자고 나니 건축목재가 지금 봉복사가 있는 자리로 모두 옮겨져 있었다.

아직 목수가 다듬지도 않은 원목이었고 마르지도 않은 원목은 굵고 긴 노송인데 누가 하룻밤 사이에 그 많은 나무를 300여미터나 되는 자리에 옮겨 놓을 수 있겠는가? 서곡대사의神通력인 괴력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서곡대사는 방안에 앉아 좌선을 하면서도 천리밖 사정을 천기로 알아내는 괴력의 도승이었다.

그 봉복사를 재건하고자 터를 잡고 목재를 가져다 놓고 높은 곳에 지세를 짚어보니 그 터에 절을 지으면 해롭고 탑을 세우면 이로운 운세인 터이기 때문에 절터로 좋은 현재의 절자리로 목재를 옮기는데 서곡대사의神通력을 동원하여 잠깐 사이에 목재를 모두 옮겨 놓았다는 것이다.

그 후 서곡대사의 명에 따라 절을 지금의 자리에 짓고 먼저 절을 지으려고 터를 잡았던 자리에는 5층 석탑을 세우고 탑둔지라 이름하여 불렀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풍파로 인하여 5층이 파괴되고 지금은 3층만이 탑둔지를 지키고 있다.

학이 나온 산

청일면 유평리 앞산에는 옛부터 명당자리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곳이 있었다.

옛날 이곳에 안동 김씨가 상을 당하여 좋은 자리를 찾다가 마침내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 지관으로부터 천하명당이란 이야기를 들은 김씨 문중에서는 기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옛부터 우리 나라 사람들은 자손이 잘되고 안되는 것은 순전히 조상의 묘자리 때문이라 굳게 믿고 있던 그들에게 있어서 명당자리를 구한다는건 곧 복을 받는다는 것과 같이 생각하던 때라 천하명당에 자리를 쓰게 됐으니 그럴만도 했다. 그런데 산역을 하느라 많은 사람들이 요란을 떠는 마당에 난데없이 중년의 사내가 나타나더니 다짜고짜 더 이상 땅을 파면 큰일나니 그냥 그곳에 묻으라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별 미친 놈 다 보겠다는 듯이 일손을 멈추고 그 사내를 돌려다 봤다.

「절대 제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산을 쓰도록 하세요.」

「뭐요. 아니 지금 땅판 것이 고작 두자밖에 안되는데 래리도 시신이 들어갈 깊이는 파야될 것이 아니요.」

「글쎄. 더 이상 묻지는 말고 내 이야기대로 땅 파는 일을 중단하시오.」

「나 원참 아. 이 땅 속에 감추어 놓은 보물이라도 있오. 괜히 안달이구려.」

사람들은 행색이 초라한 이 사나이 이야기는 딴 곳에서나 알아 보라는 듯 계속 삽질과 곡괭이질을 해나갔다.

「여보쇼.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조금 더 파내려가면 넓적한 돌맹이가 나올텐데 거기까지만 파고 제발 더 이상은 파지 마세요.」

그 사나이의 목소리는 긴장 되었으며 떨리기까지 하였다.

'딱 딱' 곡괭이 끝에 정말 돌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은 참으로 희안한 일이라며 일손을 놓고 주인 얼굴을 바라 보았다.

「계속 파요. 그래 저 미친 녀석 같은 놈 말을 믿고 두 자도 안되는 깊이에도 시신을 모실 수 있단 말이요. 말도 안되는 소리요. 곡괭이로 내리쳐 돌을 깨어 보시오.」

그제서야 사람들은 땀을 뻘뻘 흘린 보람이 있었던지 한 시간이 못되어 돌이 딱 소릴 내며 갈라졌다. 그때였다. 갈라진 돌 틈으로 시뻘건 피가 팔팔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또한 그와 때를 같이하여 천지를 진동하는 요란한 소리가 울리며 돌이 있던 땅이 갈라지며 한마리의 커다란 학이 땅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 오르고 있었다. 학의 눈에서는 핏물에 내리 찍혀 시뻘건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런 일이 있을 후 이 안동 김씨 집안에는 한 대에 한 사람씩 애꾸눈이 생긴다고 한다.

무당바위

신대리1반 연천(여내골)에 크고 넓다란 바위가 있는데 옛날 이곳에서 마을의 잡귀를 쫓으려는 굿판이 벌어졌는데 한참 굿을 하던 무당이 도중에 잘못하여 그 바위에서 물로 떨어져 죽고 말았다.

그후 바위 꼭대기에 소나무 한그루가 생겼는데 매년 무당이 죽었던 때만 되면 이 마을 사람이 하나씩 소나무에 목을 매어 죽는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소나무를 베어내고 불을 질렀더니 그후에는 죽는 사람이 없어졌다고 한다.

버덩말 고인돌

유동2리 버덩말 한 가운데 고인돌이 있는데 여기에 얽힌 전설은 다음과 같다.

옛날부터 이곳에는 버덩말이란 마을이 있어 이 마을 가운데에 한평 정도되는 넓은 바위가 아래 위로 짝을 지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옛 무덤이었던 고인돌인줄

모르고 이것이 있으므로서 농사짓기가 불편하다고 생각하여 의논한 끝에 위의 바위를 치워 버렸다.

그랬더니 그날 이후부터 버덩말에 살고 있는 여자들이 모두 바람을 피워 행실이 나빠져 그 까닭을 지나가는 도인에게 물으니 고인돌을 치워 부정을 타서 그렇다는 말을 듣고 먼저의 돌을 찾아 옛 모습 그대로 고여 놓았더니 마을이 평온하여 졌다고 한다.

소경골

공근면 삼배리에 있는 산골짜기 이름으로써 소경의 애환과 효심이 깃든 유래를 지니고 있다.

이곳에는 옛날에 소경인 흘 시아버지와 소경인 흘며느리가 산등성이를 사이에 두고 별거하면서 살았다 한다.

별거이유는 시아버지가 장수를 하려면 며느리와 함께 살면 안된다고 며느리의 꿈에 흰수염이 달린 도사가 나타나서 현몽을 하였다.

꿈을 깬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보고 별거를 해야겠다고 말도 할 수 없고 하여 수일을 망설이던 끝에 시아버지 몰래 산등너머에 혼자서 집을 짓기로 하여 석달만에 방 한칸에 부엌 하나를 장님의 몸으로 지었다.

그리고는 낮에는 시아버지가 있는 곳에 와서 생활하고 잘때는 등너머의 집에 와서 잠을 자면서 살았다고 한다.

며느리는 그후에도 등너머에 집을 지었다는 말을 일체 앓고 비밀로 하였으며 시아버지도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며느리는 이같은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는 첫닭이 울어야 시아버지 곁을 떠나 등성을 넘어 자기가 지은 집에 와서 잠을 잤고 또 먼동이 트기전에 시아버지가 있는 집에 와서 시아버지를 모시곤 했다.

이렇게 하기를 십수년이나 했다니 지금의 생활로서는 상상키도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꿈의 현몽대로 시아버지는 80이 넘게 장수하였다고 한다.

장님이라서 모르고 지낸 시아버지의 슬픈사연과 시아버지를 속이며 장님며느리로서 겪어야 했을 힘든 고역 등 온갖 효성을 아끼지 앓고 정성을 다한 며느리의 생애를 각박한 현 세대가 본 받을 만한 일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살던 골짜기를 「큰소경골」이라 부르고 며느리가 살던 골짜기를 「작은 소경골」이라 부르고 있다.

호골바위

공근면 수백리 칠봉산의 3번째 골짜기에 있는 바위로써 옛날 이곳에 호랑이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바위에는 깊은 굴이 있는데 그 속에는 칠봉산을 지키는 신령의 영신인 금부처가 있었으며 그 금부처를 호랑이가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이 호랑이는 부처님을 지키는데만 열중했을 뿐 인명을 해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호랑이가 죽으면서 「으흥」하는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온 동리가 울렸으며 잠시 후 천둥과 번개가 치며 소나기가 퍼부었고 사냥군은 벼락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고 함께 다니던 물이꾼은 겁에 질려 혼비백산하여 하산하였다.

그후 누구도 그 굴 가까이 가지 못하여 수년을 지내는 동안 호랑이는 살이 썩고 뼈마저 썩었다 한다.

그래서 호랑이 뼈가 썩었다하여 虎骨바위라고 불리워졌으며 지금도 이 굴속에는 칠봉산 신령님의 영신인 금부처가 굴속에 있어 이 동리를 잘 보살피 주고 있다고 믿으며 그래서 이 마을에 부자가 많고 인재도 많이 난다 하여 굴속에 들어 가지도 않으며 가까이 가지도 않는다.

만일에 이곳에 가면 뇌성벽력이 칠것으로 믿고 가지 않는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귀웅소의 전설

공근면 오산리 2반 (金岩村- 옹기흙)앞개울 보(泚)안

에 있는 깊은沼를 말하는데 귀웅소 위에는 10m정도의 절벽이 있어 경관을 매혹시키는데 그 전설은 다음과 같다.

전설은 작두(斫) 개울(오산리와 매곡리 경계의 작은 개울), 馬山(오산리 반에 있는 능 정도의 산), 귀웅소, 절골로 연결되는 전설로 이곳의 어느 농부가 말을 먹이는데 그는 말을 무척 사랑했으며 말 또한 영특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한다.

말을 먹이는 방법은 馬山에 말을 매어 놓고 작두개울에서 여물을 썰어 귀웅소 부근에서 여물을 끓여 귀웅소에서 말에게 여물을 주는 일을 수년간이나 하였다 한다.

그런데 하루는 절골(사찰명 불명)에 있는 스님이 말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 농부는 스님에게 말을 갖다 주려고 귀웅소 부근에서 여물을 먹이고 절골로 말을 끌고 나서려는데 천둥 번개가 치면서 「광」하는 소리와 함께 물줄기가 하늘로 치솟는데 큰 구렁이가 물줄기를 따라 하늘로 올라가다가 땅에 떨어져 죽더라는 것이다.

이 광경을 본 말도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다 한다.

이 광경을 보고 뒤를 돌아다 보니 「귀웅」이 있던 자리는 깊은沼가 되어 물이 흘러 들어 왔다. 그래서 이곳을 「귀웅소」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곳의 물깊이가 3m정도 나 된다.

그 큰 구렁이는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갈 날을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구렁이가 용이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성급하였으나 말이 하루에도 몇번씩 그 말이 밝아 주기 때문에 못나오고 있었으며 절골의 스님은 그 구렁이가 용이 되면 성질이 나빠 온갖 만물을 죽이는 못된 조화를 부릴 것으로 예측하고 용이되기 사흘전에 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하였던 것이다.

원래 스님은 말을 타지 않는 것인데 이 마을을 위하여 그같이 말을 빌려 달라고 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그 구렁이는 사흘만 참을 수 있게 말이 밝아 주었으면 용이되어 하늘로 올라갔을 것을 스님 때문에 못 올라가서 그 원혼이 맺혀 지금까지도 이 개울에는 3년에 1명씩 익사하는데 최근에도 익사하였다 하며 주민들은 전설보다는 3년에 1명씩 익사자가 발생하는데 더 큰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 개울에서 익사한 사람은 수십명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풍수설에 의하면 오산리를 湯馬飯水 형국이라 하는데 이 말은 「목 마른 말이 물을 찾는다.」는 뜻이라고 한다.

절골이라 부르게 된 전설

공근면 오산리 1반 뒷골짜기를 부르는 산골짜기인데 절골이라 부르는 내력은 다음과 같다.

지금부터 백여년전으로 추측되는데 이곳에 사는 도령과 임씨성을 가진 여인이 약혼을 하여 잔칫날을 받아 놓고 기다리던 중에 신랑감이 급사하였다 한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신부감인 임여인은 수일을 두고 통곡하며 지내다가 잔칫날이 다가오자 아버지만 모시고 신랑집으로 갔다.

이때 그 임여인의 아버지는 약혼만 한 사이였으니 파혼으로 여기고 다시 다른 곳으로 정혼하여 혼인하고자 딸을 설득시켰으나 딸인 임여인은 약혼하였다가 신랑이 비명에 갔지만 어떻게 다른 곳으로 혼인하느냐면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한다.

부모의 마음도 신랑 얼굴 한번 못 본 딸이 과부 아닌 청상과부로 일생을 마칠 것을 생각하니 딸의 신세가 불쌍하여 당시의 양반집 가풍으로서는 말하기 어려운 말을 하여 딸을 타일렀으나 딸은 극구 반대하여 약혼자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여 할 수 없이 딸을 데리고 갔던 것이다.

임여인은 시부모님들도 반가워하지 않는 눈치였으나 간청한 끝에 신랑의 옷을 걸어 놓고 혼례를 올리고 신랑의 묘옆에 묘막을 지어 놓고 3년간 시묘를 한후에 시택으로 돌아와 평생을 살다 죽었다 한다.

후일 사람들은 이 여인의 굳은 절개를 기리기 위해 이 마을을 절골이라 불렀다 한다.

그러나 지금 그 후손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으며

그 임여인의 무덤은 묵어서 소나무 등 잡목이 무성할 뿐
이며 묘의 형체만 있을 뿐이다.

용바위 전설

공근면 부창리에 위치한 바위로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부창리 湫안에 위치한 큰 바위로써 옛날 이곳에 용이
 살다가 승천하였다는 전설로 이곳 바위밑 깊은 물에 숨
 어 살던 용이 있었는데 이 용은 하늘에서 계시 받기를
 紫芝峰의 붉은 단풍이 이 곳에 비추거든 하늘로 올라 오
 라고 했다 한다.

이 용은 물속에서 紫芝峰을 매일 같이 바라보며 단풍
 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紫芝峰의 거리가 멀어서 이 곳에
 비추려면 나무가 어서 자라야겠는데 나무가 자라지 않
 더라는 것이다.

수년을 지난 어느해 가을 용은 참다 못하여 뒷산의 토
 끼들을 불러다 놓고 내가 어서 용이 되어 승천하려고 하
 니 너희들은 紫芝峰의 단풍나무를 입으로 잘라 놓으면
 찌꼬리를 시켜 참나무에 매어 달라고 하겠다고 으름장
 을 놓았다고 한다.

토끼와 찌꼬리는 겁에 질려 용이 시키는대로 단풍나
 무를 잘라서 참나무에 매달어 놓으니 붉은 단풍이 용바

위 쪽으로 비쳤다.

이 때 용은 때를 놓치지 않을세라 물을 박차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후 紫芝峰에는 단풍나무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용바위 밑은 깊은沼가 되어 명주꾸러미 하나가 다 풀릴 정도의沼였으나 이제는 많이 메꾸어졌다고 한다.

인삼과 효자에 얽힌 전설

매곡리와 청곡리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점에 위치한 독재봉에는 효행이 지극한 효자만이 캐 수 있는 인삼이 자생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사람도 그 인삼을 캐 사람이 없어 많은 사람들에게 벽찬 꿈과 기대를 부풀게 하고 있다.

일설에 의하면 독재봉에 올라가서 그 밑으로 흐르는 금계천의 구비소(깊이 2m~3m) 깊은 물속을 내려다 보면 인삼의 싹이 역력하게 나타나지만 곧바로 돌아서서 그 지점을 찾아 살살이 뒤져도 인삼을 발견한 일은 한번도 없어 자신의 불효를 한탄하며 산을 내려온 일이 여러번 있었다고 한다.

효행이 지극한 사람에게만 그 인삼이 발견되어 캐 수 있다는 이 전설은 백가지 행동중에 효행이 으뜸임을 깨닫게 하려는 옛성현들의 말씀이 전해 내려 오고 있는 것이라고 추측된다.

장자터에 얽힌 전설

지금부터 약 200년전만해도 공근면 학담1리 소재 면 종합청사가 들어선 주택가와 공근중학교 앞들은 강이 굽이쳐 흐른 자리였다고 한다.

깊은 소(沼)가 여러 군데 있었고 강의 서편 언덕은 경치가 아름답고 양지라 여러 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특히 한 무명의 작은 동산(늑박골산이라고 불려지기도 했다고 하나 확실한 명칭은 없음)을 뒤로하고 남동향으로 자리잡은 대궐같은 큰 기와집이 한채 우뚝 서 있어 누가 보아도 권세가 당당한 대가집임을 인정할 만큼 큰집이었다고 한다.

이 집은 대대로 벼슬길을 외면하고 살았으나 그 재력이 막강하여 세도 있는 부자로서 명성을 떨치고 살았는데 언제 그 집이 헐렸는지 그 터도 남아 있지 않고 그 후 예도 없고 그들에 대해 바로 아는 사람도 없이 인적사항이나 부의 정도도 모르는채 그 집이 있었다는 자리(장자터)만이 구전되어 올 뿐이다.

지금도 학담1리 3반에 자리잡은 공근 감리교회 옆 조응연씨 소유 밭에서는 옛 기왓장이 많이 출토되고 있어 그 부자의 존재를 실감케 하고 있다.

성바위 전설

공근면 학담리 성골(城谷) 부락 뒷산에 있는 큰 바위로써 춘원 국도변인 도곡리에서도 보일만큼 큰 바위다.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이 바위 꼭대기에는 명석 3장 정도 깔 수 있는 넓은 곳이 있는데 이 곳이 젊은 여인네들의 놀이터였다고 한다.

이 바위의 둘레에는 절벽으로 되어 있으며 소나무가 바위 틈에 여기 저기 나 있고 그 바위 아래는 샘물이 있어 등산객들이 목을 축일 수도 있다.

이곳은 매년 3월 3일(음력)에 부근 부인네들이 모여 윷놀이를 했는데 「3字」를 연유한 것이 그 특징이다.

명석 3매를 깔고 윷놀이를 하여 먼저 「석(3)」동을 내는 순서로 바위에서 작은 돌 3개를 주워 성바위 아래에 있는 작은 바위(아들 바위)를 맞히면 그 해에 득남을 하거나 아기를 잉태하는데 먼저 「석」동을 내고도 아들 바위를 맞히지 못하면 여아를 낳는다고 한다.

그래서 「석동」을 내고 돌을 주워 아들 바위를 맞힐 때의 그 정성은 우리 사회의 남아 선호 사상을 짐작 할 수 있고 어떤 여인은 온 몸을 부들 부들 떨면서도 정성을 다 해 돌을 던졌다는 것이다.

이 때 돌을 던지기전에 어떤 여인은 무릎을 꿇고 손 모아 아들 바위가 맞춰지게 기원을 하는데 한나절을 기도하여 저녁때 돌을 던져 맞췄다는 얘기도 전하여 오고

있다.

여기서 놀던 옷은 성바위 아래층 굴속에 넣어 두었다가 이듬해에 다시 활용하는데 옷을 꺼낼때는 모인 사람 중에서 가장 최근에 결혼한 부인이 옷을 꺼내어 아래에 있는 샘물에서 깨끗이 씻어 사용하였다 한다.

이 날 옷놀이를 주관하는 사람은 23세, 33세, 43세의 순으로 하는데 같은 나이일 경우는 생일달이 늦은 순서 즉 나이가 적은 순서였다고 한다.

「3字」를 주로 하는 이유는 옛날 우리 사회에서는 아들 셋을 얻기를 원하였다는데서 연유된 것이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전설만 있을 뿐 옷놀이 행사는 없고 혹시 남몰래 아들을 원하는 여인네가 몰래 와서 돌을 던져 볼지도 모른다는 추측만 있을 뿐이다.

아갈바위 전설

행정리 뒷산인 감투봉(630m) 중턱의 창봉리쪽에 있는 큰 바위인데 그 모양이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이라 하여 아갈바위라고 한다 .

이 곳 주민들은 옛날부터 행정리를 지키는 바위라고 생각하였는데 바위가 내려다 보고 있는 창봉리는 부자가 나지 않는다는 어느 지관의 말이 있을 다음 부터는 창봉리 마을 사람들이 바위 입모양의 굴에

돌을 넣어 채웠으나 굴러 떨어지곤 하였다.

6.25후에 창봉리 마을 사람들이 이 바위에 폭약을 터뜨려 입모양을 손상시켰는데 그 후 창봉리(재건너)는 생활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했으나 행정리는 예전처럼 잘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장수바위

어둔리에 있는 70여평의 넓은 바위로 그결에 깨끗한 물이 흘러 놀이 또는 휴식에 좋은 장소가 되고 있다.

옛날 이 바위에서 장수가 나타나 놀았다고 하며 그 장수는 얼마나 힘이 센지 짐채만한 바위를 들 수 있고 아릅드리 나무를 뽑았다 한다.

뿔바위 (어둔리)

장수바위에서 500m쯤 떨어진 곳에 뿔바위가 있는데 옛날에 장수바위에서 난 장수가 3m 가량이나 되는 양쪽 바위를 뛰어 건넜다고 한다.

이 장수바위는 그 높이가 0.7m나 되며 현재도 장수발자욱이 남아 있다. 맑은 물가의 넓은 바위가 있어서 유원지로서 좋은 장소이다.

칼바위

공근면 초원리 안입벌에 있는 바위로서 옛날에 장수가 훈련을 하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장수는 말을 타거나 활을 쏘며 훈련하는 다른 장수들과는 달리 칼을 들고 훈련하였다는 특이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또한 그 옆의 넓적한 바위를 뿔바위라 부른다.

뿔바위 (창봉리)

창봉리 뒷산인 오음산의 사기접골 골짜기에 있는 바위로서 조선시대때 길림성을 정벌하고 돌아오는 길에 오음산에 올라가 큰 바위를 흔들었다고 하는데 이 때에 흔들었다는 흔들바위가 있고 이 바위에서 뛰면서 쉬어갔다는 쉼 바위가 있다.

막골의 전설

공근면 덕촌리 3반의 회진이라는 부락 골짜기에 신라시대에 퇴전사라는 절이 있었으나 소실되었다고 하며 그 연대는 미상이나 6.25사변직후에는 이 곳 주민들이 나무하러 갔다가 돌부처를 발견하여 집으로 옮겨

왔는데 그후 초원리 백운암 승려의 꿈에 현몽하기를 「덕촌리 회전에 가면 석불이 있으니 석불을 가져다 백운암에 정성껏 모시면 이 암자가 번창할 것이다.」라 하였다.

하도 신기하고 명확한 현몽이라 승려는 이 곳에 와서 수소문하여 그 석불을 구하여 백운암에 잘 모셨다는 전설이 있다.

점말의 유래

공근면 어둔리 2반을 점말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이 곳에 많이 살고 있는 태(太)씨들이 인근의 흥천에 있는 두촌 철광에서 원석을 소 구르마에 싣고 이 곳에 와서 그 원석을 숯불에 녹인 후 철을 뽑아 놓기구 연장 보습을 만들어 팔았다고 하는 전설에서 점말이 되었다.

두촌에서 원석을 싣고 오는데는 6마리 소가 운반하였으며 제련과정은 6명이 한 조가 되어 풀무를 교대로 하여 수시간동안 해서 생산 제품 보습과 가마솥을 주로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지금부터 100여년전에 시작되어 일제 말기에 없어 졌다는 전설이 있다.

송장골의 전설

공근면 매곡리 산 45번지 일대의 골짜기를 송장골이라 부르는데 그 전설은 그리 오래 되지 않은 민족 분단의 비극의 실화로써 후대의 사람들이 잊을 수 없는 전설로 간직하게 되었기에 수록한다.

6.25동란시에 이곳 매곡리는 격전지로 밀고 밀리는, 죽고 죽이는 치열한 전쟁터였다. 특히 1.4후퇴시에는 국군과 북괴군이 매곡리를 사이에 두고 공방전을 펼쳤는데 국군은 매곡리 앞산과 벽학산에 진을 치고 북괴군은 매곡리 뒷산에 진을 치고 피차간에 밀고 밀리는 싸움이 수십차례 진행되었다.

국군은 이 곳이 당시 최후의 방어선으로 물러 설 수 없었고 북괴군은 이 선만 뚫으면 횡성 원주까지 단숨에 진격할 수 있는 요새지이기 때문에 한치의 양보도 없는 싸움이였다.

낮에는 국군과 유엔군이 밤에는 북괴군과 중공군이 매곡리를 점령하기를 수차례 마침내 매곡리 뒷산을 포병 전방 부대의 지원으로 점령하여 승리로 끝냈는데 그 당시 포성과 격전의 처절한 모습을 피난도 가지 못한채 숨어서 지켜 본 노인들의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다.

9.28 수복후 반역자로 체포된 공산군 50여명은 국군이 전선줄로 묶어 이 곳으로 끌고 와서 처형하고 매곡청방대원들이 이 시체를 묻었으며 국군의 시체는 계속

찾아 갔으나 공산군의 시체는 모두 이 곳에 묻었다. 그래서 이 골짜기를 송장골이라 전해지고 있다.

벽학산에 얽힌 전설

학담 2리 앞 산을 벽학산(표고332m)이라 부르는데 이 산은 춘원 국도에서 보면 절벽이 아름다우며 봄철의 진달래꽃을 비롯한 갖가지 꽃들이 절경을 이룬다.

특히 여름철 장마때에는 우거진 녹음 사이로 바위틈에서 떨어지는 폭포가 여러곳에 있어 또한 장관을 이루며 가을 단풍이 아름답다.

산의 유래는 옛날 이 산의 바위 틈에서 학이 날아갔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리고 전해 오는 이야기로는 이 산의 돌이 자연적으로 구르면 마을에 흉사가 생긴다고 한다. 벽학산 밑으로 국도가 있으며 이 도로는 장지고개에서 다리골을 거쳐 벽학산 밑을 지나 학담 2리로 통과했다.

이 국도로 원님의 행차가 지날 때 마침 벽학산에서 나무를 하던 나뭇군이 원에게 옥설을 퍼부었고 옥을 먹은 원은 역졸에게 나뭇군을 잡아 오라고 명령하였으나 나뭇군이 굴리는 돌에 맞아 죽은 일이 생겼다. 그 후 원은 이 곳 국도를 폐도하고 지금의 위치로 이 국도를 닦았다고 전해진다.

할미소에 얽힌 전설

공근면 창봉리 5반 앞개울에 있는 소(沼)인데 여기에 얽힌 사연은 다음과 같다.

이곳에 살던 한 할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어느 여름날 개울에 목욕을 시켜주려고 나왔다. 손자의 목욕을 시킨 후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는데 어디서 셋바람 소리가 췌하며 나기에 살펴보니 개울 건너 저쪽에서 뱀꼬리가 산을 돌아 오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손자와 같이 겁에 질려 일어나서 오려고 하니 할머니와 손자는 점점 물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데서 있는 곳이 구렁이의 등허리였다고 한다.

이에 놀란 할머니는 손자를 밖으로 집어 던져 살았으나 할머니는 이 깊은 물에 빠져 죽었다하여 「할미소」라고 불려왔다고 전하고 있다.

선강정(仙降亭)

공근면(公根面) 上洞里 1반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풍치가 아름답고 아래는 맑은 냇물이 굽이치는 깊은 소(沼)가 있었으며 이곳에 서정(書亭)을 지어 한문(漢文)을 공부하며 이 고장 선비들이 모여 시를 읊던 곳인데, 그 유래는 다음과 같다.

조선(朝鮮) 숙종 때 左丞旨 柳宜昌의 손자 柳秀千은 영특하고 재주가 총명하여 여덟살에 소학(小學)을 읽었으며 관직으로는 司馬였다. 어릴때부터 책읽기를 즐긴 유수천은 밤낮없이 공부하여 진사가 된 후 더욱 그 재능을 보여 문장이 뛰어나고 성리학에 몰두하던중 숙종 23년(1697)이곳으로 낙향하여 산수를 벗삼아 생활하며 훈도(訓導)를 하면서 여름철 서정(書亭)을 짓고 그 이름을 선강정(仙降亭)이라 하였다.

훈학을 하면서 산에 올라가 나물을 뜯고 여름이면 이곳에서 낚시로 소요(逍遙)하며 건너편 자지봉(紫芝峰) 단풍을 보면서 앞 냇물을 金溪川이라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폐허가 되어 선강정(仙降亭)은 볼 수 없으나 그 흔적과 터는 지금도 남아 있다.

그 후 철종 때 시인 金笠 즉 김삿갓이 이 곳을 찾아 시한수를 지어 놓고 갔다고 한다.

충견비

공근면(公根面) 어둔리(於屯里) 작은 삼마치 고개에 있던 것으로서 그 유래는 다음과 같다.

조선(朝鮮) 末期의 일로서 이 곳에 살던 金某(光山金氏)씨가 고개 너머 月雲리에 갔다 오다가 술에 만취되어

작은 삼마치 고개를 집에서 기르는 개와 같이 넘어 오던 중 길가에서 잠이 들었다고 한다.

개는 주인 옆에서 주인이 술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있던 중에 산 건너편에서 호랑이가 나타나 주인을 잡아 먹으려고 하자 이때 愛犬이 덤벼들어 싸운 끝에 호랑이는 달아나 버렸고 개는 주인 곁에서 호랑이의 털을 한 입 물고서 죽어 있었다고 한다.

얼마를 자다 깨어난 주인은 이 엄청난 광경을 보고는 죽은 개를 껴안고 울다가 자신을 지키다 대신 죽은 개를 위해 어떤 일을 할까 자손들과 의견을 나눈 끝에 개에게 은혜를 갚는 길로 그 자리에 무덤을 만들고 (높이 120cm, 너비 40cm, 두께 9cm) 忠犬碑라는 비석을 세웠다.

원탑

공근면 초원2리에 上下垔란 마을 입구에 있는 것으로, 둘레가 10cm, 높이가 3m되는 촛대 모양이며 부락민의 정성이 담긴 탑으로서 부락민이 직접 쌓았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이 탑은 1880년에 부락민의 公議에 의하여 쌓아 졌으며 이 탑을 쌓은 후 부터는 이 부락이 부자가 되었으며 매년 塔神祭를 한번씩 지내며 주민의 안녕과 무고를 빌

었으나 해방 이후부터는 탐신제가 없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이같은 탐을 주민들이 세우게 된 까닭은 다음과 같다.

100여년 전에 이 부락의 홍씨 집안 부인의 제의에 의해서인데, 그 여인은 현몽에 의한 啓示였다고 전한다.

그 여인이 홍氏 집안으로 시집오기 전에는 이 마을이 이토록 가난한 줄은 몰랐다. 전하는 말로는 상하터는 굶기를 밥먹듯 하는 곳이지만, 무던한 곳이라고만 들었다.

그러나 이런 소문이 한번 퍼지게 되면 모두들 귀하게 길러 온 딸을 주지 않을 뿐더러 비록 자기는 가난하게 살지라도 딸은 그런 가난한 고장으로 보내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이다.

이러한 마음에 사람들은 모두가 부자 행세를 하고 싶었다.

晴日面에서 시집 온 홍씨댁 며느리는 어려서 윤택한 가정에서 자랐고 시댁이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줄은 몰랐다. 시집 온지 사흘만에 밥 대신 죽을 끓여야 하는 신세가 된것은 믿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살림 형편을 친정에서 알면 얼마나 근심할 것인가를 늘 근심하였다.

그러나 이 마을 사람들은 가난에 쪼들어 살면서도 이상하리 만큼 명랑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했다.

새댁은 이런 사람들이 왜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지 의심이 생겼다. 조용한 잠자리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그 원

인을 물어 보았다.

남편은 이곳은 땅도 나쁘지 않은데 해마다 풍수의 피해가 많다는 대답이었다. 그러니 이것은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고 그저 時運에 맡기거나 자연의 눈치나 볼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때 새댁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럼 이곳을 모두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될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나 이곳은 조상들이 수 십대를 살아 오고 조상의 뼈가 묻힌 곳이라 떠나다니 안될 말이었다. 그날밤 남편은 깊은 잠에 들었는데 새댁은 웬일인지 잠이 오지 않았다.

겨우 자정이 넘어서야 잠이 들었는데 꿈에 백발 노인이 나타나서 새댁을 보고 빙그레 웃으며, 「시집 온지 몇 일이 못돼 살아갈 걱정 뿐인가, 상하대 마을이 왜 가난하게 사는가 하면, 그건 풍수설로 보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지도 않지.」

새댁은 노인의 옷자락에 매달려 그 방법이 무엇이나고 물었다.

노인은 말 대신 고개만 저었다. 쉽사리 가르쳐 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새댁은 만일 그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노인을 못 떠나게 하겠다고 옷자락을 붙들고 울면서 애걸을 하였다.

옷자락을 놓으라니 못간다느니 얼마를 승갱이를 하다가 노인은 할 수 없다는 듯이, 「그러면 가르쳐 주지」하

면서, 「상하터로 들어오는 입구가 너무 허전해서 못 사는 것이니 입구에 둥근 돌담을 양편에 세워 놓으면 틀림 없이 그해부터는 풍년이 들어 부자마을이 될 것이요」하는 것이었다.

꿈에서 깨어난 새댁은 흠뻑 땀이 젖어 있었다. 노인을 붙들어 대느라 애를 썼기 때문이었다.

새댁은 남편을 깨워 꿈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남편은 이장인 자기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부자집 만며느리처럼 복스럽게 생긴 새댁의 꿈 이야기는 당장 마을 회의에 붙여져 그날부터 온 주민이 돌을 날라다 둥근 돌담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원담이 세워진 연유로, 조각한 것이 없이 그저 주민의 노력과 정성으로 돌 한개 한개가 쌓여져 無刻無銘한 둥근 담이 되었고 그해부터 풍수해가 없는 부자마을이 되었다는 유래를 가지고 있다.

창암의 전설

서원면(書院面) 창촌리(倉村里)에 있는 창바위는 글자 그대로 바위에 뚫린 구멍이 마치 창문처럼 보인다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또 그 바위에 새긴 창암(窓岩)이란 두글자 역시 오랜세월 풍화로 지워지고 없으나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진다.

고려 말엽 창촌마을에는 김복동이란 더부살이 총각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비록 남의 집에 매인 일군이었으나 마음이 어질고 부지런해서 누구에게나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마을에서는 법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했다. 이 총각은 한가지 소원이 있었다. 어떻게 하든지 자수성가해서 큰 부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인간으로는 태어난 보람이 없을것 같아서였다. 누구는 학문을 많이 배워 과거에 급제하면 큰 벼슬아치가 될수 있다고 하지만 자기에게는 그런 능력도 재간도 없으니 슬픈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생긴 용모가 잘나지 못했으니 그 또한 한이 되었다.

총각은 조실부모한고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항상 관세음보살처럼 동경하는 버릇이 있었다. 그는 무슨일을 할 때나 어머니를 부르는데 그 소리는 마치 염불과도 같았다. 아니 어떤 비원의 주문과도 같았다.

그날밤도 총각은 잠이 들지 않은채 주문만 외고 있었다.

창문에 달빛이 흰히 비쳤다.

총각은 뒤척이다가 깜박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하얀 소복을 한 생시에 보고싶던 어머니를 만났다. 그렇게도 보고 싶던 어머니였건만 웬일인지 말이 없으시다. 어머니는 말없이 총각을 이끌고 개울 건너 앞산길을 한참 오르더니 큰 바위가 있는 곳을 손을 들어 가르키고서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총각이 눈을 떴다. 꿈이었다. 꿈치고는 이상해서 날이 새기가 바쁘게 어머니가 나타났던 바위를 찾아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바위인데 무슨 까닭인가 하여 바위를 계속 오르니 꼭 창문처럼 생긴 구멍이 난 곳을 발견했다.

그 안을 들여다보니 눈이 부시도록 찬란히 빛나는 것이 덩그렇게 놓여 있었다. 그것은 황금항아리였다.

평생을 부자로 먹고 살수 있는 복이 잡힌 것이라고 소문이 널리 퍼져 관가에도 알려 졌지만 그것은 하늘에서 내린 복이요. 황재이니 아무도 닦할수 없다하여 총각은 하루 아침에 거부가 된 것이다. 그는 금항아리의 출현을 기념하기 위하여 바위에다 창암이란 큰 글자를 새겨 놓았다.

시계바위

書院面 玉溪里 마을 앞 냇가에 있는 바위로서 이 바위가 오전에는 앞으로 넘어지고, 정오가 되면 바로 일어선다고 하여 이 지방 사람들은 농사일을 하다가 이 바위를 보고 시간을 짐작 한다고 한다.

이 바위가 움직이는 것과 같이 보이는 것은 바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반음지에 있는 바위로서 햇빛이 바위에 비치지 않았을때는 앞으로 넘어져 보이고 정오가

되어 바위에 햇빛이 비치면 일어서 보인다고 하여 시계 바위라고도 한다.

선계마을에 얽힌 전설

횡성군 강림면 강림1리 2반에 산자수명하여 경치가 절경인 이곳에 맑은물이 흐르는 깊은 소(沼)변에 넓은 바위가 있으니 이 바위가 옛날에 신선들이 내려와 풍류를 즐겼다고 하며 마귀들이 선남선녀가 사랑하는 것을 부러워한 나머지 그 두남녀를 몰살시키니 천추의 한을 품은 남녀는 바위로 변화였고 그 자리에 암자를 지어 영혼을 추앙하였으며 두마리의 호랑이가 절터를 지키다 그 절마저 없어지자 호랑이도 죽어 바위로 변했다는 전설로서 남자는 거북바위가 되고 여자는 누워있는 형상으로 바위에 정암(고요히 누워 별을 바라본다는 뜻)이라고 씌여진 바위 큰호랑이, 작은호랑이 바위라는 명칭을 가진 바위가 지금도 남아있다.

그뒤 이마을 노인 한분이 그 바위를 깨려고하다 피를 토하고 죽었으며 이 바위를 없애려고 하면 꿈에 신선이 나타나며 만류하므로 이때부터 이마을의 이름을 선계(신선이 이곳에서 헤어졌다는 뜻)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나 용 소

이곳 각림사(覺林寺)가 있던 자리로부터 이웃에 치악산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개울중에 나용소(羅翁沼)란 큰 못이 있었다.

이 소(沼)는 고려말에 왕사(王師)였던 신돈에 버금가는 나용(羅翁)이란 고승이 이곳에 와서 지형을 살핀 후 이곳에 지팡이를 꽂고 절을 짓고 치수를 하면 농토가 개발될 것이라고 역설하고 각림사를 지은 후 보를 막아 인공소(人工沼)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나용소(羅翁沼)이다.

이 나용소의 시공으로 이곳 농경지가 개간되었으며 이 나용소는 나라에 큰 변이 있으면 흙물이 흐르리라는 예언을 했는데 임진왜란과 6·25사변때 흙물이 흘러나왔다고 전하고 있다.

횡지암

강림2리에 있는 태종대로 향하는 길가에 큰 바위가 있는데 운곡 원천석(耘谷 元天錫)선생이 여기에 앉아서 제자인 태종(太宗)을 잘못 가르쳐 왕자(王子)의 난을 일으켰음을 한탄하였다 하여 즉 빗(가로 橫) 가르켰다(指)고 한(恨)했다 하여 횡지암(橫指岩)이라 불렀다고 한다.

변암(부곡리)

변암(弁岩)은 옛날에 운곡 원천석(耘谷 元天錫)선생이 은둔생활을 하였다고 전하는 글바위로서 강림리 뒷산에 있는데 변암이란 생긴 모습이 고갈처럼 생겼다고 하여 고갈 변(弁)자를 써서 변암이라 한다.

노고소(강림2리)

태종(太宗)이 스승 운곡 원천석을 찾아 왔을때 스승의 행방을 묻는 태종에게 한 노파가 원천석 선생의 부탁을 받고 그가 간 반대 방향으로 가르쳐 주므로서 태종은 스승을 찾아보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었다.

이에 그 노파는 임금을 속인 죄책감으로 고심하다가 마을 앞의 깊은 소에 빠져 죽었다. 그래서 노파가 빠져 죽은 소(沼)라하여 노고소(老姑沼)란 이름이 붙여졌다.

태종대의 바로 아래에 있다.

説話篇

謝 誌

설화를 제보해 주신 분

- 이용호(남 80세 : 강림면 부곡리)
- 김선기(남 81세 : 강림면 부곡리)
- 박부호(남 73세 : 강림면 부곡리)
- 차인표(남 61세 : 강림면 부곡2리)
- 김종선(남 58세 : 둔내면 화동2리)
- 김원규(남 68세 : 둔내면 우용리)
- 김성수(남 69세 : 둔내면 우용리)
- 이철호(남 47세 : 둔내면 현천4리)
- 최유복(여 61세 : 둔내면 현천4리)
- 한석순(여 82세 : 둔내면 현천4리)
- 한삼복(여 60세 : 둔내면 조항2리)
- 이윤희(남 71세 : 안흥면 소사1리)
- 홍기훈(남 51세 : 안흥면 소사2리)
- 김구주(남 91세 : 안흥면 소사2리)

차 례

- 효행·열녀 설화
시묘살이 / 166
한겨울에 흥시를 구한 효자/166
손씨 효자 / 168
효자와 호랑이 / 168
- 교훈 설화
회개한 원님 / 170
하루짜 재산 / 171
- 예지 설화
애뜨기 / 173
- 인물 설화
태기왕 / 179
사람죽이고 팔자고친 사나이/180
- 동·식물 설화
금덩어리 이 / 181
백여우 / 182
용이 못된 뱀 / 183
시체 파먹는 여우 / 184
호랑이 / 185
- 지명 설화
안삼교 / 186
나옹소 / 187
호랑바우 / 188
노고소와 태종대 / 189
감투바위와 호랑이 / 191
성문바위 / 191
삼척바위 / 192
- 풍수 설화
지관의 산소점지 / 193
- 되살이집, 묘 / 194
비석 모퉁이 / 196
소사리 / 197
- 기타 설화
도깨비 제사 / 198
곳집 이전 / 199
무당의 옷 / 200
무당 색시 / 200
느티나무 이야기 / 201
태기왕의 무덤 / 202
바위 / 202
거북바위 / 203
말무덤 설화 / 204
빗자루와 하루밤
 잠을 잔 할아버지 / 205
도깨비 불 / 206
도깨비 출현 / 206
빗자루 도깨비 / 211
해님 달님 / 212
수수께끼 / 214
의문의 돌풍 / 214
미(뫼)속의 대화 / 215
해님 달님 / 217
호무시새 / 219
호랑이를 타고 다니는
 할머니 / 221
재주 많은 처녀 / 221
개버릇 남줄까 / 227

시묘살이

저기 저 축사 있지. 고 위에 물통 하나 있지. 바로 밑에 가며는 금년에 그걸 하우스 지려고 봤었는데. 묘가 거기 하나 있지. 그 집은 지금 여기 살지 않고 원주가 있는데 .

자네들 시묘살이라고 얘기 들어 봤나? 부모가 죽게 되며는 3년간은 움집을 짓고 집에서도 안지내고 생활 안하고 그런 묘가 하나 있지. 그 묘가 40 한 50년 얼마 안됐어. 50년까지 됐는데, 그때 보며는 3년 동안 을 집에도 안들어오고, 밥도 거기서 해 먹고 한 묘가 하나 있어.

한겨울에 흥시를 구한 효자

효성이 지극하다고 하는건 하튼 뭐 부모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지금 뭐 노래에 보면 그런것도 있잖아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 별이라도 따다 바치겠다 그런 노래도 있듯이.

옛날 책같은 거 보면 옛날에는 냉동 기술 같은게 없잖아요. 근데 겨울에도 자기 어머니가 병환에 홍시를 찾아요. 겨울에 홍시를 찾으니까, 홍시를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는데 그 효자는 효성이 지극하니까는 그래도 감나무 밭 있는데 가 가지고서는 감을 찾는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보니까 날이 어두웠는데 뭐 참 호랑이가 와서 타라 그래서 땀더니 얼마나 갔는지 가가지고 한 산골 한 집에 갔다 내려왔는데.

보니까 그 집에 불이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밤을 좀 새워가지고 가자고 인제 들어가서 있으니까. 그 집이 잠도 안자고 밤에 뭐 웅성웅성 그러더니 얼마 있더니만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 지낸거를 음식을 먹으라고 차려왔는데, 보니까 감이 거기 있더라구. 홍시가 그래 그걸 구해다가 드렸다고 하는, 그러니까 효성이 지극하면 그런 일이 생긴대요.

그래 그 사유를 물어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하도 홍시를 좋아하셨기때문에 감을 따가지고 서는 어디다 땅속에다 묻어 놓으면 한 두 세개 정도, 한 백 개를 묻어놔도 한 두 세개 정도가 남아 있을 정도였는데 아 이번엔 끄내 보니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상하지 않고.

그래 당신의 효성이 지극해 가지고 그렇게 됐다. 뭐 그런 얘기가 있지요.

손씨 효자

손순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 분이 하도 가난해가지고 어머니께 끼니를 대접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아이가 있어가지고, 어머니의 상을 차려다가 이래 드리며는 애가 다 뺏아먹는거여. 자꾸 그러니까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애는 다시 낳으면 되지만 어머니는 한번 돌아가시면 영영 올수가 없으니까 우리 갖다 애를 묻어 버리자 이거야. 두 내우가 그래 생매장을 하러 간거야 산에.

그래 가서 애를 묻을라고 두 내우가 땅을 파는데, 뭇 쇠소리가 나요. 그 땅을 파다가 보니까, 그래 보니까 종이 들었다 뭇 큰 종이. 그래서 그걸 캐다 놓고 두들겨보니까 아주 소리가 좋고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이제 옛날에도 이 그런건 책에도 있었겠죠? 나라로부터 관리들이 임금님한테 그런 사실을 보고를 해 가지구, 상을 줬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밀양 손씨들을 보면은 뭇 석종지라고 하는 간행물을 발간한다고 그러더라구.

효자와 호랑이

교지라고 있어. 교지라는 것은 옛날 임금이 효자를 하

고 효녀를 하고 이러면 교지를 줬다고 벼슬을 준다는 거여. 지금으로 말하면 발령장이나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아주 옛날에 가난뱅이로 살았는데, 아버지가 앓았어 헌디가 났는데 약이 없으니깐 그 종기, 헌디 난 것을 자기 입으로 빨아서 빼냈다 이거야.

이래가지고 결국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지낼려고 상여를 놓고 죽은 사람을 신고서 떠날려고 그러는데, 상주가 뒤에 울고 있는데 호랭이가 한 마리 큰 개 왔다 이거야. 호랭이가 오더니 나 타라 그러더라. 아들을 보고, 아버지 고름도 빨아내고 효를 했다 이거야 죽긴 죽었지만은, 호랭이가 상여 떠나려는데 와서 꼬리를 툭툭 치면서 말이야. 그러니깐 내 등때기에 타라고 말이야.

그러니깐 등때기에 탔데 타고서 상여가 가는데 장사를 지내고 다 파묻고 이래고서 내려 오려고 그러는데, 호랭이가 상주를 붙잡고서(……) 그 아들은 거기서 3년 동안을 살았다 이거여.

살았는데 호랭이도 같이 살았어 거기서 같이 살았는데 3년이 되니깐 3년이 되던 해에 호랭이가 간다온다 소리도 없이 사라졌다 이거야.

이 것이 임금님귀에 들어가서 그 아들에게 벼슬을 줬어 교지를 탔다. 벼슬을 얻었다. 이 동네에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 아버지 죽은 묘에 홍살문을 해서 그런 전설이 하나 있다.

회개한 원님

한 마을에 고을 영감이 있었는데 고을 원이 있었는데, 지금 말하면 군수여. 한 분이 계셨는데 하두 말이야 하두 잔소리가 심하구 욕심만 많아 가지고 이웃집에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 있어도 도와주지 않고 자기 혼자만 살려고 말이야.

이렇게 지내는데 하루는 스님이 나타나 가지고 그 집에 갔단 말이유. 와 가지구선 시주 좀 하라구 그러니깐 시주를 안하더라.

예전에 놀부같이 말하자면 그렇게 양심이 나뻐던 모양이야.

스님이 와가지구선 시주 좀 하라구 하니깐 그 영감이 쌀을 퍼 줘도 모자랄텐데 모래를 한 바가지 퍼다 줬어. 스님양반이 감사히 받아가지구 갔어 절에 갔어.

모래 한 바구니 떠준 것을 시주를 했어.

부처님한테.

부처님이 달게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받기는 받아가지구선 예즈막에 그 영감이 어떻게 됐냐면 죽었는데 부처님이 나타나 너는 세상에도 악독한 놈이지, 하다못해 예전 같으면 쌀이 귀하면 하다못해 강냉이라도

한 되박 주지 모래를 주는 놈이 어디 있냐구.

죽어도 지옥으로 가서 아주 못된 가마에 쇠물이 펄펄 끓는 물에 시체를 집어 넣을 테니까.

스님이 말마따나 죽은 사람이 시체가 말을 하더라 내가 해도해도 너무 했더라.

살려달라구 죽은 사람이 대려 참 살려달라구. 두 번 죽는 것 아니야. 그래 가지구 스님이 다시는 이런 곳이 아니고 좋은 곳으로 보내줄테니까 자손들에게 그런 버릇을 내뺌리고 앞으로 잘하래.

이래가지구선 그런 전설도 내려 왔어요. 사람은 너무 악하면 안돼.

하루짜 재산

부부가 살았는데 하두하두 가난하게 참 똥구멍이 짜지도록 가난해서 그래서 두 노인이 남구(나무)를 해다가 팔아가지구 살아나가는데, 하루는 가만히 두 노인이 드러 누워 있으니 까치가 깝깝 짓더라.

손님이 오나 하고 두 노인이 기다리니까는 손님은 안 오고 옛날이야기 뭘 봤다더라 들은 얘긴데 노루가 한 마리 나타났는지 아냐.

고개를 까딱까딱 하더니 말이야 두 노인을 보고 인사를 하는 척하더니 자기가 돌아서더니 따라오라는 시늉

을 하더라.

이 노인들이 노루를 따라서 한 골짜기를 들어가니까 노루가 말을 못하니까 입으로 시늉을 하더니 땅을 파라고 그러더라.

두 노인이 땅을 파니까, 한참을. 두노인이 아 뭐 구슬 같은 주머니가 하나 나오더라. 헤쳐 보라구 주둥이로 시늉하더라.

헤쳐 보니까 패철 같은 게 하나 있더라 지남철 있잖아. 그러더니 노루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걸 알려주구 안보이더라. 집에 와서 그 패철을 들고 오니깐 쌀이 오구 말이야 패철 얻기만 하면 돈이 오고 그러더라.

하루짜를 꿈을 꾸니 내가 신선이 왔다갔지 노루가 왔다간게 아니야 그러니깐 이 패철을 절대 남에게 빌려주지 말고 아들은 없으니깐 이웃집도 빌려주지 말래.

꿈에다 현몽을 하고 갔는데 이 노인들이 마음이 좋으니까 이웃집에 한 노인이 와가지구(금방 벼락부자가 되니까 그럴거 아니야 심술이 나서) 그것 좀 빌려 달라구 그랬대.

빌려줬단 말이야.

재산이 하루짜에 없어졌더라.

빈 집에 그 노인들이 그냥 앉아 있더라.

마음이 고우면 산신령이 도와주는데 그래 그걸 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끝끝내 가만히 잘 보관하고 있으면 좀 잘 살아.

애뜨기

데이면 애뜨거 그러잖아. 한 집에 대감이 살구 그 옆 집에 아들하구 어머니하구 아버지하구 살았는데, 못 사는 집안 엄마가 인물이 그렇게 좋았었대. 대감이 옆에 있는데 그 대감은 부인도 밍구말이야, 재산은 있는데 부인이 밍구. 그래가지군 그 대감이란 놈이 애뜨기어머니를 어떻게든 낚아볼까 말이야 사귀어 볼까 시방같으면 연애질해 볼까 그랬겠지.

애뜨기 나이가 열 다섯인데 어떻게 말도 잘하는 지 이 말하면 저 말하구 다 안대. 이놈아 때문에 도저히 저희 어머니를 도저히 낚을 수가 없더라.

이 대감이 하루는 피를 냈더라. 방법을 내 가지구 애뜨기를 불러가지구 너하고 나하고 내기를 하자. 시방으로 하면 시험을 하자 때가 동지선달인데 너는 가서 딸기를 따오면 내가 돈을 100냥을 주고 니가 못 따오면 너의 어머니를 내가 데리고 산다 이러니깐, 애뜨기란 놈이기가 막혔어.

이놈이 피를 어떻게 냈냐면 딸기 따러 간다고 해서는 대감한테 와서 뭐라구 하나면 “여보시오, 대감님. 말을 올바로 써야지 동지선달에 딸기가 어딴습니까?”

대감이 말이야 한 번 밑졌잖아? 이 놈이 도저히 안되겠어 다른 방법을 또 냈어.

니 모래 다줄(닷줄)을 짜 오너라.”

모래 가지구 다줄을 어떻게 짜.”여보슈 모래 다줄은 짜 놓았는데 배를 여따 갖다노슈.”

배를 가지구 끌구 가란 얘기가 어떻게 육지에 끌구와. 말에 또 밑졌단말이야 애뜨기한테 이놈을 여기다 놓군 도저히 안되니까, 이놈을 데리고 서울에 내뺨면(내버리면) 예전엔 못 찾아 올까하구 이놈을 데리고 말을 타구 정말 들려가지구선 서울로 간다. 가 가지고선 데리고 가는데 대감이 말이야 한 집에서 국수를 누더래.

대감은 점잖으니 들어가지 못하고 애뜨기란 놈에게 “저기 가서 국수 한 그릇 사가지고 오너라.”

이놈 애뜨기란 놈이 말을 세워 놓고선 국수집에 가서 국수를 사가지구 오면서 휘 젖는다. 국수를 휘 저으니까 대감이 이래 보니까 국수를 자꾸 휘 젖거든.

“아, 이놈아 국수는 왜 자꾸 젖냐?”

“코가 빠졌어요.”

“니 처먹어라.”

더럽다구. 괜히 지가 처먹을려구 거짓뿌렁하구 피가 좀 많아. 그래가지구 국수도 먹구 또 한군데 갔어. 또 한군데 가니깐 떡을 하더래. “애 저(기)가 떡 한 그릇 사 오너라.” 떡을 한 그릇 사와 가지구 뒤적 뒤적 자꾸 그러더래.

“또 왜 그러니?”

“오다가 앞서져 가지구 모래가 들어갔어요.”

“니 처먹어라. 나는 안 먹는다.”

대감이 쫄쫄 두 끼를 굶었으니 배가 좀 고파? 이 놈을 두구는 안되겠더라. 서울에 다 도착해가지구 한 여관에 떡 들어 갔는데, 말을 매놓고는 마방에. 대감이 서울이라는 데는 저기 눈없음 코 베어 먹는 세상이다.

“고뽕이를 꼭 쥐고 지키고 있어라. 내가 저기 가서 저녁을 한 그릇 사 먹고 올께.”

이 놈이 예전에 거짓뿌렁을 새끼 새끼 했지만 이놈이 말을 지키라니깐 마방앞에서 고뽕이를 요렇게 해 쥐고 선 눈을 이렇게 싸매고 대감 올 때 돼서는 옆드려 있구선. 이웃집에 말을 팔아 먹었지.

고뽕이를 이렇게 놔두고 말을 팔아 먹었어. 대감 왔을 땐 거짓뿌렁이 한다구. 대감이 와서 보니깐 고뽕이만 이만치 남구 이렇게 옆드려 있단 말이야 마방앞에.

“아 이놈아 이놈아 말 없다.”

“아니, 말이 어디갔어 말이 어디 갔어.” 찰라 먹구 팔아 먹구선.

“아 대감님이 그랬잖아요. 서울은 코 베 먹는 세상이라구 눈하구 코베먹는 세상이라서 나 옆드려 있으니 어떤 놈이 찰라 갔네유.”

그러니 감쪽 같이 속았지. 피가 좀많아 대감을 그렇게 속이니. 아마 해도 이놈을 여기다 뒀다간 안되겠어. 시

꿀로 내려 보내야겠다구 등허리 돌아 서라구 말이야 돌아서는데 뭐라구 쓰더래. 애뜨기 등허리에다 붓으로 뭐 쓰구 너 이놈 내려가 여기 있음 있음 안되니깐 말이야 아 이놈이 내려 오는데 등허리에 뭘 썼는지 오다가 꿀장수가 오더래. 꿀장수가 오면서 이게 뭐유 등허리에 쓴게 뭐냐니깐, 애뜨기 내려가면 댄번에 때려 죽이라구말야 한강물에 갖다 빠치라구 이렇게 써서 등허리에 썼다구 그러더래.

아이구 이걸 지우고선 내려가서 막내 딸 쥐 가지고 빨리 장가 보내서 살림내라구 그렇게 좀 써달라구 그러더래. 대감이 나중에 집에 돌아오니, 죽었으리라는 애뜨기가 살아서 자기집에서 살고 있잖아.

어찌 된 것이냐고 물으니 그러니깐 사람들이 집사람들이 대감이 막내 딸 쥐서 장가 보내라고 써 보내지 않았느냐고 하는거야. “예끼 이놈들아 그게 아니다.” 하고 하인들을 시켜 뒤주에 가둬 강물에 버리라고 그러더래.

하인들은 뒤주를 갖고 강을 찾아 가는데 날이 어두워 주막에 묵게 되는데 애뜨기란 놈을 매달데가 없으니 짐간 옆에 남구가 크게 있는데 애뜨기란 놈을 남구에 매달고 종놈들은 술 먹으러 주막에 들어 갔는데, 애뜨기란 놈이 ‘한 놈 두 놈 들어간다 눈 떠진다’를 계속 반복해서 소리를 내더래. “한 놈 두 놈 들어 간다 눈 떠진다.” 근데 마침 지나가는 쇠경이 있어 이상한 소리가 나거든. 그래

"여보, 거기서 뭐하슈."

"가만 있으시오 조금만 더하면 눈이 떠진다고요."

이말에 쇠경이 귀가 번쩍 떠질게 아녀."여보 여보, 그게 무슨 말이요?"

"내 앞 못 보는 쇠경인데 이 안에서 '한놈 두놈 들어간다 눈 떠진다'를 계속 하면 눈이 떠진다고 해서 지금 하구 있는 거유." 이말에 쇠경이,

"여보시유, 나도 좀 해 봅시다. 나하고 좀 바꿉시다요." 그러더래.

쇠경이 애뜨기를 꺼내주고 자신이 들어가더래. 애뜨기는 얼씨구나 도망갔을거 아니여? 이튿날 하인들이 나와보니 뒤주 안에서 '한놈 두놈 들어간다 눈 떠진다.' 소리가 나더래. 그래, 이놈이 죽을 때가 되니 미쳤나 보다 그랬대. 이 소리를 소경이 들었을 것 아니여?

"아이고, 여보슈, 그게 무슨 말이유? 난 소경인데 딴 사람 대신 들어온거유."

"이놈이 살구 싶어 수작을 부리는구나." 하인들이 하더래. 무시하구 뒤주를 강물에 던져 버렸대. 그리고는 대감에게 말을 했더래. 뭐 애뜨기는 쇠경놈을 거기다 집어 넣어 대신 죽이군 자기는 어디가 돌아다니다 자기는 번듯이 해 가지구 대감에게 찾아 갔단 말이야. 아 대감이 이상하거든. 갖다 빠뜨리는 놈이 물에 빠진 놈이 살아 왔으니.

"너 어떻게 살아 왔니?"

“대감님 말도 마슈. 참 용궁에 들어가니 참 엄청나게 좋습디다. 대감님 모시러 이렇게 왔어요.” 이까짓 살림살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용궁만 들어가면 기왓장 한 점만 가지구 1년을 먹고 살텐데 뭐뭐뭐 뭘 이렇게 사냐구 대감이 귀가 번쩍 떠있단 말이야 물에 빠진 것이 그렇게 살아 와. “아 그럼 가자야.” 딸 데리구 살림살이 해서 이제 모두 짊어지구 이구 이구 지구 강으로 간다.

가가지구 애뜨기란 놈이 장인 양반은 예전에 솔이랴 구 있잖아. 가마솔을 장인 양반이 까꾸로 뒤집어 쓰고 장모님은 무거운 맷돌을 이구. 무거우니까 빨리 들어갈게 아니야.

그 놈이 그렇게 피를 써가지구 이제 “장인 장모 먼저 들어 가세요. 물에 먼저 빠지세요. 난 뒤에 설거지 해서 나중에 들어갈거니깐 들어가면 질(길)이 훤히 나 있으니 그러세요.” 장인이 가마솔을 뒤집어 썼으니 대변에 빠질 것 아니야 “저 보세요 혼자 살라구 기별도 안하구 그냥 먼저 들어 가잖아요 장모님 빨리 들어가세요.” 장모님이 맷돌을 이니까 대변에 빠지고 시체가 안 떠오르니까 “저 보세요 두내외만 살라구 하니 처남 빨리 들어가세요.”

나중에 마누라가 들어갈려니깐 “거기가 어디라구 들어가 죽을라구 들어가.” 꼭 붙들더래.

애뜨기란 놈이 그렇게 지엄마를 뺏기지 않고 마누라 그렇게 피를 부리고 살더래.

인물 설화

태기왕

여기 가면 태기산이라고 있어요.

태백산맥에서 태기산이라고 있는데 태기왕은 삼한시대의 진한의 마지막 왕인데, 태기왕이 신라 박혁거세한테 밀려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서 조금만 가면 강이 있어서 그게 무슨 강이냐 하면 섬강이라고 있는데 갑천이라고 있어요.

태기왕이 거기서 성을 쌓고 진을 치고 연자방아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거기서 군사를 데리고 훈련하고 진을 치고 있다가 박혁거세한테 밀려서 어디를 갔느냐?

어답산이라고 있어요.

태기왕이 지나쳤다 그래서 어둔리가 그래요.

임금이 이 산을 밟았다 이거야 박혁거세한테 밀려서 어답산에서 어둔리고 갔다가 태기산으로 갔어 신라군이 들어오니깐.

악산인데 그 뒤는 큰 벌판이 있어요.

앞은 아주 악산이고 돌산인데 이쪽은 신라군이 못들어오지 하고 진을 치고 있었는데 신라군이 이리 안오고 뒤로 들어왔단 말이야.

들어와서 박혁거세군이 거의 전멸시켰어.

그래서 진한 시대가 망했는데 그래 가지고 태기왕이 죽었는지 어쨌는지는 몰라 거기 가면 태기왕이 쌓았다는 성이 있고 태기왕이 앉았다는 큰 돌이 있어요.

사람 죽이고 팔자 고친 사나이

형이 남구(나무) 하러 가서 남구를 해 가지고 오다가 남구 지겔 이래 고여 놓고 쉬다가, 깨금이 하나 굴러 내려 오니, 아구 우리 아버지 드려야지 주어서 호주머니에 놓고, 또 하나 또르르 내려오니 이걸 우리 어머니 드려야지 또 넣었지.

또 하나 내려오더래 아 이걸 내가 먹고, 또 내려 오더래. 이걸 우리 마누라 주고 그리고 또 내려오니, 아 이걸 자식 준다고 그래 넣어가지고 오다가 저물었어.

저물어서 어디 누 집에 들어 자자 하니, 아 우리집에 못 잔다구 우리집은 밥은 해먹어도 저녁이면 다 헤진다구 할아버지가 10대를 살았어.

한대(代) 두 대 10대라는 것이 열이지?

열대를 살았는데 밤이면 고양이처럼 자손에게 달려들어 잠을 못잔대.

그래 밥 해 먹고 밤에 밖에 나가 자고, 자고 아침은 날 새면 밥 해 먹고.

그러니 그래 잔다구.

있다 간다구. 아참 살갱이 같은 게 덤비더래.

이 놈을 달롱 들어서 그 옛날 대청마루 높은데서 내던지니까.

곧 마당에 가 툽 떨어져 죽더래. “아구 남의 10대 할아버지를 죽이구 큰일났다.” 뻥다구 붓 치루겠다구 벌벌 떨구 있다가 아침에 자손들이 들어와서 손님이 잘 주무셨나구, 아주 할애빌 죽여 줘서 아주 좋아서 이러더래.

올라가니 못 가게 하구 아침을 해 대접하구, 아이구 뭐 장사 지내는거 다보고 해두 못가게 하구 그리 또 옷을 해 입히다나 꼭 붙들려 있다 하니 장사 다치우고 3날 꺼정 다 지내고 아주 옷을 좋은 옷을 한 벌 해 입히구선 말을 내서 종을 정맬 등지어서 돈도 많이 말 위에 올려서 옛날 엽전이거든, 그래 집에 데려 주었대.

10대 할아버지 하나 죽여 주고 팔자를 고치더래.

동 · 식물 설화

금덩어리 이

옛날에 이가 피였잖아? 이를 죽이지 았구 이 못봤지?
이를 자꾸 붙들어서 이를 붙들어서 남구 밑에다 자꾸

갖다 넣었다. 이러한 옛날에 고명남구라고 씌으면 굶다 리 저 있잖아. 그게 이렇게 뭉쳐가지구서는 금덩어리가 됐더래 금덩어리.

그래 가지고 금덩어리가 됐는데두 인제 뭘 일이 생기면 그 놈이 나와가지구는 여기 갖다 붙이면 불도 일어난 게 거기붙이면 꺼지구 사고난 것도 붙이면 또 멀쩡해지구 뭐 사방 갖다 붙이면 다 멀쩡하더래.

집이 흑시나 넘어 갈라고 하면 그거 갖다 들이대면 발라지구. 동네 뭐가 망가지면 갖다 한번 슬쩍하면 그것 번득해지구 그러더래 복이 되가지고 죽이지 앵구 자꾸 붙들어서. 그랬대.

백여우

옛날에 학생이 학문 배우잖아. 책보를 끼고서는 한 고개를 가다보면 서낭이 있는데 아주 처녀가 올즘엔 꼭 나타났대. 아주 예쁜 아가씨가 나타나 아구 놀다가라구. 들어가보면 아주 방도 좋고 뭐 멀쩡하지뭐.

놀다 집으로 오고. 또 날마담 그러더래 놀다가라구 붙들었더래. 놀다오구. 한번은 아주 요러한 이쁜 구슬을 제 입에 넣었다가 학생 입에 넣었다가 또, 제 입에 넣었다가 학생 입에 넣었다가 아주 열날을 두고 그러더래. 한번은 글방 총각이 제 입에 넣어 준 걸 꿀떡 삼켰어.

그 꼴딱 삼킬 때 땅 보고 하늘 쳐다 봤으면 하늘천기도 알고 땅 지리도 알았을텐데, 하늘을 안쳐다봐서 땅 지리만 알지 하늘천기는 몰라. 구슬을 총각이 꼴딱 냉기니, 아주 울며 가는데 꼬리가 이런 여우더래.

처녀가 어떻게 둔갑을 했는지 가더래. 백여우가 돼서. 그 사람이 땅지리만 알지 하늘 천기는 몰라.

용이 못 된 뱀

웬 노인이 말야 식전에 나가니까는 물살이 취어억 갈라지더래. 그러더니 뱀 대가리 용이 말이야 대가리 큰놈이 쑥 솟더니 하늘로 올라갈려구 꼬리를 치는데 벼락 치는 소리가 나더래. 이 노인이 “용 올라간다”, 이래면 말이야 용이 올라 갈 텐데 “구렁이 올라간다” 이랬대. “용님이 올라간다” 그러면 용이 올라갈텐데 “구렁이 올라간다” 그랬더니 이놈이 올라가다 곤두박질 하더니 할아버지에 와서 떨어지더니 피를 뿜더래.

꼬리를 흔들면서 뭐이라구 말이야 글자를 써 놓았는데. 할아버지 내가 말이야 용이 되어 올라갈텐데 할아버지 때문에 용이 못되었다구.

내가 용님 올라간다 하면 올라 갔을텐데 구렁이 올라 간다구 해서 못올라 갔다구.

꼬리로 적고 죽더래.

시체 파 먹는 여우

우리가 잘 아는 노인네가 한 분이 여기 살던 분이 원주가 계시는데, 그 노인이 인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노인이 얘기를 잘하는데, 그 전에 인제 원주를 갖다올라면 뭘 짊어지고 가서 사와야 되고 갖다 팔아야 되니까 새벽에 가는거야 달밤에.

새벽에 인제 원주를 가는데 저 위에 올라가다보면 거 사람 갖다 사람도 뭐 거지랄지 그런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 되는대로 갖다 묻어 놓잖아.

길가에다가 묻어 놓 무덤이 있는데 아 거길 가다가 보니까 그 무덤 앞에 구멍을 뚫고 선 여우가 들어가는데 그리로.

꼬리가 큰 놈이 들어가드래요. 그래서 이 양반이 살금 살금 가서 그 묘등에 올라가 가지고서는 그 지게작대기라고 하는 걸 짊고 당기니까.

지게 작대기로 묘등을 쾅 굴르므는 이게 튀어 나올거다, 이걸 이걸 때려 잡을 궁리로다가 쿵 하고 굴르니까 뭐이 하얀게 퍼득 나오더래, 그래 힘있는 대로 후려 때렸더니 아 여우는 아니고 그 송장 싸매가지고 한 옷가지를 불쑥 내밀드래는 거야.

그놈이 그렇게 피가 많대요.

그러니까 그래고도 주춤하는 새에 이 여우는 쑥 빠져 나가드라는 거여.

그러니까 송장 파먹는 거지요.
근데 그놈이 그렇게 사람을 속인대요. 그렇게 피가 많
아 가지고.

호랑이

그 옛날에 저기에 이 비포장 도로로 아주 옛날이지
뭐. 우리 애기 아빠가 지금 육십이거든.

난 남편한테 들은 소린데 옛날에 이게 손으로 삼으로
다 했거든(도로 닦은 것) 했는데 뭐시기 저기 치성을 돼
지머리 놓고 치성을 드려야 하잖아.

아저씨(옆에 있는 아시는 아저씨를 가리킴) 그런걸
안했던 말이야. 그래 안해 가지고 포장을 쳐놓고 근데
인부들이 자는데 호랑이가 자꾸 뒤에 와서 저녁마다 모
래를 뿌리네.

이 인부들이 무섭잖아 호랑이가 나와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는 뭐 이 아는 사람이 “그러지 말고 돼지
를 한 마리 잡아라.”

그래가지고 돼지를 한 마리 잡았어. 잡아가지고 불공
을 드렸지.

그리고나서 아마 괜찮은가봐요.

그래 옛날에 여기에 호랑이가 많았어, 태기산에.

안삼교

안삼교라는 사람이 죄를 졌는데, 나라에서 붙들러 왔단 말이야. 봄철에, 요새가 아니라 봄일기여. 틀림없이 날 잡으로 온다 이거야.

괘이 알아, 학생 괘이(괘이). 옛날에 겨리(소 두 마리가 끄는 큰 쟁. 보쟁기.) 연장이 있단 말이야 겨리.

근데 이 사람이 괘이 안아 가지고 그걸로 산에 가서 그걸로 산을 파는거야. 그거 무지하게 무겁잖아.

아 우리 괘이보다 가볍게 파는거여 산을 파 그래 날 잡으러 왔잖아. 안삼교 어른 보셨냐고. 아, 안삼교.

어제 서울로 행차했다고. 지가 안삼꾼데 날 붙들러 온 사람을 속였단 말이야. [어 무슨 영험한 능력이 있나요? 미리 어떻게 알았죠?] 내가 날 잡으로 오는 걸 알지. 안삼교, 그분 괘이로 안 파고 겨리 연장으로 팠다니까. 우리 둘도 못해 져야 돼.

그 이놈이 붙들러 온 놈이 보니 대단한 놈이거든. 그래 안삼교란 그분 그 양반 서울로 행차하셨다고 그런데 그 사람 안삼교라는 사람이 삼교라는 지역에 소나무가 없었어, 그 전부가 참나무고. 그 사람 사망할 때 산에서 그랬대 삼교리에 소나무만 퍼지면 난리가 난다 이거야.

난리가 난다고. 근데 그 사람이 산에 많이 땡기는데 소나무만 퍼주면 삼교리땅에 난리가 난다 그랬어.

그 사람이 산에 땡기면, 칩 알아 칩.

그게 가르쳐서, 마달리 가면 여기서 몇바지 가지 않는 데, 죽지 않았는데 칩이 그 전설이 있다고 번지 못하지? 어 번어나가지 못하고 거기 그 전설이 있다고.

나옹소

여기 저 나옹소라고 하는 물이 있는데, 샘물이 있어요. 여기 뭐 간판 보고 오셨겠지만 송어를 양식을 하고 있는데, 외지 사람이 와가지고.

그 물은 저 상원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저리로 가면 상원사라고 하는 절이 치악산에 있는데, 거기가 큰 못이 있었대요. 물웅덩이였었대요.

그래 인제 그 나옹대사가 지팡이로 여길 와서 쭈셔놔 가지고 그 물이 빠져 가지고 거기다 절을 지었다 그런 전설이 있지요.

근데 그 옛날 노인들 얘길 들으면 우리 나라에 무슨 큰 변란이 있을 거를 예고를 했대요.

그물이, 흙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직접봤다고 하는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여긴 안계시지만 원씨인데 역시 그 양반도, 요 앞에 가면 요 앞집에 쪼만한 집에

아들이 살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는 지금 한 팔십 넘었는데 원주가 계셔요.

그래 우리도 그걸 못봤으니까 그게 뭐 그럴수가 있겠느냐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는 그러더라구.

뭐 6·25 사변날 때 그런 때는 그 며칠전에 흙물이 나왔다고.

호랑바우

옛날에 바우 밑에서 호랑이가 새끼 쳐 갔다구. 그 바우에서 그 전에 호랑이가 많았잖아. 나물 뜯으러 어느 골짜구니를 가니깐 아주 이쁜 호랑이 새끼가 두 마리가 있더라. 바우 밑에 이 놈으 것을 다리기(다래끼를 말함. 대, 싸리, 고리버들 따위로 걸어서 바구니 비슷하게 만든 그릇) 안에다 넣어다가 집으로 왔다.

집으로 와가지구 봉당에다 등지를 틀어 놓고 돌로 막아 놓고 그랬더니 밤에 호랑이가 와서 다 물어갔더라. 밤에 지 새끼가 거기 와 있는 걸 알았지.

밤에 오니까 이쁘게 해놨으니까 해꼬지를 안 했다. 그렇잖으면 새끼를 어따 치웠으면 해꼬지를 했지.

그래가지구 이튿날 거기(바위 밑)를 가봤대.

거기다 두마리를 물어다 놓고선 호랑이가 지키더라. 바우 꼭대기서 어흥 소리를 냅다 지르더라.

또 와서 가져 갈까봐 그랬겠지.
그래가지구 거기가 호랑바우라고.

노고소와 태종대

어, 지금 저 '용의 눈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태종대왕이 거기 와서 쉬어 갔다고 하는 자리로 옛날에 아마 임금님이 와서 쉬어가기만 해도 그 자리를 아주 대단히 기념하기 위해 세워 놓은 태종덴데.

태종대왕이 어떻게 왔었는가 하면, 고려말에 왜 원천석이라고 하는 대학자분이 계시잖아요.

그 선생이 원주 원씨 아니에요. 태종에게 글을 가리키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그 고려 충신이, 옛날 사람들은 충신은 불사이군이라 해가지고 이성계가 반란을 일으킨거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저걸로 봤을 적에, 그러니까 고려의 신하로서 이성계한테는 신하노릇을 안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저 여기 시루봉이라고 하는데, 비로봉 끝짜기에 가며는 그 선생님이 와서 숨어 있던 데가 있어요.

숨어 있던 데가 있는데, 그 비우골 있는데. 그 선생님을 인제 찾으러 이성계, 방원이가 한 번 찾아 빌라고 찾아왔는데.

그 선생님은 인제 태종이 올걸 미리 알고선 태종대 밑에 가면 그 저 다리가 일루 있고, 거 큰 웅덩이가 있어요. 그걸 노고소라 그랬는데, 노고소라고 하고, (거기 새겨져 있는건 구연이라고 새겨져 있는데) 거기에서 인제, 할머니 하나 빨래를 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 한테다가 내가 가는 방향을 반대 방향을 가리켜 줘라.

이렇게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찾아오면 만날 것 같으니까 그래 아마 저쪽으로 가라 그랬던가봐 저쪽으로 갔다고 가르쳐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제 그 선생님은 토굴 있는 데로 왔는데. 얼마 있다니까 임금의 행차가 와가지고 선생님이 가신 곳을 아느냐고 묻길래 그 선생님이 가리켜 준대로 얘길 한거지.

그러니까 저쪽, 거길 그러니까 배향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명이 그런데.

그 쪽으로 가셨다고 인제 가르켜 주고서는 생각을 하니까 지금 같으면 대통령을 속였어도 죄가아닌데 옛날에 임금을 속였으니까 이거 큰 죄를 졌거든요.

내가 살아 있을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거기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인제 태종은 그 바위 위에 와서 쉬어 갔다는 거지. 못만나고 갔대.

감투바위와 호랑이

우리 아버지 어렸을 적 얘기 들어보며는 이런 저 시골 집에도 호랑이가 자꾸 침범을 해가지고, 망을, 뭘 새끼 줄 같은 거 아마 질긴 걸로 했겠지 망을 떠서 이래 쳐 놔 대요. 이 앞에 같은 데다가, 호망이라고 해가지구.

그랬구. 그때는 호랑이가 더러 물어 갔어요. 사람을, 물어다가, 요 위에 올라가면 뭐 지금은 나무가 있어서 안보이는데, 감투바우라구 아주 바우가 비쪽한게 이래서 있는게 크게 있다구. 근데 갖다가 거기다 놓구선 먹구는, 산돼지는 사람을 잡아 먹으면 싹 먹는데, 호랑이는 머리만 남긴대요. [그 바위에다가 머리를 남겨 놓는 다구요?] 예. [그 바위가 왜 감투 바위에요?] 그 삐쪽한게 감투처럼 생겼다고 해서. [호랑이 잡지는 못했구요?] 잡기두 잡았다 그래더라구요. 그, 저 판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인가에 피해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뭐 포수, 화포총이라는 거 해가지고 판포를 보내주고 이래가지고 잡은 일도 있다. 그래요.

성문바위

성문바위가 아주 높으게 생겼어. 그 중간엔 다 산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굴이 있어. 그래서 성문리라 그러지

그 안에 속에 들어갔더니 구렁이가 있더라.

삼척바위

여기 지역적인 원래가 이게 산골짜기고 그래 놔갔고 전설적으로 나오는데도 없어요. 근데 이게 여기 시장터가 이게 옛말로 관촌이거든.

여가 안흥리가 관촌이라고 하면 뭐냐며는 그 이제 그 이조시대에 높은 양반들이 왔다갔다 하고 그랬을 적에, 이제 부사니 부인이니 이런 사람들이 땡기고 그랬을 적에는, 말을 이젠 여기다가 전부 기르고 있다가 이제 서울에서 강릉을 가게 되면 이게 이 옛날에는 유일한 통로였으니까. 여기가 음 그러면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서 서울서 모시고 온 사람들은 받아가지고, 여기서 있다가 강릉으로 모시고 가고, 강릉에서는 여기서 인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인제 여기가 일종의 역촌이지.

옛날로 얘기했다면 상사놈들이 살았다가 음 이런 고장이예요. 여기가. 그래서 왜정때는 그 길을 따라서 산업도로 얘기했다면 상사놈들이 살았다가 음 이런 고장이예요. 여기가. 그래서 왜정때는 그 길을 따라서 산업도로가 생겼었지.

인제 이 그렇고 면사무소에서 가 보셨겠지만 여기에서 이게 이제 여기에서 국민학교 위로 조금 가면 바위

전설에 요만한 비석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인제 삼척바우라고 그러죠. 삼척바우라고 그러는데 삼척에 있는 어느 부사가 인제 내연의 처를 그러고서 사귀고 있는데 이 양반이 그만 거기를 그냥 통과해 버렸어.

그래서 인제 거기에 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만 내연의 처가 투신 자살을 해버렸다고 해서 인제 그 삼척바우라 했었죠.

있는데 그런데 뭐 제대로 글자도 안 백히고.

풍수 설화

지관의 산소 점지

옛날에 어느 풍수가 산자를 잡아 놓고 학생들은 아는지 몰라도 이산은 진씨하관을 하라 유씨하관을 하라 그러거든.

또 밤중에 무슨 새 [지관이 그렇게 지시한다고요?] 응, 근데 이 지관의 설명이 그 아마 여름철이겠지 여름. 베옷을 입고 옛날에는 그 부자 여성들은 치마를 질게 해 입고, 천이 부족하니까 짧게 해 입었다고 짧게.

[가난한 집에서는요?] 그렇지 바지만 해 입어도 대님

만 땀잖아 꼬쟁이 바지 꼭 씨우지 못해. 어 그랬다니까 옛날에 그랬어.

여름철이었던 모양이야, 배옷을 입고 지내니까. 쇠갓을 쓰고 빨건 행장을 치고 제절밑으로 지나가면 하관을 하라고 했거든.

그 지관사님이 그리고 가 버렸단 말이야. 진종일 옛날에 밀주나 먹고 앞드려 있자니 빨건 행장에 쇠갓을 쓰고 지나가는 놈이 있어야지.

그래 해가 너울 질라 하는데 그중에 청천하늘에 구름이 모여들고 천둥을 하고 번개를 치더니 그 너머서 그 없는 집 부인이 큰 소당알아 소당 모르지? 솔뚜껑 그걸 해 썼단 말이야.

뭐 우산이 있나 샷갓이 있나 뭐 덮을 게 있어야지 비를. 저쪽 너머 동네에서 이쪽 너머 불일 보러 오느라고 이 빨건 행장 아니여(다리를 가리키며) 이 짧으니까 옷이. 그때 하관을 했대.

되살이 집, 묘

아마 한 이백년전에 여기 아마 베테랑 노인이겠지. 하도 어렵게 살았던 모양이지. 예전에 어렵게 산 사람이 참 많아요.

시방은 참 평균하게 살지만 예전에 하도 많이 가난하

게 사니 전부 예전엔 남구해서 시장에 가서 시장이라는 게 뭐 예전엔 뭐 남구 사 때는 집이 사때죠.

뭐 사 때나요. 하루 남구해서 죄와(겨우) 팔아야 뭐 엽전 서 너 개씩 얻으면 그걸로 와서 또 예전에 쌀가게 라고 시방 같으면 쌀가게 인데 촌에 엽전 주면 쌀을 한 되씩 팔았던 모양이야. 조금 잘 사는 집들 그래서 가서 연명해 나가는데 하루는 아주 많이 몸이 아파 죽겠는데. 두 노인이 연세도 많았겠지.

두 노인이 사는데 하도 몸이 아파 약 지으러 갈라니 약국도 그렇지만 돈이 뭐 있어야지. 돈도 없지. 쌀이 있으면 쌀이라도 퍼다 주고 예전엔 쌀이면 돈이니까.

시방도 그렇지만. 쌀도 없지.

참 몸은 아파 죽겠는데 두 노인이 에이 이러문 죽어 버리는데 낫지 그깟 살아서 뭣하느냐고.

이 노인들이 결심을 했던 모양이야. 밤에 죽을라고 두 노인들이 같이 죽을라고 아마 목을 매서 서로 죽을라고 그랬는지 서로 목을 매가지고 잡아댕기문 죽을라고 그랬는지 차마 못 죽고 그랬는데 뭐 바깥에서 인척소리가 나더래요.

사람 오는 소리가 나서 그래 그만 목을 맺던 걸 풀어 놓고 나니까 뭐 호한 노인이 바깥에 와서 있더래.

그래 그 죽을라 그러던 두 노인이 사람이요? 짐승이요? 짐승이문 가고 사람이문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들어 오드래요. 호호백발이 그래 드러오더니 내가 당신네 죽

을까봐 도와주러 온 사람이요.

그래 그 어떻게 알아가지고, 어떻게 알고서 왔느냐고.
내가 시방 이래봐도 산신령이요.

산신령 예전에 인제 말하자면 산신령이 도와주는 그
게 있던 모양이야.

산신령인데 당신네들 마음이 고운 사람이면 죽으면
되겠소.

내가 좀 도와줄테니까는 말하자면 이런 옆전 한 꾸러
미를 내놓고 약도 사다 먹고 식생활을 넉넉히 할테니까.
절하고 나니 없어졌드래 그래 그 돈 가지고선 약 사다
먹고선 기운을 내가지고 인제 남은 돈을 해다 팔고 그
돈 가지고 이래서 큰 부자가 됐었대요.

그래서 이웃도 도와주고 말이야 자기가 없을 적에 도
와주고.

그런 전설이 내려와 그집이 뭐냐면 이름이 되살이 집
이라고 죽을뻔하다가 되살아 났다고.

그래 가지고 신대리에 살다가 자손이 없어 무덤이
있는데 벌초도 안하고 그래서 그 묘를 되살이 묘라고
한다.

비석 모퉁이

요 위에 올라가면 비석 모퉁이라고 있어. 그게 비가

하나 있어. 돌바위에 붙여가지고 그걸 노인네들이 복원을 해보자 얘기를 했는데. 되지를 않았는데.

그전에 이 농작물이 피해를 가니까는 내내 피해가 갔단 말이야.

가니깐은 풍수해로 인해서 가니깐은, 황성군 현감이 지 현감이 세금을 전부 탕감을 해 줘 버렸어.

세금을 그전에는 현물로 받았던 것 아니야.

그걸 현물로 내지 말고 너그선 끼니를 채워라. 그거를 감면을 해 줬어.

그러는 바람에 한 2~3년 동안 있다 가서는 풍작이 들어서 현감을 위해선 마을 사람들이 비를 하나 해 세운 사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실이지.

소사리

요기 마을 지형이 그 전에는 여기가 완전히 싸움터였어. 전격지에 싸움터.

아 여기가 외딴지면서 산골이면서 6·25를 겪으면서 전격지되구.

여기에 지명이 피난터도 있고 높은터도 있고 뭐 낮은터로 뭐 해가지구, 전쟁에서 피난했다구 해서.

거기는 완전 풀짜구니깐.

도깨비 제사

도깨비 제사. 이제 타지역에 가며는 저거 있잖아.

당제사. 당이라는 당을 지어 놓고선 돼지를 잡아 놓고 선 다 제사를 지내는데, 여기는 뭘 가지고 제사를 지냈냐면 개를 가지구 잡아 지냈어. 거리 치성이라고 해서 거리에서 지내. 특별히 모신데가 없고 거리가 삼거리. 그러니깐 여기가 왜 그러냐면 도깨비 마을이래 원래가. 도깨비 마을 이래 가지구서는 도깨비가 해꼬지 하니까는 가서 거리 치성을 지낸다는 것은.

개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구서는 도깨비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또 저거야 개라더만. 그래 가지고 개를 드렸지. 고거가 없어진지가 한 15년 정도 되는데.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냈나요?] 부락 내에서 해가지고서는 고것도 인제 어떠한 유사집을 정해가지고, 해마다 이젠 가가지고선 정월달에 지내는 거지 날을 받아가지고 정월달에. 부락에서 전부 경비를 들여가지구.

도깨비 치성이라는거를 고걸 없애고 몇 해 동안 잠잠했었어. 괜찮았는데, 자꾸 어떠한 풍파가 나니까 일부 노인네들은 다시 복원을 해야 한다. 젊은 사람들도 이제

가끔 죽고 하니까 그런게 그 전에 하던걸 왜 젊은 사람들이 없애 가지고 그러느냐. [제사터가 어디예요?] 학교 후문 있는데 거 앞에 집이 한 집 있고 저 쪽으로 들어가는 길 있고. 원 삼거리 제사터야.

곳집 이전

51년도에 옆집 노인네가 바로 요 우(위)에 살았어. 그때에는 구장이 있었어. 구장이 지금은 이장이지. 동네 구장을 보고 있는데, 이 노인네가 여기서 요 산모탕이 돌아가면 밭이 있는데 고기에 곳집이라 가는게 있었어.

그 양반이 그걸 뜯어서 그러니까 저 위에서 사하리 지방 여기선 잘 모르고 이 길로 쪽 올라가 저기 올라가면 있는데, 거기에다 옮겼어. 두 동네가 같이 쓸라구 한 군데로 옮겼는데, 이게 또 해필 재수가 없느라구.

그 노인네가 약줄 잡숫고, 학교 있는데 주기가 있으니깐 약줄 드시고 오시다가서는 곳집 뜯은 고 앞이지. 학교 지나가는 도랑이 있잖아. 이 노인네가 그냥 쓰러진거지. 이 노인네가 헛소리를 다 하는거지. 이놈아 이걸 놔라, 놔라.

술 드시고 그랬던것을 도깨비에 흘려서 그랬다고 그러신거지. 그런데 우리가 그 소릴 노인네들에게 듣고, 그 해에 돌아가셨어.

무당의 옷

옛날에 우리 친구네 집을, 삼을 삼으러 갔는데 거기에 이쁜게 있어요. 아주 부채 칼 방울이 한 바구니가 있더라구.그 성문바위에 나물을 뜯으러 갔는데 바구니가 있더라구.

거기다 손도 대니깐 안떨어지고 발도 안떨어지더라. 그걸 갖다가 열어 봤어. 무당들 입는 활옷이 있더라. 친구한테 그걸 비다가(베어다가) 색동옷을 해 입을래 하고 단을 똑 짤라서 둘이 노렸어.

우리 큰 올케더러 그걸 내가 저고리를 해 달라 그래서 하는데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펄떡펄떡 하는거야. 이거 참 큰일 났거든 무당한테 가서 점을 쳤거든.

그랬더니 무당이 검은 빛도 나고 초록 빛도 나고 남색이니깐 쳤거든. 손 등에 무당 귀신이 들었다 그런단 말이야. 삼신을 해놓고 절을 하고 그걸 지뜨어서 불을 해놨어. 3일이 되니깐 괜찮더라고. 혼나봤어.

친구네는 외아들도 죽어버리고 딸도 하나 있는거 죽어버리고 흠어미가 빌빌 거리다 가버렸지.

무당색시

옛날에 성문리에 살았어요. 장가를 가려고 잔치를 하

는데 말이 바닥에 딱 붙어서 안떨어지더래.

색시가 처녀때 무당을 해먹었어.

옷을 다 집에다 놓고 그러니깐 말이 발이 안떨어지더라. 무당하던 옷을 넣어주니깐 말이 돌아서서 오더라. 그 색시한테 무당이 실려 오는 거래.

폐백하는데 무당옷이 나오니깐 큰일났잖아.

색시가 무당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깐 말라서 죽어 버렸대.

대를 내려오며 아들이 심하게 앓았어요.

느티나무 이야기

이야기는 엄청 오래된 얘기에요. 그게 6·25가 날때 죽었거든.

그 다음에 한 3년 있다가 그게 되살아났어요.

거기에 아기 못 낳는 사람이 거기 가서 기도하고 아들을 낳았대.

또 무당들이 기도하고 그런 것도 있고 두남리 올라가는데 엄청 큰 나무가 있어요.

거기다가 불공을 드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열 몇 살 되니깐 나무가 죽었대.

그 애가(6·25로) 죽으니깐 그 나무가 다시 살아났대요. 그래서 그 부모가 나무를 붙들고 울었어요.

태기왕의 무덤

태기산을 가다보면 낙수대가 있어요. 낙수대에 폭포가 있어요. 그런데 폭포 옆에 무덤이 하나 있어 누구의 무덤인지는 모르는 큰 무덤이 하나 있는데 그 무덤에 풀을 누구든지 먼저와서 그 산에 있는 무덤의 풀을 깎는 사람이면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태기왕이 태기산에서 전사해 가지고 신하들이 자기의 왕을 갖다가 그 밑에다 매장을 하지 않았느냐. 낙수대에 있는 무덤 자체가 태기왕의 무덤이라는 것은 가정을 할 수 없어요. 태기왕이 아들도 없이 후사도 없이 죽었으니 간 그 죽은 사람의 시신이라도 짐승이 먹거나 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하들이 퍼뜨린 하나의 유언비어가 현대에 이르러서는 아들을 못 낳는 사람이 여기와서 일찌감치 풀을 베고 무덤의 벌초를 해주면 아들을 본다하는 속설이 퍼진 것이 아니겠는가.

바 위

그 앞에 숲이 있었어요. 앞이 숲인데 그 안에 수완집, 기와집이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집이 부자였었어요. 부자가 살았다고요.

부자가 살았는데 말며느리를 봤는데 하루는 하두 손

님이 많이 꿇고 그래서 대접하기가 하도 힘이 들어서 하
루는 스님이 왔대. 스님이 온거를 (며느리가) 우리집에
손님이 좀 못 꿇게 해주면 시주를 얼마든지 주마 그런
얘기를 했데요. 그러니깐(스님이) 그럼 그래라구 저기
나가면 바위가 한 덩어리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 바우를 야(도구)가 있어요. 그 중이 야로
그 바우를 켜대요. 시주를 많이 받고 바우를 깨냈대요.
지금도 켜 자리가 있어. 피흘린 자리가 있어. 그 바위가
피가 나왔다는 거야.

바우를 켜다음부터 그집이 망했잖아. 쫄딱 망했어.

거북바위

그런데 이건(거북바위를 가르킴) 보지는 못하고 내려
오는 말인데, 여기 큰 부자가 있어가지구 근데 아마 그
때 당시는 발바루 달방아만 썩먹는 시대여.

요새처럼 그런 썩먹는게 없었고 썩먹는 것 때문에 근
심이 돼가지고 밤낮 고되니까 여자들이 며느리들이 그
저 그집에 손님이 많이도 왔대 왔대 부자집이 그래.

대사가 시주하러 왔는데 우리집에 손님만 안 오게 해
주면 쌀을 몇 말 퍼 준다 그러더라.

대사가 들어갈 당시 그집이 그 바우 때문에 부자가 된
걸 알았거든.

거북바우 땀에 그런데 그 당시엔 저 모가지가 붙었었대, 안 떨어지고.

근걸 대사가 그집에 들어가니 부잣집 며느리가 그러길래 뭐 쌀이라도 몇 말 퍼줬겠지.

그래 우리집에 손님만 안 오게 끊어주게 해 주면 쌀을 시주한다 그러더라. 그래 벌써 이 거북바우땀에 그 집이 부자된 걸 대사가 나오다가 그 글 구학문 그 글로다가 모가지를 잘랐다고.

그때 뭐 혈까지 나왔다는데 우린 뭐 전설이지 뭐 우린 모른다고.

[그럼 그 집에서는 가난해지고?] 아주 쫄딱 녹았대, 아주 씨가 없어지고. 근데 우리가 생각할때는 그 대사가, 중놈이 틀러먹은거야.

그 쌀만 가져가고 안 끊어줬으면 괜찮잖아.

말무덤 설화

저기 우측으로 조금 내려가면 북쪽대기 요렇게 있는데 거기 황씨네 묘소가 있고 그 꼭대기에 그 말 묻었던 묘가 있다고 음, 그래서 그걸 말무덤이다 하지.

그러니까 그게 여러 보통 말이 아니고 용마가 났다가 제 주인을 잘 찾지를 못해 가지고 그만 더불어서 죽었어.

빗자루와 하루밤 잠을 잔 할아버지

도깨비가 뭐냐면 허깨비라구. 허깨비라는 도깨비가 있기는 있어. 불이 파란게 돌덩이 같은게 횡횡 막 돌아 다닌다구.

어떤 때 보면 빗자루나 병마개 깨진게 도깨비야 아침에 가 보면, 그전에 여기 한 노인이 살았었는데 저기 시장을 걸어다니는데 시방은 차타고 다니는데, 밤중에 술을 잔뜩 먹고 혼자 걸어오더니깐 외딴데 오니깐 불이 훤하더라. 웬 아가씨가 말이유 하두 곱게 차려 입구선 한복을 해입고나오더라. 약주 한 잔 잡숫고 가라구 하더라. 그렇게 아련하더라. 기와집이. 아주 밤 중에 오는데 이상한데 말이여 도깨비한테 흘린거지.

이 여자가 들어가자구 그러더라 끝구 들어가니깐 들어갔어. 어매나 술을 잘 권하구 맹물을 줬는지 모르지, 도깨비한테 흘렸으니. 술이 잔뜩 취했는데 술을 권하니 밤새껏 먹고 여자하고 희롱을 했는지 뭘 했는지.

아침에 깨보니 빗자루를 끌어 안고 잤더라. 빗자루가 거기다. 피를 묻히면 도깨비가 된다잖아.

월경이라고 있잖아 월경이 묻으면 도깨비가 된대. 예전에 여자들 빗자루 못갈게 하잖아. 아침에 깨보니 빗자루를 끌어 안고 잤더라.

근데 저기 벼랑 떨어진 데더라. 도깨비에게 흘린 것이 별 꼴이 다 있지.

도깨비 불

옛날에는 뭐 도깨비라고 해가지고요. 여름에 아주 캄캄한 밤에 지금은 뭐 방범등이래도 있고 전기불이라도 아무리 캄캄해도 켜져 있지만 옛날엔 비나 오고 캄캄하면 뭐 아주 나가면 그렇죠 뭐.

뭐 도깨비불이라고 해가지고서 저기서 보면 막 왔다 갔다 왔다갔다 하는데. 뭐 확인을 안해 봤는데요.

불이 하나가 한 두개 세개씩 막 이래 났다가 또 하나도 났다 그러더라구. 근데 불이 그래 왔다갔다 하는건 봤어요. 근데 어른들이 보고 저거 도깨비불이라 그러는데 누가 뭐 가봤나. 그러니 모르죠. 확인 안해 봤으니까.

도깨비 출현

원재학이 원재훈이 두 형젠데 그 원재학이 아버지 원치산이라고 하는 노인이 아주 무서웠어.

자기 당대에 천석한 사람이야 자손해서. 그 메누리가 메누리 보잖았어, 새루. 이르구 나가서 돼통을 보니까 밥알이돼통에, 쌀알이 돼통에 있단 말이야. 그래 메누리를,

“아가야 아가야”

“예”

“너 이리 좀 와봐라.”

“너 저거 누가 버렸어? 니가 버렸지? 들어가 줘 먹어. 이 귀한 쌀을 왜 그렇게 내버려?” 그래 줘 먹으라 그랬대. 그래 줘 먹었대. 메누리가. 아 시애비가 줘 먹으라는 데 안 먹을 수 있나. 그이가 당대 천석했거든. 아 인제 아들이 형젠데 다 노나 줘잖어. 그래 죽었다단 말이여.

큰 아들은 저 아버지 죽이고 삼수산 나가기 전에 재산 다 털어 먹었어 투전해서. 원재학이가.

기게 부모재산을 잘 지키는 사람이 드물대요. 우리 대에서 내가 봤시니까 삼년 안쪽에 저 아버이 천석하는거.

그러니까 큰아들이니까 좀 더 줘실게 아녀 하매도 한 칠백석 주긴 줘실기여.

그 자기 당대에 한 삼년 가매 그걸 다 떨어 먹었어 저 개지구 삼년만에 튀전을 해서. 게 그 재학이는 아주 키가 크고 뚱뚱하구 그 재훈이는 동생은 키가 쪼그만기여 그 교수만이네 가르구 그렇게 계베렸단 말여.

그 사람은 재산 안 날리고 고냥 있었거든. 그래 인제 그 집이 그러니까 한동네 사는데 여그 살 제면 형은 여기만침 살고 그 동상은 저 아래 한동네지만 그러구 떨어져 살았다구 말이야.

그래 인제 살림이, 형이 살림을 다 떨어먹었으니까 굶을 형편인데, 안 봐줄 수 없잖아 동생이. 동생은 그 즈아버지 준재산 고냥 가지고 있으니까. 아 쌀이라도 한가마씩 줘야지 안 줄 수 있나 동기간에. 그땐 동기간 의리가

그랬어.

하루저녁에, 우리 열일곱 살 먹었었는데 아 어느 집에서 '불이야' 소리가 나거든. 그 아래 모퉁이에서.

우리는 옷뭇에 있고 인제 그 사람은 아래뭇에 있는데 아 나서보니까 불이 나가지곤 탄다 이말이야.

그래 인제 쫓아갈꺼 아녀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뻘 소방대로 없고 그저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재우(겨우) 그지 끄내면 못 끄내면 그랴때거든. 바가지로 끼었고 그랴때야. 내려가 보니까 그 재훈네 집에 아가 탁재야 컷지. [떨어먹은 사람집이야?] 그 동생네.

아 그 지붕에 불이 막 타대 그러. 집 우루, 밑엔 안 타, 꼭대기만 타더라구. [그래 이제 도깨비가 불냈네 그럼]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인제 물을 끼었고 그야 말로. 그래서 얼마 안돼. 꼭대기불을 잡았던 말이야 동네 사람이. 꼭대기만 탔어요 꼭대기만, 속은 안 들어왔더라구. 그 놈이 그 다음서부터 장난을 해대기 시작하는데 그게 도깨비불이란 말야.

[이 집에 가 불놓고 저집에 가 불놓고 그래?] 아냐. 다른 집은 안 가고 꼭 그집만 그래. 아 글썸 이상해. 그래 그 놈이 그때부터 자꾸만 시작하는데. 인제 저녁이믄 그 집 방이 사랑이 세 칸이야 사랑이. 그래 인제 맨 아래 칸에 인제 나이, 지금 이틀테면 노인네지. 한 오십, 그뻘 한 오십 된 사람이 우리랑 같았어.

그래 인제 아랫방엔 그런 사람들이 모여 놀고, 고 담

에 한 사십된 사람이 모여 놀고 사십, 삼십된 사람이 모여 놀고, 우린 저 맨꼭대기 인제 한 이십된 사람은 저 맨 꼭대기 방에서 모여 놀고, 그 집에서 밤참을 해 줘서 인제 사람을 제턱으로 간내기처럼 갔다 놓고 인제 도깨비가 장난하면, 그래 인제 집을 지키는게 아니라 인제 불 노니까 사람을 많이 범석거리 봐야 좋을게 아냐.

저녁이면, 이제 열두 시쯤 되면, 쿵 소리가 나쁜 이쪽 맞춰서 드르르, 저쪽 문서 드르르 그래 인제 여기서 드르르 저기서 드르르 그러거던. 그리고 땡기고 장난한다고. 근데 불이 뭐 동그탱이 같다고 모두 얘길 하거든. [동그탱이요?] 동그라미 있어요. 예전에 물 퍼다 먹던, 여자들이 이고 땡기던 이런게 있었다고. 그래 불이 동그탱이 같다고 노인들 얘기한 걸 들었던 말야. 실지 불은 시방 후라시 불만해요. 큰 후라시불. 내가 그 실지 본 거니까. 후라시불만 하다가.

그라니까 이제 예전에 노인들이 동그탱이 같은 불이 왔다갔다 한다고 그랬단말야. 퍼러요. 꼭 후라시불 처전에. 도깨비불은 꼭 후라시불 처맨합니다. 후라시불은 더 퍼렁지. 이놈이 땡기며 장난하는데 이 솔뚜껑 있잖아? 솔뚜껑을 솔안에 쪽 너요. 솔안에 다 솔뚜껑을 쥐 넣거든 가만 놔두면 그 이틀째 끄내놓는다고. 또 와서.

그리고, 저 간장항아리 있잖아? 간장항아리다 쇠똥덩이를 갖다 가뜩하게 갖다 쥐다 넣는다구. 소똥 똥글똥글 한걸 이따구를. 말른거. 그놈을 쥐다가 간장항아리에 가

뜩하게 갖다 놓는단 말이야. 그 이튿날 저기부터 살짝 다 걷어가버려. [그믐, 간장 깨끗하고?] 간장 깨끗하지. 소똥이 들어갔다 나온 건 못 먹지. 하루 저녁에 그러니 그집에서 밤참을 해줘 가면서 사람을 모아다 놓고 있거든. 하루 저녁에 인제 밤참을 딱 열두시 되면 밤참을 하는데 밤참이래야 흰죽. 한 그릇이지. 흰죽. 쌀죽 한 대접씩 여 이제 그거 얻어 먹는 재미에 또 한두푼 할 때니까. 나이든 사람이 모이거든 안그래.

그건 인제 얻어 먹고 죽 가운데 방 안방에 일전내기 화토라고 있거든.

띠에 일점 지금이면 아마 천원 맞전인데 그때 돈 왜정 때 돈 일전이니까. 이제 죽 모두 하고 있는데 아 한시쯤 되니 드르륵 소리가 나더라구. 그래 한 사람이 원호영이라는 그 분이 "야들아 야들아 저기 또 왔다" 그러거든. 그랬더니 참 그놈도 재주는 무서운 놈이라구. 방은 서(셋)이지만 복판에 문이 다 있는데 문이 다 통했잖어. 서이가.

불은 세 군데 다 있거든. 세 방 다. 그때야 등잔불이나 등잔불. 불을 켜놓고 거기 모두 모여 앉아 화토를 하는데 그저 이 문 여섯 개가 안방에 두 개 가운데 방에 두 개 꼭대기 두 개가 일시에 탁 열려요. 한꺼번에. 한꺼번에 열리니까, 불이 폭 꺼지거든.

그리고 방에 이놈이 뜩 들어와서 두놈이 들어와서 장난을 하는데. 불땡이만 왔다 갔다해. 하나 옷방 가면 하

나 안방오고. 하나 안방에 가면 하나 옷방으로 가고. 그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고. 우리가 봤다구.

그래서 거기서 똥 썩 놔두 있고 오줌 썩 놔두 있고 놀
래가지고. 아 불이 글썩. 두 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러니까. 그리고 실며시 나가 버리는 거야. 그래 도깨비
불은 걸만 타지 속은 안 탄대요.

그래 그집이. 그러군 저 제천으로 떠 버렸어.

빛자루 도깨비

우린 또 저 그것도 봤어. 우리 동네 사람인데. 그전에
이 저 낭기 없어서 인제 저 주천 좌편서 저 사자 우전가
서 소를 가지고 실러가지고 왔거든.

그래 아침 첫 새벽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인제 소에다
싣고 인제 가서 인제 한번에 해 싣고 오면 거기서 사십
리를 낭구를 싣고 와보라구. 얼마나 먼가. 왕복 팔십리
야냐. 가서 낭구하는 시간 있지 않아? 가서 낭구를 해
싣고 오는데 그전 그 중방이 앞에 중방이 가봤어. 중방
이가 이 노석마당 만해 넓이가

인제 거길 오면 처녀가 말이여 나와 좀 같이 가자 그
런대. 그래 따라오서 맨 자꾸 소위에 올라 앉아 가겠다
그런대. 에 낭구를 한 마리 가득 해 실었는데 그위에 올
라 앉으면 소가 무거울 게 아니가. 안된다 그러면, 아 난

무겁지 않으니까 좀 올라 타고 가자고 다리가 아파 못
가겠으니 그래 올라갔다는구만. [올라가?] [제가?] 응.
제가.

게 올라가면 밧줄을 그만 꼭 조인데, 아주. 꼭 졸르면
아프다 그랬다는구먼. 그래 괜찮다 그래면서. 꼭 졸르고
선 (떨어질까봐 그런다구) 집에 와서 보면 빗자루 묶어
가지고 온다 그러잖어.

해님 달님

오누일 데리고 남편이 죽고 없으니 하루 하루 벌어먹
느라구 길쌈 해가지구 삼 삼아 가지구, 이제 그걸 찢라
구 도투마릴 이래한 걸 놓고 감는데, 삼베를 실을 풀질
을 해가지고 감자내?

도투마릴 감아서 그걸 매주러 갔다가 저물게 오는데,
한 고개 넘으니 호랑이가 나섰으니 밥을 애들 주려고 밥
을 얻어 가지고 오는데 “밥을 날주면 내가 안잡아먹지.”

그래. 밥 찢지.

또 잡아 먹는데 아유 난 우리 애들 때때 안된다구 그
랬지. “그럼 옷을 다 벗으면 내가 안 잡아먹지.” 옷을 다
벗어 놓으니 그래도

잡아 먹을려고 해. 그래 어떻게 해. 집으로 왔지.

오기 오니 이놈의 호랑이가 집엘 와 가지고 방에 들어

가니 앉으니 애들 두 오누이가 앉았으나 그 애들 잡아 먹으려 하니 그 아들이 그리 죽나 어떻게 똥마렵다구 핑계를 대고 나갔어.

아유 똥이 마렵다구.

그 자릴 걷고 누라니, 아이구 안된다구, 그 오누가 똥마렵다구 뛰쳐나와고는 우물가 큰 배랑가에 있는데 그 배랑가에 올라갔어.

호랑이가 다 재주를 해두 호랑이가 다 가르쳐두 남구 올라간 건 안 가르쳐 준대. 남구올라 간 사람 다 잡아 먹으니. 남구 올라가니 달이 환한데, 물에 애들 그림자가 있을거 아니야.

물이 있으니 이놈의 호랑이가 보니 애들이 가고 없고 물에 들여다 보니 애들이 있거든.

조리로 건질까, 주격으로 건질까. 이것들이 고만 헤헤 웃었네 그게 우스워서. 이래 쳐다보구 아유 이놈이 올라오려고 그러네.

그만 애들 들어서 하느님 하느님 저희를 죽일라면 썩은 다줄을 내리세요. 죽일라면 썩은 다줄을 내리구 그러라구.

아 하늘에서 아주 은다줄을 그 좋은 튼튼한 다줄을 내리네. 잡고 올라앉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서 올라가가지구. 두 오누가 니가 해가 될라넌, 내가 해가 되련.

그러는데 여자는 밤으로 당기는게 달이 무섭다구 난 해가 된다하니 여자는 해가 되구 남자는 달이 되구.

수수께끼

수수께끼 하나 해 줄까? 딱 네가진데 다 좋다고 하면 안돼. 첫째, 비오다가 완전 해가 나고 번쩍 개이는 날 좋아하는 사람. 둘째, 심신유곡에서 폭포수 내려오는 것 좋아하는 사람. 또 어항에 고기 놀지 좋아하는 사람.

겨울 설한포에 백설이 하얀데 솔방울 내려 오는것 좋아하는 사람. 그럼 네가지 아녀? 그 속에서 한가지를 좋다구 해야 해.

겨울 설한포에 하얀 눈에 솔방울 내려 오는 거 좋다고 하는 사람은 외롭게 살아. 비오다 개인것 좋다는 사람은 맨날 분주하게 살아. 따져보라구, 내 몸을 그저 뭐든지 해야 부지런해야 먹고 살아.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심신장곡에 폭포수 중단 사람은 이식 걱정을 안 해 이식은 먹는거잖아. 어항에 고기는 자손의 덕을 본대. 그게 어지간히 맞추더라고. 그 어지간히 근사하지?

의문의 돌풍

한 달을 두고 우뚝게 피를 먹으려고 척추병 걸린 남자는 여자를 먹어야 한다니까, 한달을 두고 연구를 한거야 이 놈이. 기어이 기회가 와 가지구 애를 처치를 했어.

피를 먹고 살을 떼다가 냉중에 먹으려구 어느 빈집 고

려장에 감춰 놓았는데 발견돼서 고기는 못먹고 감방 가고 말았는데 개를 찾느라 주민들 참 애를 먹었어.

현천 3리, 현천 4리 화곡리팀 해서 토끼 몰이처럼 일렬 횡렬로 해서 찾는데, 개를 발견을 해서 수사가 끝이 났는데 개를 공원 묘지에 묻었는데 개를 묻고 하루만인가 바람이 거기서 일기 시작했어. 묻은데부터 그래 가지구 개가 다니던 길을 찾아서 남의 지붕이구 막 날리는데 초등학교 앞에 수양 버드나무가 한아름 넘을거야 한아름 반 정도. 그 나무가지 뭐 학교 나무가지 뭐 전부.

계속 들풍이 일어나는데 그때 당시에 쓴 경운기가 세 바퀴나 굴렀어. 집도 내동댕이치구. 저쪽 성우스키장 뒤 쪽은 썩밭이 됐어.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었어.

작년에 졌다는 집을 내동댕이치구. 복구 지원을 나가 니깐 집이 없어. 집이 없어 나무도. 그 때 피해 제일 많이 본 데가 우용 2리 두원 2리가 큰 피해를 봤지. 70정도 노인네들에게 물어 봤어. “이런 변을 봤습니까?” 침 봤다는거야, 그런 바람 침 봤다는거야. 개가 지나간 자리를 시작으로 해서 성우에서 끝났어.

미(뵤) 속의 대화

거지들이 그 때는 많았잖아. 가다가 가다가 옛날에 집이 없고 쩡일 걸어 다니고 차도 없고 자전거도 없고 아

그때가 옛날이잖아? 걸어서 걸어서 가다가 집도 절도 없고 미가 있더라. 미는 항상 겁이 안나는 데가 안심되는 데가 미여. 미 옆에 때가 잘 자라니까 따뜻하니 괜찮더라. 오늘은 여기서자구 간다구 미곁에 썩미가 있는데, 그 미곁에 세간에 그 속에서 말을 하거든, 죽은 혼이 미 속에서 말을 하거든. 아, 그건 옛말 말이지.

할멈이 어디서 와서 “영감 뭐 제사 보러 안가우?” 그러더라. “아구 난 못가겠네, 손님이 와서.” 이래거든. 드러눕 자는 사람이 듣는거야.

“손님이 어디 내집에 왔는데 어디 어떻게 집을 비워 놓구 가누. 자네 혼자 대신 갔다오게.”

할멈이 귀신이니까 금방 갔다왔더라.

“뭘 지사(제사)를 금방 얻어 먹구 왔누?”

“아구 그것들 철도 안 난것들이 무슨 지사를 지낸다구 언내를 해업고 소당질을 자빠져 자다가 지사 지낼 때가 됐는지 더벅머리 대가리도 안 빗구 낫도 안씻구.” 귀신이 그렇게 말하더라.

지사는 정성이거든 아 자빠져 자구 애를 끼고 자빠져 자구 더벅머리 대가리를 해가지구 “아 참 지사 물 떠나야지.” 애를 들쳐업구서는 나가선 소당질을 하고 어찌구 이러더라. 그러길래 발길로 탁차서 어린내가 그 소당질 하는 화루다가 탁 집어 넣었다구 하더라. 귀신이 떠미니 들어가지. 영감이 하여간 천덕구러기라 달라.

“철이 없네. 그것들이 뭘 안다고 그러누, 그 언내가

술한 고생 하잖우” 아유 하두 알땅마스려워. 지사를 물
하나 떠나두 깨끗이 떠놓지. 자빠져 자구 낫도 안씻구.
아 지사 지낸다구 그러구.

“가들이 그걸 아누, 다 약이 있는데.” 이러거든. 어렵
지도 않다구. 할멈이

“뭔데?”

“아범이 그걸 알면 되는데, 뵈밥을 얻어다가 한순갈
태워가지구 제 머리칼하구 태워 가지구 불 속에 넣고,
들지름에 개서 발르면 당장 난다.” 그러더래, 자면서 들
은 놈이 알지. 그래 가지구 아 그 놈이 갔는데 어저께 지
사를 지낸 그 집에 들어 갔던 모양이야. 아 다 약이 있다
구. 좋은 약이 있다구. 메밥과 머리칼을 태워보라구 들지
름에 개서 발라보라구. 들지름이 원래 약이거든. 언내가
금방 났더래. 지성이면 감천이라구 사람은 마음씨를 곱
게 써야지.

해님 달님

옛날 옛적에 어머니하고 딸하고 인제 살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하루는 참 외판데로 인제 삼베질쌈(길쌈)을
씩 하는데요.

그래 가지구선 인제 질(길)을 내려가다가 재녁밥을
해서 딸을 갖다 줄려고해서. 아 참 남매가 있었는데 재

턱을 해가지고 인제 한 고개 넘어 가니까 호랑이가 나타났단 말이야. 그래 호랑이가 하는 말이 이고 가는게 뭐유? 이러더래. 밥이유 나 한 숟가락 퍼주면 안 잡아먹지.

한 손갈 퍼 줬단 말야. 그래 또 한고갯 넘어 갔더니 12고개를 넘어 가야 하는데, 한고갯 더 넘어가니 호랑이가 또 앉아서 이고 가는게 뭐유? 그래 밥이유. 나 밥 한숟가락 주면 안 잡아먹지. 여기오자 반정도 덜어줬단 말이야 호랑이를. 또 세번째 넘어가다니까 호랑이가 또 있더래. 이구 가는게 뭐유? 밥을 세 고개 넘어 오다 호랑이게 거진 다 주고 쪼금 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거 마저 주면 내 안 잡아 먹지. 마저 줬대유. 먹고선 한 고개를 넘어가니까 호랑이가 또 나타나가지구 흔들 흔들 가는게 뭐유? 팔이라고 그러니깐, 한쪽 띠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 전설이지 띠줬대유. 한쪽은 피를 흘리면서 한고개를 또 넘어가니까,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구 또 한쪽에 흔들고 가는게 뭐유 팔이라고 하니 한팔 마저 띠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러더래. 띠 줬단 말이야. 팔 다띠 주고 그 다음은 다리만 걸어가는데 한고개 넘어가니깐, 그 밑으로 걸어가는데 뭐유? 다리유 그러니까, 그 하나 띠 주면 안 잡아 먹지 그러더래. 그러니 그 우습지 그게 전설이지 거짓뿌렁이. 또 하나 띠 줬대요. 찢뚝찢뚝 넘어가니 한고개 넘어가니깐, 또 찢뚝질뚝 거리는게 뭐냐 그래 다리라 그러니. 띠주라고 그러더래 띠줬대요. 다릴

띠 주니 또르르 구른단 말이야. 그러니 호랑이가 날름
집어 먹었지. 집어 먹고는 호랑이가 남매 있는데를 갔단
말이야. 찾아가지구 외딴집을 찾아 가니깐 문을 어두우
니까 남매가 문을 퐁퐁 잠구고, 엄마가 말이야 베 매주
고 응 온다구 문열어 달라니 안 열어 주더라.

손 디밀어 보라구 그러더라. 이 놈아들이 피가 많아
가지구 예전에 사실문인데 거기다 팔뚝을 디밀으니 털
을 만지니 꺼칠꺼칠 하거든. 어머니 손이 아닌데 베에서
풀 묻어서 꺼칠꺼칠하다. 다시 한쪽 디밀어 보랬단 말
이야. 호랑이가 발이란 말이야 진짜. 이놈들이 보니까
아닌데유. 왜 아니여 말하자면 예전에 호랑이가 말을 했
는지 안 열어 주니까, 나와서 피마자 입사구를 손에다
딱 싸매가지고 뺨질뺨질 하잖아? 뺨질뺨질 하거든 우리
어머니 손이다. 문을 열어 줬단 말이야.

매들을 사람 시늬를 했는지 남매들을 다 희롱해 가지
고 잡아 먹었던 말이야. 옛날에 어머니와 남매가 그런
전설이 내려오지.

호무시새

농악대는 시방도 많잖아. 농촌에도 있구 뭐 가면 말이
야 도회지 같은데는 농악단이 있어 가지구 뭐 잘하는데
예전에 호무시새라는 것은 이제 모를 심어놓구 시방은

논을 한다면 제초로 다 하는데 예전에 호매로 댔다구. 그거를 한 20명씩 말이야 저기 조를 짜가지고 마을에 전체 논 붙이는 사람이 전부 들에 나갈 때는 깃대를 해 쫓고 말이여.

앞에서 썰과리를 치고 북을 치고 장고를 치구 이렇게 이제 들판에 나간다구.

논 가운데다 깃대를 쫓아놓고 한바탕 인제 먹어가며 한바탕 논다고. 호매로 논을 매요. 한 두 시간 매면 쉬고 막걸리 먹고 논을 매요. 또 매고 저녁때까지 매고선 저녁때면 떼지어 들어와요.

한 10일 있다가 호무시새 날을 받아요. 호무시새 말 하자면 시방같으면 관광가는 품이여 한 20에서 30명 집에서 집 안에서선 막걸리 해 놓고 노인들이구 젊은이구 놀아요.

안팎으로 막걸리 하는 집은 막걸리 하고, 떡 해는 집은 떡 하구, 국수 해는 집은 국수 하구. 하루날을 받아 큰 소바술 같은 마당을 딱 거놓고서는 받아가지구 거기서 놀아요.

짙일 뭐 노래하다가 짙일 먹으면서 막걸리 먹으며, 예전에 소주가 참 귀하거든 막걸리 해놓고 뽕뽕하니 옥수수 술 해가지구 그래도 취하거든 독하게 해놓으면 먹고선 한바탕 놀구 그게 호무시새야.

그래 가을이 되면 음력 8월 15일 한가위때 날을 받아 그땐 호무시새라고 하지 않고 노라리 한다구 해서 모여

가지구 당산이면 당산에서 20이면 20여서 모여 가지구
모아 하루 쟁일 놀구 그게 호무시새라구 호무시새 없어
진건35년 40년 거진 될 걸.

호랑이를 타고 다니는 할머니

호랑이를 타고 다니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양반이
뭘하는 할머니냐 하면은, 호랑이를 타고 다니면서 점을
치고 이러는 거야. (호랑이가) 눈을 감고 중얼중얼 하면
서 문을 짚고 이러거야.

그래 할머니가 문을 이렇게 열으니깐 아 이런게(몸
짓) 크게와서 이러고(몸짓)있잖아. 그게 호랭이래 호랭
이. 할머니가 머리를 쓰다듬으니깐, 이래고 있는거야.

그래서 할머니는 호랑이를 타고 다니면서 남이 해달
라는거 해주고 그 양반이 호랑이를 타고 다니고 이래다
죽었어.

제주 많은 처녀

옛날에 말이야 삼십 먹은 처녀가 살고 시집을 못가고,
삼십먹은 노총각이 살고 있는데, 이 처녀가 머가 얼마나
천재인지 하루 식전에 일어나서 삼 알아 삼.

삼 한 피네를 담겨 가지고 하루 저녁에 아 삼어가지고 매가지고 이겨서 한 필을 다 짜가지고 한 필 다짜. 식전에 일어나서 척을 개는게 있단 말이야.

한필을 척을 다 개서 앞까지... 확 챙겨 놓고는 아침을 해먹고 그 날 일과를 하는데 처녀가 시집을 갈라니 나만큼 재주 있는 총각이 있어야지.

옛날에 조선 팔도거든 지금 조선팔도거든 광고를 냈단 말이야. 전화가 있나 나는 이러한 재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총각이든 오라 이거야. 그런데 총각놈은 뭘 머리가 좋으나며는 아마 한 오월달됐던 모양이지.

하루 식전에 벼(벼)씨를 한 섬지기 벼씨 그 종자를 담귀서 모를 길러놓고 아이는 다 갈아가지고 삶아가지고 하루 저녁에 그걸 다 심었어. 논이 얼마냐면 삼천평이야. 학생 내 얘기 들어봐요. 하루 저녁에 길러 가지고 다 심는거야. 아이 논 갈아 가지고 삶아가지고 번지 쳐서 다 심어놓는거야. 하루 저녁에 다 길러 다 심어.

식전에 그래서 이제 처녀가 물었단 말이야. 그 총각 뭘 재주를 가지고 계신가 설명하라고. 그래 그 이튿날 처녀가 일어나서 해장국을 탁 끓여 맥여가지고서는 벼씨 한 섬지기 종자하고 쓰레, 흙쟁이, 샷샷 다 내준겨. 저 들이 전부 우리 한 섬지기입니다. 한 섬지기 넓어 삼천평이면 논이 엄청나거든. 저기 전부 우리가 하니까 나가서 심으라고..

벼씨 한 섬지기 벼씨 종자하고 쓰레고 뭐 흙쟁이고 뭐

고 다 내줬단말이야. 또 이 처녀는 들어가서 삼을 한 필을 담아 가지고 또 삶는거여. 삶아 가지고 따 짜서 이겨서 다 말래서 다 지고서 앞좌석엔 찡과 놓고는, 밥을 해서 이고서 그 왜 나부함지 못봤지? 나부함지라고 똥그란데, 옆에 손재비 한개가 있어. 거기다 밥을 해 담아가 지고는 거 참 삼십먹은 처녀가 씨암탉같이 살이 통통하게 찢게 외씨 같은 버선을 신고 밥을 해 이고 건너간단 말이야. 가다보니까 벌써 들판이 퍼래. 모 다 심었어. 갔다가 내려 놓고는 자기 남편 될 사람에게 진지를 잡수시오. 근데 이 미친놈이 모 심은 논배미다 샷갓을 덮어 놔거든. 샷갓, 우산처럼 생긴게 있어 갈대로 이렇게. 옛날에 우산이 없었어 옛날에는.

이거는 요새 찌그만 우산보다 약간 큰것도 있고 그래 이렇게 쓰는 것도 있고. 그래고는 이제 밥을 총각은 먹는다. 먹는데 그 처녀가 아이 여보시오. 이거 모를 심어 놔으면 꺾어지게 허리가 꺾어지잖아? 그 꺾어지게 덮어 놔느냐. 총각놈이 저쪽 머리에서 하루 식전에 한섬지기 길러 심는놈이 저쪽머리에서 자기 부인자리가 밥지고 올때 고놈의 벼 열 포기를 못 걷나 이거야(?).

배짱이 약한 놈이 고만 모 심은데 벼 열 포긴데 모를 샷갓을 덮어놔거든 덜렁 들어 보니까 벼 열포만 꺾으면 될 놈을.

이 놈의 처녀가 아 총각놈이 샷갓을 덮어 놔단 말이야. 참 한심하거든 처녀가 생각하니. 참 머리가 좋은 남

잔대 당신은 배짱이 약하다는거여. 저런거 가지고 텔고 살다간 내가 평생 고생이니까 진지나 많이 잡숫고 어여 본대로 돌아가시오. 이거여. 밥이 넘어 가나 그 꽃같은 처녀를 두고 그냥 갈라니 기가 맥혀서 밥이 안 넘어가 중치가 매여서.

그냥 그저 밥숟갈 떡 놓고 가는거야. 보내 놓고 처녀가 그걸 다 거듬거듬해서 집에 와서 밥그릇을 떡, 옛날에 부뚜막이야 싱크대도 없고 거실도 없는데 떡 놓고 생각하니 기가 맥히거든. 그거나마 붙들었으면 자기 부부가 될걸 괜히 놓쳤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선 팔도에다 또 광고를 냈네.

그러다보니 내려 썩다보니 갈기(가을)되었단 말이야. 벌써 삐쩍 삐쩍 얼 시덴데 조선팔도다 광고를 떡 냈네. 또 어느 총각이 또 왔어요. 처녀의 재주는 알거든, 총각놈이. 하루저녁에 삼을 담어 가서 삼아서 자르고 밥해 먹는 재주를 가졌다는 걸 알거든.

그 총각놈 보고서 저녁에 온 걸 저녁을 대접하고 총각한테 물었단 말이야. 뭘 재주를 가지고 계십니까? 처녀가 물으니까, 나는 오늘 밤에 자가지고 밤새 자고 식전에 일어나서 산에 가서 벼르기(벼룩)서말 서되 서흙을 붙든다 이거야.

서말 서되 서흙을 붙들어 가지고 머리칼을 주서 가지고 전부 굴레를 짜서 솔잎을 말뚝에 전부 붙들어 맨대. 서말 서되 서흙을 전부 굴레를 짜서 모두 말뚝에 붙들어

맨대, 그리고 아침을 먹는다는거야.

그 어디로 갑니까? 그 놈의 술발이 수천질 평대 신작로 옆인데 병대같이 그 술발 저길 가 붙습니다. 이거야. 그 처녀는 자고 일어나서 삼을 한 필을 삼아서 매서 짜서 턱 너 놓고는 밥을 해 이고서 또 아창거리고 걸어 가네. 걸어가다보니 그 술발을 찾아 가니 여길 올라 갈 수 있나 병대에 여기서 말하면 저얼로 돌아가서 …. 산에 올라서보니 드갈 수가 없어. 벼르기 뛰는 호도거리는 소리에. 산천이 전부 호도거리는거야. 벼르기 서말 서되 서흡을 붙들어 매서 전부 들떠니 뭐 호도거리제. [술잎에 묶은 거예요?] 술잎에 말뚝을 했지. 갈기 어르니까 술잎이 떨어지잖아 그걸 붙들어 맨거야. 그 가보니까 총각놈이 벼르기 서 흡을 못 들어 댔거든.

이걸 붙들리 없단 말이야. 서흡을. 그래서 처녀가 밥 그릇을 떡 올려 놓고 여보시오. 그런 배짱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서말 서되를 붙들어 맨 것만해도 기가 막힌데. 서흡을 드러내노면 들고 땀것이 아납니까.

그랬으면 내가 언제 서말 서되 서흡을 굴레를 풀어가 지고 말로 대 뵈니까. 뭐 근을 달아 뵈니까. 헤헤 겁장이야. 당신은 배짱이 약하니까 밥을 잡숫고 본대로 돌아가시오. 이거야 밥이 넘어가나 그게 기가 맥혀서 그 꽃 같은 놈을 놔두고 가려니 기가 맥혀 그냥 갔단 말이야.

이 처녀가 인제는 이 세상을 떠나야 돼. 그 꽃 같은 떠도는 반달같은 얼굴을 하얀 행주치마를 얼굴에 다 쓰

고 수 천리 병대에서 똑 떨어지는거야 이제 가는거여 죽을라고.

그래다 그 수천리 병대 밑에 길로 총각놈이 삼십먹은 총각이 가다보니까, 야 그 돌아오는 반달 같고 넘어오는 셋별같은 처녀가 행주치마를 써고서 싹 떨어진다고. 그때 두 주먹을 쥐거야 자동차가 있나 자전거가 있나 그때 조선에.

그때 어딜 들고 뛰었느냐 일로 흥남으로 들고 뛰거야. 흥남. 흥남에 쇠가 많이 난다 말이야. 흥남에 가서 쇧굽을 사다가 이 남조선에 그때 옛날에 이 그땐 뭐 이 복이 없었잖아 조선인데.

여기 나와서 대장간을 채려 놓고 쇧굽 낫을 버러 가지고 저 태기산에서 싸리를 베다 그 놈을 틀어가지고 싸리삼지 이렇게 맨들어서 가 콧 받았단말이야. 콧 받으니 처녀가 삼신에 툅 걸렸어.

땅에 떨어지면 즉사해 죽을텐데 살렸단 말이야. 떡 놓고 보니까 까무러쳤어. 그냥 뭐 어떡해 주물러 가지고 미음을 씹다 맥이니 툄툄 툄고 살아나거든.

당신 우짤 사람이나? 설명을 했거든 당신 행주치마로 얼굴을 싹 가리고 떨어져 죽는 순간에 내가 이북 흥남 철공장에 가서 쇧굽을 사다가 여길 나와서 대장간을 채려 놓고 나서 당신을 받아 살렸습니다.

그래 났더니, 그 처녀가 산 처녀가 삼십먹은 노처녀가 그 총각을 어깨를 두드리며 가서 당신이 과연 내 평생

같이 살 부부, 남자라 이거여. 그래 같이 살다가 죽은 지 한 삼년 되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장사까지 가보고 온 사람이야 갔더니 참 맥주에다 과자다 뭐 많이 먹고 와서 요즘 몸이 아주 건강하다고.

民俗信仰

개 버릇 남 즐까

삼형제가 길을 가다가 보니 사람이 죽어 있더라. 일어 죽었는지 어쨌는지 어디다 장사지내고 가야 되는데 그거 뭐 그래도 집에서 죽은 것처럼 염을 하고 매장을 했던가봐. 질바닥에서 죽으니 어따가 파 묻어야지 어떻게 하겠누. 그걸 셋이서 파 묻으려구 서 있는데 똥이 여가 쓰러지구 저가 쓰러지구 자꾸 그러더라.

살아서도 지랄하더니 죽어서도 그런다구.

그런 말을 쓰는데 살아서도 못된 놈이 죽어서도 못된 짓을 한다는 그런 말이 있지

「부록」

民俗信仰

민속신앙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횡성의 전통신앙 제단을 다음과 같이 밝혀놓고 있다. 곧 현의 서쪽 3리에 사직단, 동쪽 3리에 문묘(文廟), 북쪽 3리에 성황당, 남쪽 3리에 여제단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 향교에 있는 문묘를 제외하고는 찾을 수가 없다.

(1) 성주신앙

가신(家神)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었어도 여전히 받들어지고 있는 것은 성주이다. 어느 집이나 차례를 지낼 때 차례상 옆에 성주상을 놓는다. 성주는 집안을 관장하는 주신(主神)이기 때문이다. 성주는 북어를 광목에 묶어서 서까래나 선반에 매단다. 제사는 10월에 안택고사로 드린다. 이때에는 떡을 시루채로 상에 올려놓고 비손을 한다. 떡은 이웃과 나누어 먹는다. 제일은 주로 날을 받아서 정한다. 성주를 모실 때 터주와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

(2) 서낭신앙

• 갑천면 부동리 서낭제

지금은 수몰지구가 되어 없어졌으나 부동리 사람들은 마을의 안과 태평, 풍년, 무병장수, 자손번창, 마을의 단

합과 질서유지를 위해 음력 1월3일을 기해서 서낭제를 지냈다. 제일이 다가오면 생기복덕에 맞추어 제관과 도가를 선정한다. 이때 서낭당과 제관 및 도가의 집에 흰 새끼로 된 금줄을 치고 금기하게 한다. 제관은 비린 음식을 금하고, 부정한 것을 보지도 않는다. 제사에 대한 모든 업무는 이장이 주관한다. 제의 비용은 성의껏 낸 추렴으로 하되 거기에 맞추어 제사를 준비한다.

제수는 돼지머리와 시루떡 및 오색실과와 술이다. 제사에는 제관을 중심으로 7~8명이 참여하는데, 여자는 음식을 만들 때는 참여할 수 있으나 제사 때는 끼지 못하였다.

• 갑천면 중금리 서낭제

중금리에는 교회가 하나 있었다. 구방리에는 천주교와 교회가 각각 하나씩 있다. 화전리와 부동리에 사는 교인들은 그곳에 교회가 없어서 구방리의 교회로 온다. 포동에도 교회가 없다.

중금리에서는 매년 음력 4월 4일에 서낭제를 지냈다. 제일이 다가오면 10일전에 생기복덕을 맞추어 제관과 도가를 선정하고 금기를 지킨다. 도가와 제관의 집, 그리고 서낭당에 금줄을 쳐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다. 제사 일 밤이 되면 다만 3인만이 도가에서 만든 제수인 돼지머리·떡·복어를 가지고 서낭당에 간다. 그리고 마을의 태평과 풍년을 축원한다. 축원이 끝나면 마을사람 모두의 소지를 올린다. 잘 오르지 않을 때에는 3번까지 올

려주고, 그래도 안되면 그 집에 조심하라고 당부하였다.

갑천면의 수몰지역에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주로 충북의 구인사로 간다. 또 청일면의 덕고산에 있는 봉복사(鳳腹寺)나, 포동과 매일리 사이에 있는 용성사(龍盛寺: 천태종)에 간다. 용성사는 포동의 저고리골에 있던 사찰이었는데, 1984년에 관음성전을 짓고 이전하여 왔다.

• 공근면 초원2리 서낭제

이 마을에는 돌탑과 서낭당이 함께 있는데, 서낭당은 마을 중심에 있고 돌탑은 마을의 어귀에 있다. 서낭당은 반평 남짓한 작은 스투트집으로 금줄과 한지가 현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제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사가 시작된 것은 1880년 경부터인데, 마을의 기(氣)가 부족하여 농사가 잘 되지 않는 것이라 해서 서낭당과 돌탑을 짓고 제사를 드렸다.

서낭제사의 목적은 기의 보충 외에도 무병장수, 풍년, 마을의 질서유지를 기원하는 데 있다. 제일은 음력 정월 보름날이며 지금은 2년에 한번씩 지낸다. 제의 전에는 금줄을 치고 당 주변에 황토를 뿌린다. 제관은 생기복덕에 맞는 사람을 선출하고, 그는 비린것과 부정탄 음식을 금하고 여러가지의 금기를 지킨다. 제물은 주과포를 사용하는데, 제사비용은 성의껏 추렴하여 마련한다. 여자들은 제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의방식은 유교식으로 시행하는데 축문을 읽고, 소지하며, 음복하고, 음식은 고루 나눈다.

(3) 산신신앙

이곳에서는 산신에 대신 제사를 산제(山祭)라고 한다. 그런데 이 산제는 마을의 공동제의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산에 가서 빌고 또 이사갈 때도 미리 고하고 가야 한다는 것으로 보아 삼척지역에서 전승되는 '산맥이'에 해당한다고 보겠다.

갑천면 포동리의 경우, 산제를 드릴 때는 미리 산에 올라가 구리봉의 소나무에 금줄을 쳐서 부정을 금한다. 제사 때는 정성을 다해 만든 제수인 시루떡과 북어포를 올려놓고 비손한다. 부정이 탄 제수음식으로 인한 설화를 채록하였기에 기록한다.

며느리가 산에 치성을 드리려고 북어를 준비해 두었는데, 시어머니가 모르고 눈을 빼먹었다. 그런 사실을 모른 며느리가 산에 올라가다가 뱀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마음에 꺼렸으나 무시하고 올라갔다. 메를 짓는데 이번에는 빨간 개미들이 오물오물 줄지어 오르내렸다. 아무래도 언짢았으나 그냥 내려가기가 뭐해서 빌기를 시작했으나 자꾸 말문이 막혔다. 이상한 느낌이 와서 눈을 떠보니 저쪽에서 빨간 눈알 2개가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다. 호랑이였다. 끝끝내 빌다 못빌고 포기하고 집으로 내리뛰었다. 집에 와 그 이야기를 전하니, 시어머니가 사실을 말하였다.

그런일이 있고부터 치성드릴 음식에는 일체 손을 대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4) 기우제

날이 가물면 포동리에서는 마을사람들이 덕고산의 용소로 가서 돼지를 잡아 그 피를 바위에 칠하였다. 그러면 부정한 피를 씻기 위해 곧 비가 내렸다고 한다.

한편 여자들은 계천으로 나가 키를 뒤집어 쓰고 물을 뿌리면서 물싸움을 하였다.

둔내면 현천1리에는 용소가 있는데, 이 물은 영월 주천강의 원류이다. 예전에 가뭄이 들면 마을사람들은 개를 잡아서 용소의 바위에다 피를 뿌리는 대항주술을 행하였다.

(5) 솟대

횡성군내에는 횡성읍 조곡리와 청일면 고시리등에 '솟대배기' 라고 부르는 곳이 있다. 이곳은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옛날에는 솟대가 서있던 장소이다.

횡성읍 반곡리에 무리개라는 자연부락이 있다. 이 마을에는 1960년대까지 솟대가 서 있었다. 그것에 대한 기록 <횡성군지(1986)>을 보면 다음과 같다.

무리개에 전주이씨 후손인 이재선이란 이가 살고 있었다. 그는 무리개의 산수를 둘러보고 뒷편과 좌우는 그 험박하게 생겼으나 앞쪽이 허전하여, 자식을 낳을 때마다 집 앞에 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이 마을의 안녕과 복을 빌기 위하여 솟대를 손수 깎아 세웠다. 솟대의 재료는 비바람에도 잘 견디는 낙엽송이나 소나무를 주로 썼

으며 높이가 15자 정도였다. 그리고 솟대 끝에는 오리 모양의 쇠를 만들어 올려놓았으며 매년 정월 초순을 기해서 새것으로 바꾸었다. 솟대를 새로 세우는 날은 손 없는 날로 잡았고, 제의는 마을의 堂祭를 겸해서 행사하였다. 이 날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제물을 차려 놓고 축문을 읊고 소지를 올렸다.

(6) 소(牛)수호신앙

이 지역에는 독특한 가정신앙이 있는데, 그것은 집안의 큰 재산인 소의 건강과 번창을 위해 구멍이 뚫린 돌을 외양간의 기둥에다 매다는 것이다. 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개천이나 들에 나가 구멍이 평 뚫어져 있는 돌을 주워서 그 구멍에 끈을 끼워 외양간에 걸어놓는데, 어느 집은 그런 돌을 2~3개나 걸어놓기도 한다.

전통적인 민간신앙에서 돌은 생식의 에너지를 지닌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그래서 바위에다 빌었고, 가루를 내어 마셨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여성적인 돌을 통해서 생식력을 증대코자 한 것이고, 또 병액과 여성적인 것의 合— 곧 陰과 陽의 相生을 도모코자 한 의례로 생각된다.

농사일에 소가 하는 몫이 크므로 이곳 사람들은 예로부터 소를 귀히 여겨왔다. 여기서는 소싸움을 몹쓸짓으로 여겨 시키지 않는다. 소를 자식처럼 여겨 겨울에는 춥지 않게 덕석을 입히거나 외양간에 짚을 두툼하게 깔

아준다. 추위에 소가 얼면 단오 무렵에 뜯어둔 썩을 사람오줌에 적셔서 불에 달군 호미로 뜸을 떠주고, 봄에 소가 여물을 잘 먹지 않고 몸이 마르면 '들피 먹었다'고 해서 콩과 보리를 삶아 먹이고 껍질을 벗긴 뱀을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먹인다. 그리고 소가 병을 자주 앓으면 외양간터가 나빠서 그렇다고 해 지관을 불러 위치와 방향을 다시 잡았으며, 쇠죽을 끓이는 곳은 반드시 소가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해서 고려하였다.

(7) 돌탑신앙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초원2리 상화대 마을에는 둘레 6m, 높이 3m쯤되는 원뿔형의 탑2기가 있는데, 할아버지탑·할머니탑이라고 부른다. 지금은 도로가 새로 포장되어서 마을의 입구가 아닌 밭으로 가는 길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탑 사이의 거리로 보아 예전의 마을입구였음을 알게 해준다.

왼쪽의 탑은 남근형의 윗돌이 없혀 있고, 오른쪽의 탑은 세개의 둥근윗돌이 없혀 있다.

이 탑은 1880년경에 마을 사람들이 정성을 들여 쌓은 것으로서 탑을 쌓고 난 후부터 마을이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제사는 정월 보름에 1회 지내는데, 서낭제사를 지낸 후 탑제를 지낸다.

이 마을의 돌탑은 형성원인이 2가지 전해온다.

하나는 마을 앞산에서 내려다 보면 마을이 행주형(行

舟形)이고, 마을 앞에 있는 태봉산이 노적거리 형상이다. 배는 물건을 다 실으면 떠나가므로 배형국의 마을이 떠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탑을 쌓았다고 한다. 노적거리 형상의 태봉산을 묶어둠으로써 그 노적거리를 마을에 유감시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마을의 입구가 허전하여 가난하므로 이를 비보해서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이다.

이 마을의 흥씨 집안에 군내의 청일면에서 시집을 온 부인이 있었다.

시집을 와서 보니 땅이 나쁘지도 않은데 마을 전체가 무척이나 가난하여 죽도 굶이지 못할 지경이다.

그래서 남편에게 그 이유를 물은 즉 해마다 '풍수'의 피해가 많아서 그렇다는 것이다. 그날밤 수심에 잠긴 부인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는 "상화터로 들어오는 입구가 너무 허전해서 못사는 것이니 그곳에 둥근 돌탑을 양편에 세우면 틀림없이 풍년이 들어 부자마을이 될 것이다."라고 계시하였다.

꿈을 깬 부인은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고 또 전 동민에게 알려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 탑을 쌓고 제사를 지내니 과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마을은 경사가 급해서 물이 흘러 내려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탑으로 막아 비보하자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8) 관우신앙(關羽信仰)

소설〈삼국지〉의 관우 장군을 신앙하는 곳이 둔내면 두원리에 있다. 두원1리 정성학씨 댁의 입구에는 이 마을의 서낭당이 낡은 채로 서있고, 정씨 댁 바로 위에는 관우사당이 있는데, 지은 지가 20년이 되었다.

처음에 사당은 웅장골에 있었는데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길가여서 관에서 헐으라 하여 여기에다 사당을 짓고 옮겨왔다. 잘 지은 4평 정도의 기와집은 사당 안에는 관우의 형상을 조상하여 모시고 있다.

제사는 예전에는 한달에 한번씩 지냈으나 지금은 경칩이나 상강때 정씨네 일가친척들만이 모여 지낸다. 이것으로 보면 여기 관우신앙은 마을신앙이 아니라 가문신앙인 셈이다.

정씨 가문에서 모시는 이 관우신은 정씨의 선친이 80여년 전에 그의 한학선생(漢學先生)님이 돌아가시자 후사가 없던 스승의 제사와 신앙을 물려받아 모시게 되면서 비롯된 것이며, 이 관우신앙은 조선 선조때부터 부친 스승의 조상이 모셔온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 스승은 임진란 때 들어온 명군(明軍)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중국군대에서 군신(軍神)으로 모시던 신앙을 전승하여 온 것으로 생각된다.

관우신앙은 중국에서는 군신으로서 또는 수호신으로서 믿는 신앙인데 명군이 들어오면서 전래하였다.

명군은 우리의 조정에 관우사당을 짓기를 요구하여

서울에 동관묘와 남관묘를 지었고 지방에도 곳곳에 사당을 지었다. 그래서 관우신앙이 우리의 무속신앙과 연계되어 퍼졌다.

강원도에는 여기 외에도 홍천군 서면의 팔봉산 인근 두미리 필곡마을에 관우사당이 있다.

그것은 민비의 총애를 받던 진령군이라는 무당이 쫓겨난 후에 거기에 숨어살면서 사당을 짓고 모셨다고 전한다.

강릉시립 제14권

강릉의 傳說과 說話

발행일 1998. 12

발행처 영진문화원

발행인 유우 신진환

편집인 홍경근·학원

주최 단체 누리기회

리베로

參考文獻

- 橫城郡誌 (橫城郡 '86年刊)
橫城의 脈 (橫城郡)
於斯買 (橫城文化院)
郷土文化史料集 (橫城文化院)
우리고장 橫城 (橫城教育廳)
故郷 (橫城教育廳)
江原傳統文化總書 說話 (국학자료원)
江原傳統文化總書 民俗 (국학자료원)
考證 및 其他자료수집

향토사료 제14집

橫城의 傳說과 說話

발행일 - 1998. 12

발행처 - 횡성문화원

발행인 - 원장 심진환

편집 - 횡성문화원

제작·인쇄 - 누리기획

비매품



황성문 화연